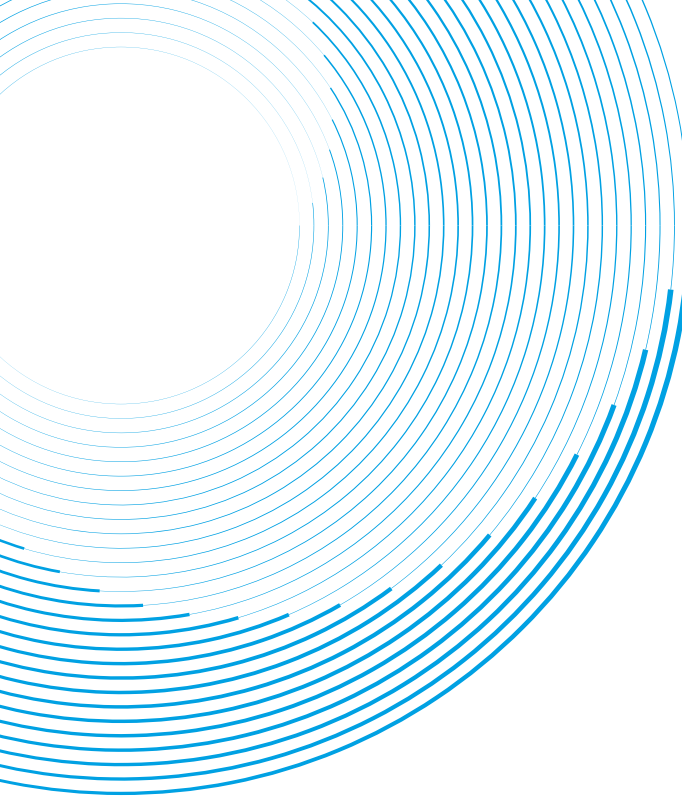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강소랑 조규형 이서연 김민주 강시은



연구진

강소량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조규형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이서연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김민주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강시온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보조원

한창묵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강소랑 조규형 이서연 김민주 강시은

책임연구원	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공동연구원	조규형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이서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위촉연구원	김민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강시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보조원	한창묵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요 약

□ 연구목적

- 서울시 50+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구축하고, 50+세대의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등을 분석함으로써,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50+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주요 개념

- **생애 주된 일자리**: 만 15세 이후 가진 일자리 중에서 근속년수가 가장 긴 일자리 혹은 (근속년수가 같다면) 소득이 더 많았던 일자리
- **‘일’**로 대표되는 경제적 활동은 시장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취업활동, 구직활동 등을 포함.
- **‘활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활동은 50+세대들이 지역사회에서 집단활동을 하는 것으로 학습활동,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을 포함.

□ 조사 대상

-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실태조사 연구들은 횡단면조사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50+세대들의 일자리 이력을 살펴보기 어려움.
- 또한, 서울시 50+세대 전체를 모집단으로 할 경우, 서울시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퇴직 후 일자리 이동 케이스들이 포함될 확률이 낮게 됨.

-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서울시 50+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자리 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조사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로 삼음.

□ 50+세대의 인구학적 배경

- 서울시 총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50+세대(50~64세)는 2019년 223만 명으로 2011년 이후 서울시 총 인구 대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세대임.
- 50+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금천구, 도봉구, 중랑구로서 2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함. 상대적으로 50+세대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20%대)이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마포구(19.7%)임.

□ 『서울시 50+세대의 실태조사』 주요 분석결과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던 종사상 지위는 퇴직 후에 임시직·일용직·자영업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
-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다음 일자리로 갈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낮아지고(상용직), 자영업, 특히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의 비율은 점점 증가 되는 경향
- 오히려 자영업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지낸 50+세대는 퇴직 후 일자리를 이동할 수록 또 다른 자영업으로 변경하는 비율은 감소하였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근로자로 이동한 50+세대 비중이 크게 증가
-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387명 중 두 번째 일자리로 이동은 27명, 세 번째 일자리로 이동은 단 1명으로 나타나, 50+시기 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면, 다음 일자리 이동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첫 번째, 두 번째로의 일자리를 이동하면서

근무기간이 급격히 짧아짐.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무기간도 짧고, 퇴직연령도 빠르며, 다음 일자리까지로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매우 오래 걸림.
 - 50+세대 남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19.1년 근무 후, 50.1세에 퇴직하고, 여성은 평균 12.5년 근무 후, 44.6세에 퇴직함.
 - 50+세대 남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다음 일자리까지 평균 1.3년이 걸리고, 여성은 평균 6.3년이 걸림.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들은 일자리 이동을 거치면서 소득, 종사상 지위, 직무, 직종, 사업장 규모 등 근로여건의 변화를 경험함.
 - 특히, 생애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첫 번째 일자리로 이동할 때, 근로여건이 크게 악화됨.
 - 주목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이동한 일자리에서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난 후, 두 번째 일자리에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이어졌다는 점임.
 - 예를 들면, 월평균 소득은 퇴직 전 342만원에서 첫 번째 일자리 263만원으로 23% 감소했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자리에서의 평균소득은 각각 263만원, 260만원으로 변화의 폭이 적음.
 - 또한,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과장·부장급에서 사원급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로여건이 달라짐.
-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뿐만 아니라 다음 일자리로의 이동을 거치며 근로여건 차이가 큼.
 - 두 번째 일자리를 가진 50+세대의 경우, 남성은 퇴직 후 첫 번째, 두 번째 일자리에서 각각 평균 4.3년 근무하는 반면, 여성은 3.5년, 2.8년으로 근무기간이 남성에 비해 적음.
 - 월평균 소득의 경우, 남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398만원)→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310만원)→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267만원)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277만원)→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202만원)임.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50+세대가 원하는 지원은 창업과 자영업 분야의 지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경력을 살릴 일자리의 증가로 나타남.

- 다만, 여성의 경우, '신규 경력 개발 일자리 지원'이 16.0%로 남성 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경력단절(평균 4.8년~6.3년)로 인해 기존 경력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서울시 50+세대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다음 일자리를 구하길 원했고, 구직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스스로 정보 습득, 인적 네트워크였음.
- 퇴직 후 50+세대들의 활동은 생애 주된 일자리 경력과의 연관성(51.6%)이 중요했고, 생애 주된 일자리와 퇴직 후 일자리가 경력과 연관된 경우, 경력이 연관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득 만족도가 높음.
- 50+세대가 퇴직 후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이고, 봉사활동의 형태임.
- 퇴직 후 활동의 소득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91.6%가 만족하였고, 활동하는 이유로 활동 자체로부터 오는 즐거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꼽음.

□ 『서울시 50+세대의 실태조사-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조사 활용방안

- 본 조사는 기존의 횡단면 실태조사에서 측정하기 어려웠던 50+세대들의 일자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일자리별 특성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서울시 50+세대 일반가구 전체로 해석시 유의해야 하며, 대신 주제별 심층 분석에는 효율적이라 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일과 활동의 유형, 성별에 따른 생애 주된 일자리 및 퇴직 후 일자리 특성 비교, 50+세대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분석 등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서울시 50+세대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 가능
- 본 조사는 2017년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 조사』에 이은 2번째 조사로서 조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서울시 50+세대의 실태 및 욕구

조사 그리고 주제별 심층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체계의 이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년마다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에 특수집단 또는 주제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조사통계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조사를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 기법을 통해 상호 보완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다른 조사와 연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목 차

요 약	i
제1장	3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진행 절차	4
제2장	7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고령자의 은퇴와 생애 주된 일자리	7
1. 중고령자의 은퇴 유형	7
2. 생애 주된 일자리	9
제2절 50+세대의 일과 활동	11
제3절 선행연구 및 선행조사 검토	13
1. 중고령자의 퇴직 및 직업이력에 관한 연구	13
2. 중고령자의 소득과 소비, 자산에 관한 연구	17
3. 중고령자의 퇴직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21
4. 선행조사 검토	25
제4절 50+세대의 인구학적 배경	27
1. 50+세대 인구변화	27
2. 서울시 자치구별 50+세대 비율	29
제3장	33
조사 설계	
제1절 조사 개요	33
1. 조사대상	33

2. 조사방법 41

3. 조사내용 41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4

제4장	서울시 50+세대의 실태조사 결과	49
------------	---------------------------	-----------

제1절 직업이력 49

 1. 일과 활동 이력 49

 2.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과 활동 실태 77

제2절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경제적 실태 96

 1. 소득 96

 2. 소비 102

 3. 자산 114

 4. 부채 127

제3절 삶의 질과 노후 준비 131

 1. 삶의 질 131

 2. 노후 준비 154

제4절 세대별 비교분석 163

 1. 일과 활동 상태 163

 2. 소득, 소비, 자산, 부채 수준 167

 3. 삶의 질과 노후준비 168

제5장	결 론	175
------------	------------	------------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175

 1. 서울시 50+세대의 일과 활동 175

 2. 서울시 50+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 177

 3. 서울시 50+세대의 삶의 질과 노후준비 177

 4. 세대별 비교 178

제2절 조사 활용방안	179
참고문헌	181
[부록]	189

표 목 차

〈표 1-1〉 연구 진행 절차	4
〈표 2-1〉 생애 주된 일자리의 정의	10
〈표 2-2〉 중고령자의 퇴직 및 직업이력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15
〈표 2-3〉 중고령자의 소득과 소비, 자산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19
〈표 2-4〉 중고령자의 퇴직과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23
〈표 2-5〉 선행연구 조사내용(1)	25
〈표 2-6〉 선행연구 조사내용(2)	26
〈표 2-7〉 50+세대 인구변화 추이	28
〈표 3-1〉 서울시 50+전후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률 파악(2019.4월 기준) ...	35
〈표 3-2〉 권역별 표본오차	36
〈표 3-3〉 자치구/성별/연령별 퇴직률 산정	37
〈표 3-4〉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 모집단 추정	38
〈표 3-5〉 표본배분현황(구/성/연령별 표본 할당)	40
〈표 3-6〉 설문조사표 내용(요약)	42
〈표 3-7〉 일자리 변동 기준	43
〈표 3-8〉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5
〈표 4-1〉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퇴직 후의 일과 활동 개수	50
〈표 4-2〉 50+세대의 일자리 종사상 지위표(전체)	52
〈표 4-3〉 50+세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종사상 지위표	53
〈표 4-4〉 50+세대 자영업자의 일자리 종사상 지위표	54
〈표 4-5〉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종사상 지위	55

〈표 4-6〉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56
〈표 4-7〉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자영업자 종사상 지위	57
〈표 4-8〉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일자리 이력(전체) ·	67
〈표 4-9〉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일자리 이력(남성)	68
〈표 4-10〉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일자리 이력(여성)	69
〈표 4-11〉 퇴직 후 활동의 월 평균 소득 만족도	74
〈표 4-12〉 50+세대의 퇴직 후 활동(요약)	76
〈표 4-13〉 생애 근무 이력	77
〈표 4-14〉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유	79
〈표 4-15〉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준비	81
〈표 4-16〉 퇴직금 수령 여부 및 실 수령액	82
〈표 4-17〉 퇴직금 사용처	84
〈표 4-18〉 현재 일과 활동 상태	85
〈표 4-19〉 현재 일 상태	86
〈표 4-20〉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활동의 소득 도움 정도	87
〈표 4-21〉 50+세대에게 필요한 지원	89
〈표 4-22〉 다른 일에 대한 계획	91
〈표 4-23〉 주된 활동 이유	92
〈표 4-24〉 주된 활동 경로-1+2순위	93
〈표 4-25〉 활동 만족도	95
〈표 4-26〉 연평균 가구소득 비교	97
〈표 4-27〉 가구소득	97
〈표 4-28〉 유형별 가구소득 구성비	98
〈표 4-29〉 유형별 가구소득	99
〈표 4-30〉 소득의 충분성(퇴직 전)	101

〈표 4-31〉 소득의 충분성(현재)	101
〈표 4-32〉 가계 소비	102
〈표 4-33〉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퇴직 전)	104
〈표 4-34〉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현재)	105
〈표 4-35〉 한 달 평균 용돈 및 용돈의 충분성	106
〈표 4-36〉 생활비 부담자(퇴직 전)	107
〈표 4-37〉 생활비 부담자(현재)	108
〈표 4-38〉 주된 생활비 마련방법(1순위)	109
〈표 4-39〉 주된 생활비 마련방법(1+2+3순위)	110
〈표 4-40〉 생활비 부족 경험	111
〈표 4-41〉 부족한 생활비 마련 방법 - 1순위	112
〈표 4-42〉 서울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적정 생활비	113
〈표 4-43〉 가구 자산	114
〈표 4-44〉 거주주택 등기상 점유 형태(퇴직 전·현재)	116
〈표 4-45〉 현재 거주주택 마련 방법(퇴직 전)	118
〈표 4-46〉 현재 거주주택 마련 방법(현재)	119
〈표 4-47〉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퇴직 전)	120
〈표 4-48〉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현재)	121
〈표 4-49〉 저축 항목(퇴직 전)	122
〈표 4-50〉 저축 항목(현재)	123
〈표 4-51〉 우선 지원 방안(1순위)	124
〈표 4-52〉 우선 지원 방안(1+2+3순위)	125
〈표 4-53〉 선호 지원 형태	126
〈표 4-54〉 가구 부채	127
〈표 4-55〉 부채가 생긴 주된 이유(퇴직 전)	129
〈표 4-56〉 부채가 생긴 주된 이유(현재)	130
〈표 4-57〉 전반적 생활 만족도(퇴직 전)	131
〈표 4-58〉 전반적 생활 만족도(현재)	132

〈표 4-59〉 자신의 경제상태(퇴직 전)	132
〈표 4-60〉 자신의 경제상태(현재)	133
〈표 4-61〉 자신의 건강상태(퇴직 전)	134
〈표 4-62〉 자신의 건강상태(현재)	135
〈표 4-63〉 주거환경(퇴직 전)	136
〈표 4-64〉 주거환경(현재)	136
〈표 4-65〉 현재 하고 있는 일·활동(퇴직 전)	137
〈표 4-66〉 현재 하고 있는 일·활동(현재)	137
〈표 4-67〉 여가생활(퇴직 전)	138
〈표 4-68〉 여가생활(현재)	139
〈표 4-69〉 배우자와의 관계(퇴직 전)	139
〈표 4-70〉 배우자와의 관계(현재)	140
〈표 4-71〉 자녀와의 관계(퇴직 전)	141
〈표 4-72〉 자녀와의 관계(현재)	141
〈표 4-73〉 사회적 친분 관계(퇴직 전)	142
〈표 4-74〉 사회적 친분 관계(현재)	143
〈표 4-75〉 친인척 관계(퇴직 전)	144
〈표 4-76〉 친인척 관계(현재)	144
〈표 4-77〉 현재 행복도	146
〈표 4-78〉 주관적 사회적 위치	147
〈표 4-79〉 최근 관심사	149
〈표 4-80〉 자아존중감	150
〈표 4-81〉 가족 부양 여부 및 부양가족	151
〈표 4-82〉 주관적 건강 상태	152
〈표 4-83〉 노후 건강에 중요한 요인	153
〈표 4-84〉 노후 시작 연령	154
〈표 4-85〉 노후 시작 연령 이유	155
〈표 4-86〉 일과 활동 희망 연령	156

〈표 4-87〉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157
〈표 4-88〉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치 못한 이유	159
〈표 4-89〉 노후대책 마련 주요 역할자 - 1+2+3순위	160
〈표 4-90〉 노후자금 마련 경로 - 1+2+3순위	161
〈표 4-91〉 노후 주거지의 조건 - 1+2순위	162
〈표 4-92〉 세대별 생애 주된 일자리 이력(요약)	164
〈표 4-93〉 세대별 현재 일자리 이력(요약)	165
〈표 4-94〉 세대별 활동 이력(요약)	166
〈표 4-95〉 현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 수준	167
〈표 4-96〉 세대별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삶의 질	168

그림 목 차

[그림 2-1] 점진적 은퇴 유형	9
[그림 2-2] 본 연구에서의 일과 활동의 범위	13
[그림 2-3] 50+세대 인구 비율 추이	29
[그림 2-4]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50~64세 비율(2018년 기준)	30
[그림 3-1] 모집단 파악 조사 진행 단계	35
[그림 4-1] 50+ 세대의 일자리 이동 경로(전체)	52
[그림 4-2] 50+ 세대의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경로	53
[그림 4-3] 50+세대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동 경로	54
[그림 4-4]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일자리 이동 경로(전체)	56
[그림 4-5]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임금근로자의 이동 경로	57
[그림 4-6]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자영업자의 이동 경로	58
[그림 4-7]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이력(남성)	59
[그림 4-8]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이력(여성)	59
[그림 4-9]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 이력(남성)	60
[그림 4-10]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 이력(여성)	61
[그림 4-11]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남성	62
[그림 4-12]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여성	62
[그림 4-13] 일자리별 산업	63
[그림 4-14] 일자리별 직위	64

[그림 4-15] 일자리별 직업	65
[그림 4-16] 일자리별 근무형태	65
[그림 4-17] 일자리별 고용형태	66
[그림 4-18] 일자리별 근무시간 형태	67
[그림 4-19]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월평균 소득 변화	71
[그림 4-20] 일자리별 소득 만족도	72
[그림 4-21]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소득만족도 ..	72
[그림 4-22] 일자리별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경력 연관성	73
[그림 4-23] 퇴직 후 활동의 산업	74
[그림 4-24] 퇴직 후 활동의 직업	74
[그림 4-25] 퇴직 후 활동의 근무형태	74
[그림 4-26] 퇴직 후 활동의 근무시간 형태	75
[그림 4-27]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경력 연관성	76
[그림 4-28] 바로 직전 일 또는 활동과의 경력 연관성	77
[그림 4-29]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유	79
[그림 4-30]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준비 - 1+2+3순위	81
[그림 4-31] 퇴직금 수령 여부 및 실 수령액	83
[그림 4-32] 퇴직금 사용처	84
[그림 4-33] 현재 일과 활동 상태	86
[그림 4-34] 현재 일 상태	87
[그림 4-35]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활동의 소득 도움 정도	88
[그림 4-36] 50+ 세대에게 필요한 지원 - 1+2+3순위	90
[그림 4-37] 다른 일에 대한 계획	91
[그림 4-38] 주된 활동 이유-1+2순위	93
[그림 4-39] 주된 활동 경로-1+2순위	94
[그림 4-40] 활동 만족도	95
[그림 4-41] 가구소득	97
[그림 4-42] 유형별 가구소득	99

[그림 4-43]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소득 변화	101
[그림 4-44] 소득의 충분성	101
[그림 4-45] 가계 소비	103
[그림 4-46]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소비 변화	104
[그림 4-47]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지출 비중 변화	105
[그림 4-48] 한 달 평균 용돈 및 용돈의 충분성	107
[그림 4-49] 생활비 부담자 - 1+2+3순위	108
[그림 4-50]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	110
[그림 4-51] 생활비 부족 경험 및 마련방법	112
[그림 4-52] 서울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적정 생활비	114
[그림 4-53] 가구 자산	115
[그림 4-54]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자산 변화	116
[그림 4-55] 거주주택 등기상 점유 형태	117
[그림 4-56] 거주주택 시가 변화	118
[그림 4-57] 현재 거주주택 마련 방법 - 1+2순위	119
[그림 4-58]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 - 1+2+3순위	121
[그림 4-59] 저축 항목	123
[그림 4-60] 우선 지원 방안	125
[그림 4-61] 선호 지원 형태	127
[그림 4-62] 가구 부채	128
[그림 4-63]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부채 변화	129
[그림 4-64] 부채가 생긴 주된 이유	130
[그림 4-65] 현재 행복도	146
[그림 4-66] 주관적 사회적 위치	148
[그림 4-67] 최근 관심사 - 1+2순위	149
[그림 4-68] 가족 부양 여부 및 부양가족	152
[그림 4-69] 주관적 건강 상태	153
[그림 4-70] 노후 건강에 중요한 요인	154

[그림 4-71] 노후 시작 연령 이유	156
[그림 4-72] 일과 활동 희망 연령	157
[그림 4-73]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158
[그림 4-74]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치 못한 이유	159
[그림 4-75] 노후대책 마련 주요 역할자 - 1+2+3순위	161
[그림 4-76] 노후자금 마련 경로 - 1+2+3순위	162
[그림 4-77] 노후 주거지의 조건	163
[그림 4-78] 현재 행복도	170
[그림 4-79] 최근 관심사 - 1순위	170
[그림 4-80] 일 및 활동 희망 연령	171
[그림 4-81] 노후자금 마련 경로 - 1순위	172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0+세대는 은퇴전환기에 위치한 세대로서, 노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충분한 사회생활의 역량이 있음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세대임.
 - 평균기대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50+세대는 기존 65세 이상 노년층에 비해 30년 이상의 여생을 살게 되었지만, 이들은 노후준비에 있어 경제적 및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50+세대가 어떻게 노년기를 보낼지에 대한 준비 없이 노년기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50+세대의 개인적 차원만이 아닌 국가적·제도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 따라서 은퇴전환기에 놓여있는 50+세대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성공적 노후를 지원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50+세대의 경제활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재 노동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 노동시장 이력에 대한 정보 역시 중요함.
-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데이터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50+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부족한 실정
 - 대부분의 자료들이 전국 단위로 접근하고 있어 서울시의 정책수립에 직접 이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서울시 50+세대의 직업이력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하여 생산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50+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구축하고, 50+세대의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등을 분석함으로써,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50+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제2절 연구 진행 절차

〈표 1-1〉 연구 진행 절차

연구 진행	내 용		연구 방법	추진 일정 (2019년)
연구 설계	연구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설정 • 연구범위 및 방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연구진 회의 	1월
	조사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설계의 적절성 검토 • 모집단, 표본추출방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회의 	3~4월
설문조사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자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정리 • 선행조사표, 검토·정리 • 직업이력, 소득과 소비, 삶의 질 지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공공기관의 30여개 데이터 검토 및 정리 • 50+당사자 대상 설문조사표 파일럿 및 의견수렴 회의 •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과 의견 수렴 회의 	2~6월
설문조사	조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 파악: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여부 • 표본설계: 성별, 연령, 지역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업체 선정 - 일반경쟁입찰(㈜서던포스트) • 서울시에 거주하는 50+전후세대(45~69세)대상 설문조사 실시 • 내부연구진 실시인력 교육, 실시현장 모니터링 	7~8월
	조사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업체 실사 진행 • 실사 모니터링, 에디팅 		
데이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처리 및 가구데이터 구축 • CPI(Consumer Price index) 반영한 생성변수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0가구 자료 입력 - 50+세대: 806가구 • 퇴직 전·후 화폐가치 적용 (2015년=100) 	9월
조사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50+세대의 퇴직 전·후 일·활동, 소득과 소비, 삶의 질과 노후준비 실태분석 • 서울시 2차 베이비부부세대, 50+세대, 노인세대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분석(STATA 프로그램 활용) 	10월
50+세대 특성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50+세대 특성 도출 - 일·활동, 소득·소비·자산·부채,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10~11월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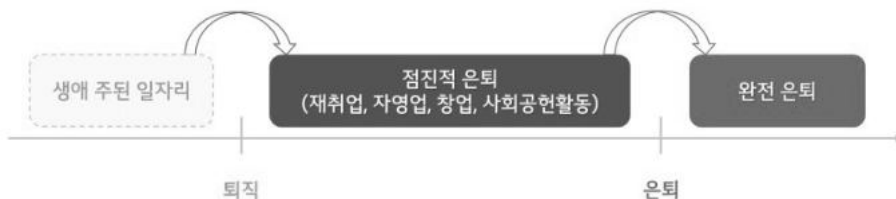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고령자의 은퇴와 생애 주된 일자리

1. 중고령자의 은퇴 유형

- 중고령자들의 퇴직은 노동-여가 선택 이론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 모형과 근로 및 소비활동에 대한 생애주기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 2010).
- 경제학적 모형에서 퇴직은 주된 일자리에서 완전히 퇴직(은퇴)하여 비경제 활동 상태로 들어가는 방식인 전통적 은퇴 분석에 초점을 두는 반면, 생애주기 모형에서 퇴직은 주된 일자리 또는 다른 일자리에서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자영업, 창업 등을 통해 은퇴를 지연하는 점진적 은퇴(gradual retirement) 분석에 초점을 둠(장지연, 2003; 방하남, 신인철, 2011).
- 경제학적 모형에서는 취업에서 퇴직(은퇴)으로 이동이 하나의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event)으로 가정하는 반면, 생애주기 모형에서는 점진적 과정(process)으로 가정함. 즉 완전취업과 완전은퇴 사이 부분은퇴(Partial retirement) 혹은 부분취업의 단계가 포함된 것임(Brueckner & Mater, 2005; OECD, 2000).
- 이때, 부분은퇴는 근로시간이나 임금수준이 감소됨과 동시에 자영업으로 이동하거나 또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함(Gustman & Steinmeier, 1986; Scott, 2004). 부분은퇴 개념이 단계적 은퇴(Phased retirement) 대신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단계적 은퇴(Phased retirement)는 대체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근로와 고용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함(Chen & Scott, 2003).

- 그 외로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시간제 은퇴임. 시간제 은퇴의 경우 미국을 예로 들면, 주당 근로시간이 34시간 미만이거나, 연평균 1,600시간 미만이며 낮은 임금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일자리가 바뀌어야하는 것은 아님(Quinn, 1999).
- 정리하면, 생애주기 모형에서의 점진적 은퇴(부분 은퇴)와 경제학적 모형에서의 전통적 은퇴, 즉 완전은퇴가 구분되는 점은 제2의, 제3의 일자리를 거쳐서 은퇴한다는 것임.
 - 생애주기모형에서 다루는 제2의, 제3의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음(Cahill et al., 2013; Shultz, 2003).
- 국내연구에서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비경제활동 상태로 들어가는 전통적 은퇴 유형보다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이전 직장과는 다른 일자리를 거쳐 점진적 은퇴 과정을 밟는 점진적 은퇴 유형에 주목하고 있음.
- 점진적 은퇴란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일자리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기존 일자리보다 급여나 근로시간이 적은 일자리를 거치며 서서히 은퇴 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함(신동균, 2009; 심현정, 정나라, 2019).
- 본 연구의 50+세대 일자리 이동분석에서도 점진적 은퇴 유형으로 접근함.
 - 퇴직이란, 일반적으로 고용상태의 어떤 직위에서 물러나 그 직위에 관련된 역할 수행을 중단하게 된 현상을 의미하므로 중고령자 재취업은 ‘은퇴’의 개념보다 ‘퇴직’의 개념이 적절할 것임(김미혜, 이현주, 서미경, 2008).
 - 즉, ‘퇴직’은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 또는 조기퇴직으로 인해 나오는 것을 의미하며, ‘은퇴’는 소득활동을 접고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것을 지칭함.



[그림 2-1] 점진적 은퇴 유형

2. 생애 주된 일자리

- 생애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다르며 고정된 개념이 아닌 가변적인 개념으로 기준을 제시함.
 - 신현구(2008)는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생애 주된 일자리로 정의함. 이후 근로 경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시점까지는 가장 오랫동안 일했다는 점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주된 일자리로 본 것임.
 - 황희숙, 김윤재(2011)는 주된 일자리(major job)란 생계를 위해 오랜 기간 고용되어 몸담고 있는 직장이거나 스스로 꾸리고 있는 사업체라고 정의함.
 - 현우영(2016)은 주된 일자리(career employment)를 가장 중요한 일자리라는 개념으로서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로 정의했고, 이주영(2018)은 생애 주된 일자리를 노동자 중심의 주관적 개념으로서, 자신의 인적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하도록 한 생애 가장 중요한 일자리로 정의함.
- 일반적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는 근속기간과 전일제 근무여부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정의
- 기존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고령화패널 조사에서는 가장 주된 일자리를 가장 오래 일한 또는 일하는 있는 직업으로 정의함.
 -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통상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일자리로 정의하되 두 가지 일자리에 동일한 시간을 투입하는 경우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정의함.
 - 이러한 정의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도 동일하며, 가장 주된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라고 함.

〈표 2-1〉 생애 주된 일자리의 정의

연구 기관 (연구자)	정의
신현구(2008)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황희숙, 김윤재(2011)	생계를 위해 오랜 기간 고용되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스스로 꾸리고 있는 사업체
현우영(2016)	가장 중요한 일자리,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
이주영(2018)	자신의 인적 가치를 가장 잘 발현하도록 한 생애 가장 중요한 일자리
조달호, 최봉(2015)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직장 혹은 가장 소득이 높았던 일자리
미래에셋은퇴연구소(2019)	10년 이상 근로 후 50세 이후에 가장 먼저 퇴직했던 직장
한국고용정보원	가장 오래 일한 또는 일하는 있는 직업
국민연금연구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일자리, 두 가지 일자리에 동일한 시간을 투입하는 경우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
한국노동연구원	가장 중요한 일자리,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일자리로 정의하되 두 가지 일자리에 동일한 시간을 투입하는 경우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

- 생애 주된 일자리를 정의함에 있어 근속기간(예: 10년 이상)과 전일제 근무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임금근로자(상용직)는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지만, 일자리 변동이 잦았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50+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일자리들은 고려의 대상이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5세 이후 가진 일자리 중에서 근속년수가 가장 긴 일자리 혹은 (근속년수가 같다면) 소득이 더 많았던 일자리’ 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정의함.

제2절 50+세대의 일과 활동

-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위해 강조된 중고령자의 사회참여를 광범위하게 접근하면 취업활동, 단체활동, 지역사회조직활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의미(강소랑 외, 2018)
- 사회활동을 유형으로 구분하면 공식적 사회활동과 비공식적 사회활동 혹은 경제적 활동과 비경제적 활동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경제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로 분류하기도 함(Saunders et al., 2003; 지은정 외, 2016 재인용).
- 본 연구도 50+세대의 사회참여활동을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으로 구분함.
- 50+세대의 사회참여활동은 청년기 또는 노년기와 다른 활동의 의미가 필요하며, 본 연구의 조사에 ‘일과 활동’이라는 한 축을 이루고 있음.
 - 일·활동은 광의의 개념으로 취업활동, 구직활동, 단체활동, 지역사회활동, 봉사활동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본 연구의 조사영역 기준을 위해 ‘일’은 경제적 활동, ‘활동’은 사회적 활동으로 구분함.
- ‘일’로 대표되는 경제적 활동은 시장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취업활동, 구직활동 등을 포함.
 - 본 연구에서 ‘일’에 대한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 있는 고용주,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창업자(기술창업, 혁신창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등으로 구분됨.
- ‘활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활동은 50+세대들이 지역사회에서 집단활동을 하는 것으로 학습활동,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을 포함. 또한, 공공일자리사업 활동의 경우 소정의 유급활동으로서 일각에서는 사회적 활동의 개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의 지원에 의해서 활동의 내용이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을 확보하는 경제적 활동보다는 사회적 활동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본 연구에서 ‘활동’은 동호회, 커뮤니티, 봉사활동, 재능기부활동, 공공일자리사업 활동(보람일자리사업, 사회공헌일자리사업, 뉴딜일자리사업 등) 등으로 측정함. 다만, 단순 여가 및 향유를 위한 활동은 제외함.
- 당장에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취업은 아니더라도 50+세대들이 사회적

활동으로 그들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고 자기효능감을 유지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주수현 외, 2016).

- 기존의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가진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본 고에서의 『일과 활동』범위를 제시하면 [그림 2-2]와 같음1).

-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50+인턴십, 취·창업 파일럿 등은 활동에 속하기보다는 활동(사회적 활동)과 일(경제적 활동)의 중간영역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2-2] 본 연구에서의 일과 활동의 범위

1) 기존연구들(강소량 외, 2011; 지은정 외, 2016)에서도 경제적 활동은 취업자/미취업자로 측정하고, 사회적 활동은 평생교육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커뮤니티 등으로 측정하고 있음.

제3절 선행연구 및 선행조사 검토

1. 중고령자의 퇴직 및 직업이력에 관한 연구

- 중고령자의 퇴직과 관련된 연구는 고용상태와 복지상태 등을 고려하여 퇴직 과정 또는 경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거나, 더 나아가 유형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석상훈(2010)은 은퇴경로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은퇴 후 소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통적인 완전 은퇴의 경향과 함께 가교일자리를 통한 점진적 은퇴도 주된 은퇴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음. 또한, 은퇴 후 소득 수준은 가교일자리를 통해 은퇴하는 경우보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 또한 다양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 은퇴과정을 5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연구(박경하, 2011)도 존재함.
 - 홍백의, 김혜연(2010)은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45세 이상의 은퇴한 남성의 퇴직 경로를 분석하고 8가지 퇴직유형을 도출함.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정규퇴직형의 경제적 상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지속자영자형, 장기지속근로자형 등 정규퇴직시점 이후까지 근로를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은퇴 유형 분석을 하지 않고 기존의 개념을 토대로 은퇴유형을 ‘완전은퇴’, ‘부분은퇴’, ‘직업이동성’, ‘은퇴하지 않음’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을 결정하는 주요한 예측 요인을 확인한 연구(서여주, 2015)가 있음.
 - 예측 요인은 개인적 특성, 사회 네트워크, 개인과 가족관계, 사회적 지원이었고, 이 중 일과 관련된 경험으로 ‘일자리의 주관적 기대감’, ‘일자리의 전반적 만족도’, ‘업무 스트레스’가 완전 은퇴를 결정하는 가장 밀접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남.
 - 부분은퇴와 직업이동성은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2년 후 일을 줄일 것인지 또는 다른 직무를 바꾸어서라도 일을 더 할 것인지를 나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고령자의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
- 요인은 주로 성별, 연령, 학력 등의 개인적 속성과 이전에 종사한 일자리의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근무 기간 등의 경력관련 변수나 직업훈련경험 등이 고려되었고, 임금 및 사업 소득,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등의 경제 및 가구변수도 다루어짐.

- 대체로 개인적 속성은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이 여성보다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았고(황희숙, 김운재, 2011; 이주영, 2018),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 재취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황희숙 외, 2011).
 - 재취업 당시 부채나 자산이 많을수록 비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하는 속도가 높았고, '주된 일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여성', '고학력자'는 주된 일자리보다 동등 또는 상승 직능지위로 빨리 재취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이주영, 2018).
 - 그 외 중고령자 재취업자의 고용 안정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고졸자, 300~1,000 인 규모 사업체 종사자들에게서 안정성이 확인됨(강순희, 2016).
- 한편 직업이력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 주된 일자리 및 일자리 특성을 분석한 연구(신현구, 2008; 방하남, 신인철, 2011; 임정연, 이영민, 2016)가 있음.
- 고령화연구패널 직업력 조사를 활용하여 중고령자 생애 주요 일자리 특성을 분석한 신현구(2008)는 우리나라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전체 근로기간은 평균 30년으로 나타났고, 첫 일자리가 상시 임금근로였던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도 상시 임금근로인 경우는 64%, 자영업으로 일을 시작한 후 생애 주된 일자리 역시 자영업인 경우가 73%로 나타나 과거 자영업으로 일을 시작한 경우 생애기간 동안 주된 일자리로 자영업에서 일한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방하남, 신인철(2011)의 연구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과 퇴직 후 재취업의 과정을 연계하여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동학을 분석함.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확률 분석결과, 과거 주된 일자리에서의 임금이나 소득수준 등 시장적 유인요인보다는 가구 내 경제적 필요를 나타내는 가구부채가 강한 유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직업력 자료를 활용한 임정연, 이영민(2016)의 연구결과, 베이비부머의 남성은 운전관련 종사자, 사무 관련 종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여성은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도소매 판매 종사자,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가 많아 성별직종분리 현상이 뚜렷함.

〈표 2-2〉 중고령자의 퇴직 및 직업이력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내용	
임정연, 이영민 (2016)	목 적	베이비부머의 직업이동 패턴과 유형의 특징을 탐색
	분석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1~17년도)와 45개 표준 직업 중분류 코드 활용
	분석방법	순차분석방법(Sequence Analysis)
	활용변수	직업 및 산업 오픈코드
	분석결과	직업이동 패턴은 이전 직장과 동일직업으로의 이동비율이 높아, 경력을 반영한 직업이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방하남, 신인철 (2011)	목 적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과 퇴직후 재취업의 과정을 연계하여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동학을 분석
	분석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9차 자료
	분석방법	생존분석
	활용변수	인적특성(성별, 교육수준, 출생시기), 일자리특성(취업시기,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사업체규모, 평균임금, 사업장정년여부, 퇴직여부)
	분석결과	중고령자들은 생애주된일자리 퇴직시점이 빨라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여러 경로와 형태로 재취업을 하고, 대부분 영세자영업 및 근로조건이 악화된 일자리로 취업함
석상훈 (2010)	목 적	우리나라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발견되는 다양한 은퇴경로를 유형화, 유형별 은퇴 후 소득 수준의 차이 분석
	분석자료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의 직업이력 자료와 3차년도 개인자료(소득정보:연금소득, 이전소득, 자산소득) 활용
	분석방법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통한 분석-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알고리즘 활용
	활용변수	인구학적 정보(성별, 나이, 최종학력, 소득), 주된 일자리 특성(직업, 종사상 지위, 근속기간, 퇴직 시기, 퇴직 사유), 은퇴경과기간: 은퇴 이후 현 시점의 소요 기간(년)
	분석결과	은퇴 후 소득 수준은 가교 일자리를 통해 은퇴하는 경우보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높으며, 이들 중에서는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집단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박경하 (2011)	목 적	고용상태와 복지상태의 복합적인 사건이 교차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고령화 은퇴 과정의 특성을 유형화, 유형별 특성 분석
	분석자료	한국노동패널 제2~6차년도 자료
	분석방법	사건매열분석 방법-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활용
	활용변수	일반적 특성, 가구형태, 미혼자녀수, 배우자 유무, 주거형태, 경제활동상태, 복지상태
	분석결과	주변적경제활동형, 사적이전의존형, 재진입제한형, 안정적퇴장형, 퇴장후재진입형 5개의 유형 도출

연구자	연구내용	
홍백의, 김혜연 (2010)	목적	45세 이상 은퇴근로자의 퇴직유형을 밝혀내고 각 퇴직유형별 특징 분석
	분석자료	고령화연구패널 자료
	분석방법	집단중심추세모형
	활용변수	일반적 특성, 노동시장 특성
	분석결과	① 노동시장이탈형, ② 조기퇴직자형 I, ③ 조기퇴직자형 II, ④ 정규퇴직자형, ⑤정규퇴직근로자형, ⑥지속자형, ⑦지속근로자형, 그리고 ⑧ 장기지속근로자형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서여주 (2018)	목적	한국 고령자의 은퇴유형(완전은퇴, 부분은퇴, 직업이동성, 은퇴하지 않음)별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규칙 도출
	분석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집한 고령화연구패널 자료
	분석방법	의사결정분석 나무기법
	활용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 개인과 가족 관련 변수, 일자리 관련 변수, 사회적 지원 관련 변수, 재무적 관련 변수
	분석결과	일과 관련된 경험으로 일자리의 주관적대감, 일자리의 전반적 만족도, 업무스트레스가 완전은퇴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
황희숙, 김윤재 (2011)	목적	노인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노인의 재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	생애 기간 동안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202명-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간 한국노동패널의 자료 활용
	분석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
	활용변수	인적자본특성(성별, 학력, 직업훈련경험), 가구관련특성, 노동시장특성, 노인의 재취업 여부
	분석결과	주된 일자리 종사상지위가 비정규직인 경우에 비해 정규직인 경우에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았음
이주영 (2018)	목적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첫 재취업 동학
	분석자료	노동패널 제1~19차 자료
	분석방법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
	활용변수	주된 일자리 재직 기간, 인적자원 변수, 노동(직업)변수, 가구경제, 퇴직 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직능지위
	분석결과	개인적 속성은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강순희 (2016)	목적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재취업한 일자리 만족도 및 고용 안정성 분석
	분석자료	1차년도(2006년도)의 은퇴자를 중심으로 2차년도(2008년도)와 3차년도(2010년도)의 재취업 관련 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축한 데이터
	분석방법	로지스 회귀모형
	활용변수	은퇴자 특성, 은퇴전 업종, 은퇴전 직종, 은퇴전 종사상지위, 은퇴전 사업장규모, 은퇴 전 근속기간
	분석결과	중고령자 재취업자의 고용 안정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안정하다고 느끼고, 고졸자, 300~1,000인 규모 사업체 종사자들에게서만 안정성이 확인됨

2. 중고령자의 소득과 소비, 자산에 관한 연구

- 중고령자의 경제적 실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은퇴를 기점으로 전과 후의 상태를 파악하였음(김은영, 2014; 백은영, 2017; 최은영 외, 2018).
 - 생애주기 모형에 근거하여, 은퇴로 인한 소득상실에 따른 경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음.
-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의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고 은퇴를 하기 보다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퇴직 이후 가교일자리 및 다양한 일·활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것임(최옥금, 2011).
- 이에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경제적 실태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기존연구들을 통해 관련 실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중고령자의 퇴직 전·후의 경제적 실태를 파악한 조달호(2015)의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소득, 소비, 자산, 부채의 현황 및 퇴직 전·후의 변화수준을 분석하였음.
 - 즉,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가계수지 현황을 파악하였고 경제적 실태를 서울시와 전국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각각의 비중을 조사하였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자산의 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적고 노후자금 마련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노후생활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음.
- 정경희 외(2010)의 연구에서는 40대 이상 베이비부머 중 퇴직 경험이 있는 대상이 없는 대상보다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애 주된 일자리의 퇴직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변화는 특히 자녀와 부모를 이중으로 부양해야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현상을 발생시켜 가계수지의 적자를 만들게 하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임.
 -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적정 소득을 위한 맞춤형의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사회공헌 활동, 노후설계 교육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음.
- 남상호, 권순현(2008)의 연구는 중위자산의 50%를 상대적 자산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중고령자의 자산빈곤 현황 및 자산불평등 실태를 파악하였음.

-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사상 지위별로 살펴볼 때 중고령자 중 미취업자 집단이 자산불평등도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주된 일자리의 퇴직한 대상 및 은퇴를 맞이한 중고령가구의 자산빈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 시점이 가까운 중고령가구를 중심으로 자산형성 지원의 방안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강소랑, 최은영(2016)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 및 창업 등을 통한 가교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분석하고자 베이비붐 세대를 기준으로 세대별 특성에 근거하여 가계자산 및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역모기지 제도 활용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특히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음.
- 이현정(2017)의 연구는 예비은퇴기가 다가온 중고령자들을 세분화하여 소득, 자산,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음.
- 핵심변수인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중고령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소비, 주택자산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살펴보았음.
 - 분석결과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은퇴가 머지않은 중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및 주택자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음.
-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중고령자의 자산 비중이 일반적으로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치중되고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상 중고령자의 경우 거주주택의 부동산자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융자산 및 노후자금은 현저히 낮다는 것임(윤정득, 이현정, 2014; 최장훈, 이태열, 김미화, 2017).
- 강석훈(2009)의 연구는 중고령자의 자산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증가하다가 고령층이 되면 감소하는 경향을 살펴 보았음.

- 즉, 선행연구들을 통해 중고령자의 자산 변화를 볼 때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의 중고령자의 경우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 비중이 높지만 가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낮을 가능성이 높고 부채는 줄이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임.
- 이 밖에 중고령자의 소득과 소비, 자산에 관한 연구들은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상태를 세분화하여 가구안정성, 삶의 질, 사회활동,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소득 및 자산의 효과를 분석하였음(심영, 2010; 송명규, 2017; 신용석, 원도연, 노재현, 2017).
 - 중고령가구의 소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소득효과와 자산효과를 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음. 더불어 선행연구들은 자산을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소비에 미치는 주요 자산을 파악하였음(홍중구, 손재영, 2016).
 - 소득효과는 부동산 등의 소득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자산효과는 소득수준을 통제된 상태에서 보유자산의 상승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영수, 2009).
- 추가적으로 자산의 복지효과를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중고령자의 경제적 실태 및 삶의 질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음(조원희, 한창근, 2017; Han & Hong, 2011).
 - 자산이 중고령자의 삶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관점에 의하면 가구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위험을 감수할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임.
 - 또한 정신건강, 삶의 질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활동, 시민참여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김자영, 한창근, 2015).

〈표 2-3〉 중고령자의 소득과 소비, 자산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내용	
남상호, 권순현 (2008)	목적	자산불평등을 요인별로 분해하고, 자산빈곤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임.
	분석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 1차
	분석방법	지니계수, 엔트로피 지수, histogram, Lorenz 곡선, Pen's diagram, 로짓모형 등
	활용변수	가구총자산, 가구총부채, 가구총소득
	분석결과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자	연구내용	
최옥금 (2011)	목 적	생애 주된 일자리와 가교일자리 개념을 통해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함.
	분석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 1차-3차
	분석방법	조건부 이행확률, 다항로지스틱분석
	활용변수	가구순자산, 공적·사적이전소득,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분석결과	중고령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가교일지리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에서 점차 '점진적 은퇴'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리고 생애 주된 일자리와 가교일지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교일지리의 질이 생애 주된 일자리와 비교할 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윤정득, 이현정 (2014)	목 적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함.
	분석자료	한국노동패널 13차
	분석방법	다중회귀분석
	활용변수	소비 지출비, 가구총자산 및 순자산, 자산대비 부채비율, 자산유형(금융, 부동산, 기타)
	분석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비해 총자산 규모가 큰 베이비부머는 총자산이 증가할수록 소비탄력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산기반이 취약한 고령자는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조달호, 최봉 (2015)	목 적	서울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특성을 살펴보면서 서울의 인구구조, 취업동향, 산업별 고용추세 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분석자료	설문조사
	분석방법	기술통계
	활용변수	가구총자산, 가구총부채, 현재 가구소득, 퇴직전 대비 현재 가구소득 등
	분석결과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고 부채는 적지만 노후준비가 대다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퇴직 이후 자산이 줄어들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가교일자리 필요성을 제시함.
강소량, 최은영 (2016)	목 적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수단들의 분석정보에 기반하여 그들의 노후안정과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마련하고자 함.
	분석자료	한국노동패널 17차
	분석방법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한 OLS
	활용변수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삶의 만족도 등
	분석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서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고,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서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근로소득, 부동산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연구자	연구내용	
홍중구, 손재영 (2016)	목적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중고령가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고 가구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요소, 자산요소, 인구학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분석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분석방법	다중회귀분석
	활용변수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소비액 등
	분석결과	근로소득이 가계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대에 따라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음. 그리고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보다 가계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중고령자의 퇴직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있어 중요한 사건으로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끼침(Kim & Feldman, 2000; Ulrich & Pamela, 2005; Wang, 2007; Dingemans & Henkens, 2014; Zhan et al., 2015; 지은정, 2017).
 - 이론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을 중고령자의 퇴직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역할이론(Role theory), 계속 이론(Continuity theory), 생애주기 모형의 3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음(Zhan et al., 2015).
- 역할 이론에 따르면 중고령자는 퇴직 전·후로 사회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변화를 겪게 됨. 이 때 바뀐 역할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봄.
 - Zhan et al.(2015)는 베이징에서 주된일자리에서 은퇴한 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고령자가 사회참여나 사회공헌과 같은 동기를 지닐수록 가교 일자리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힘.
 - 지은정(2017)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가교 일자리의 직종이 유사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며 자신의 경력과 상관없는 가교 일자리를 하게 되면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개인-조직 적합의 관점에서 볼 때 중고령자가 재취업한 가교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유사할수록, 바뀐 역할에 대한 적응 및 업무몰입, 헌신,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임.

- 계속 이론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삶의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봄. 따라서 중고령자의 삶의 질은 퇴직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삶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음.
 - Ulrich와 Pamela(2005)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 가교일자리에 재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근거이론 접근을 통해, 가교 일자리는 일의 즐거움, 삶의 균형,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는 점을 밝힘.
 - Wang(2007)은 퇴직한 중고령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중고령자들의 다양한 은퇴 경로 중 가교일자리에 재취업한 중고령자들의 경우 삶의 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애주기 모형은 중고령자의 퇴직이란 사건을 생애과정 속에서의 변화 과정(transition)과 변화 궤적(trajectories)로 나눠 살펴보는 것이 핵심임(Beehr & Adams, 2003). 이 때, 변화 과정은 근로자에서 퇴직자가 되는 시간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 궤적은 퇴직 이후 퇴직자의 사회공헌활동이나 자기발전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함.
 - Kim & Feldman(2000)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기은퇴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 이후 생애 변화 궤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완전 은퇴한 사람에 비해 가교 일자리에 취업한 중고령자가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함.
 - Dingemans & Henkens(2014)의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주된일자리에서의 은퇴가 비자발적일 경우 재취업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해 가교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논의한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중고령자에게 은퇴 과정에 있어 주된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가교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것은 대체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중고령자의 직업 이력 및 은퇴 과정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중고령자는 점진적 은퇴 과정 속에서 삶의 질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경험을 모두 경험할 수 있음(Dingemans & Henkens, 2014; 한경혜, 손정연, 2012).
 - 한경혜, 손정연(2012)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중고령자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이후 가교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이 결혼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생

애주기에서 중고령기는 자식들이 성장해 독립한 후 배우자와 단둘이 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 만족도의 저하는 삶의 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가교일자리에 재취업한 중고령자의 취직 동기에 따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를 수 있음. Dingemans & Henkens(2014)에 따르면 재취업자의 취직 동기가 '재정적 동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년까지 주된일자리에서 근무한 사람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취직 동기가 '일 자체의 증거움', '사회적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가교일자리에 취업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주된 일자리에서 완전은퇴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중고령자의 퇴직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 직업이력에 해당하는 주된 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의 부분 은퇴 및 완전 은퇴 뿐만 아니라 개인특성, 직업특성, 가구특성을 고려해 유형별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검토한 중고령자의 퇴직 및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4>와 같음.

<표 2-4> 중고령자의 퇴직과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내용	
Kim & Feldman (2000)	목적	은퇴 이후 생애 변화 궤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분석자료	캘리포니아 대학의 조기은퇴 교수(924명)
	분석방법	위계적 회귀분석
	활용변수	주관적 건강인식, 연금액(단위: 월), 배우자 근로 여부, 가교일자리 취업 여부, 봉사 및 취미 활동 여부,
	분석결과	완전 은퇴한 사람에 비해 가교 일자리에 취업한 중고령자가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남
Ulrich & Pamela (2005)	목적	가교일자리 취업이 중고령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
	분석자료	24명의 중고령자(남성 13명, 여성 11명)
	분석방법	근거이론
	활용변수	4개의 개방형 질문 - 1) 은퇴 이유, 2) 주된일자리의 역할, 3) 가교 일자리의 역할, 4) 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직하면서 느낀 경험
	분석결과	가교 일자리는 일의 즐거움, 삶의 균형, 자기효능감을 높여줌
Wang (2007)	목적	가교 일자리가 중고령자의 심리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석자료	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한 중고령자 2000명
	분석방법	성장 혼합 모델링(growth mixture modeling)
	활용변수	심리적 행복, 가교일자리 유급 여부, 은퇴 계획, 배우자 근로 여부, 직업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 상태, 직업 만족도

연구자	연구내용	
	분석결과	중고령자들의 다양한 은퇴 경로 중 가교일자리에 재취업한 중고령자들의 경우 삶의 질 수준이 높게 유지됨
Dingemans & Henkens (2014)	목적	비자발적 은퇴와 가교일자리 재취업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석자료	네덜란드 근로 및 은퇴 패널 데이터(1276명)
	분석방법	다중회귀분석
	활용변수	삶의 만족도, 자발적 은퇴 여부, 가교 일자리, 신체적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직업 만족도
	분석결과	중고령자의 주된 일자리에에서의 은퇴가 비자발적일 경우 재취업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해 가교일 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삶의 질이 떨어짐
Zhan et al. (2015)	목적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동기 유형이 가교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분석자료	베이징에서 주된일자리에서 은퇴한 507명
	분석방법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활용변수	동기 유형, 가교 일자리, 봉사활동 여부, 건강상태, 직업만족도, 주된일자리 직업만족도
	분석결과	중고령자가 사회참여나 사회공헌과 같은 동기를 지닐수록 가교일자리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한경혜, 손정연 (2012)	목적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과정이 남녀간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분석자료	베이비붐 세대 4075명
	분석방법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활용변수	은퇴과정, 소득, 결혼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 자기수용, 성숙감
	분석결과	여성 중고령자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에서 은퇴 이후 가교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이 결혼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지은정 (2017)	목적	개인-조직 적합의 관점에서 생애 주된일자리와 가교 일자리의 연계성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석자료	한국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2975명)
	분석방법	회귀분석
	활용변수	삶의 만족도,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연계, 근로·사업소득, 근로시간, 근로사유, 고용형태
	분석결과	중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가교 일자리의 직종이 유사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며 자신의 경력과 상관없는 가교 일자리를 하게 되면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4. 선행조사 검토

- 앞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 및 기존연구결과를 파악한 후, 실제적인 설문조사 표 개발을 위해 중고령자와 관련된 조사문항 및 방법을 검토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50+세대의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분석된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함.
- 설문조사표 개발을 위해 기존 30여개²⁾의 조사와 데이터를 검토하였고, 본 연구와 가장 비교할만한 조사연구를 <표 2-5>, <표 2-6>에 제시함.

<표 2-5> 선행연구 조사내용(1)

구분	서울시복지실태조사	노후준비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주 관	서울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주기 (개시년도)	'13, '15, '18 실시('13~)	3년 주기('12~)	매년('06~) *3년 주기로 부가조사를 실시
최근자료	2018년 3차년도 자료조사 완료	2016년 2차년도 자료조사 완료	2018년 13차년도 자료조사 완료
지역특징	서울	전국	전국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가구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국내 거주 가구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일반사항 • 경제활동: 근로실태, 지출, 소득, 자산과 부채 • 건강과 의료이용: 건강상태, 장애 상태, 의료서비스 이용, 정신건강 • 가족생활, 여가 및 사회활동, 가족 관계, 출산 및 양육, 여가활동, 사회활동 및 관계 • 복지서비스 이용: 기초생활보장, 고용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복지, 청년복지, 중장년세대복지,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1인 가구 • 복지의식 및 욕구: 삶의 질, 정책 방향, 지역 내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특성 • 사회적 관계: 배우자 관계, 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친구이웃 관계, 단체 활동 • 건강한 생활습관: 현재건강 상태, 건강생활실천 • 여가활동: 노후여가생활인식, 현재여가생활 • 소득과 자산: 준비여건 및 인식, 현재 자산상태 • 노후 준비도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상태, 사회보험, 연금 보험, 퇴직연금 가입, 주거, 생활비 등 (가구용) •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 수급, 생활실태 및 만족 및 인식, 사회적 자본, 생활습관 등 (만 15세 이상 가구원용) • 나의 학교생활, 나의 생각과 행동, 우리 부모님은, 나의 친구는, 나와 나의 가족 등 (만 9세 이상 아동용) • 아동, 복지의식, 장애인 (부가조사)

2) 서울시복지실태조사, 베이비붐세대 일자리 수요조사, 서울형 행복지수 시민의식 조사, 서울서베이, 서울시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서울시 성인지 통계, 노후준비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의료패널조사, 재정패널조사, 중장년층 행정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 고령자 고용현황, 지역별 고용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창업기업실태조사 등을 검토함.

〈표 2-6〉 선행연구 조사내용(2)

	한국노동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주 관	한국노동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조 사 주 기 (개시년도)	매년('98~)	격년('05~) *본 조사 실시한 다음 해 부가조사 실시	격년('06~) *본 조사 실시한 다음해는 본 조사 내용 이외 특정 주제로 특별조사 실시
최 근 자 료	2017년 제20차 자료조사 완료	2017년 7차년도 자료조사 완료	2016년 6차 자료조사 완료
지 역 특 징	전국(비농촌지역)	전국	전국(제주 제외)
조 사 대 상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취업자(임금/비임금/미취업자)	만 50세 이상 가구원 가구	4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일반 가구
조 사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기본정보, 가구 특성 관련 소득, 소비, 주거 등 (가구용) • 주된 일자리 특성(임금/비임금), 응답자 공통 (개인용) • 직업이력: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 자리에 대한 정보 • 3차 부가조사: 청년층 • 4차 부가조사: 건강과 은퇴 • 6차 부가조사: 중고령자 • 7차 부가조사: 근로시간과 여가 • 8차 부가조사: 노동조합과 노사관례 • 9차 부가조사: 청년층 • 10차 부가조사: 고용형태 • 11차 부가조사: 교육 • 17차 부가조사: 시간 사용과 삶의 질 • 18차 부가조사: 장년층, 삶의 인식 • 19차 부가조사: 청년층 • 20차 부가조사: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정보, 주거현황, 가구지출, 가구소득, 가구 저축, 가구 자산 및 부채 등 (가구용) • 경제활동상태, 고용형태, 퇴직 급여제도, 정년 및 퇴직, 이직 활동 및 은퇴계획, 구직활동, 은퇴여부 및 은퇴태도, 여가활동, 공적/개인 연금 및 건강보험, 소득, 자산, 부채 등, 돌봄 노동, 건강, 삶의 만족도, 직업 이력 및 연금력 (개인용) • 1차 부가조사: 가계 지출 및 소득현황 • 2차 부가조사: 일자리경력 및 연금가입·수급이력 • 3차 부가조사: 노후준비, 노후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및 기대 • 4차 부가조사: 성공적 노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공적연금,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인지, 노후생활비 • 5차 부가조사: 일상적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특성 • 가족: 자녀, 자녀와의 (비)금전적 지원 현황, 형제·자매, 부모,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수단적 일상생활(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 건강 및 의료: 주관적 건강상태, 주요안성 질환, 시력·청력·저작능력, 건강행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 고용: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취업자 특성, 근로시간, 임금 및 소득, 일자리 특성 및 만족도, 이직의사 및 은퇴계획나이, (구직자) 구직활동, 희망일자리 특성, (은퇴자) 신규 은퇴자 특성, 은퇴생활 만족도, 소일거리 • 소득 및 소비, 자산: 총 소득 및 소득유형별 주요 현황, 가구저축 현황,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기타 자산 및 부채, 상속 및 증여, 가구 총 자산, 가구 총 부채 • 주관적 기대감과 연금: 주관적 기대감, 생활 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 여가활동,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 • 1차 특별조사: 직업력 • 2차 특별조사: 노후생활준비 및 일자리 지원정책 • 3차 특별조사: 고용상태 및 고용 관련 제도 • 4차 특별조사: 생애 일자리 및 노후 생활 • 5차 특별조사: 중장년층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 및 수요

- 여러 선행조사에서 다수 조사된 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특성, 고용, 경제활동 상태, 소득 및 자산이 포함됨.
- 조사대상이 중고령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인 조사는 구축되어 있지만, 50+세대의 직업력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는 한정적임.
- 특히 직업력을 조사하고 있는 데이터에서도 서울시 50+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자리, 활동, 소득 및 자산, 삶의 질의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의 요소들과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문항을 포괄할 수 있는 문항으로 조사표를 구성한 후, 50+세대에 부합하도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문항을 확정하였음.

제4절 50+세대의 인구학적 배경

1. 50+세대 인구변화

- 전국 총인구는 약 5,180만 명으로 2011년 이후 매년 약 10~20만 명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서울시 총 인구는 2011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는 993만 명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짐.
- 서울시 총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50+세대(50~64세)는 2019년 223만 명으로 2011년 이후 서울시 총 인구 대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세대임.
 -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 50~54세는 77만 명, 55~59세는 76만 명, 60~64세는 69만 명으로 55~59세의 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50~54세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60~64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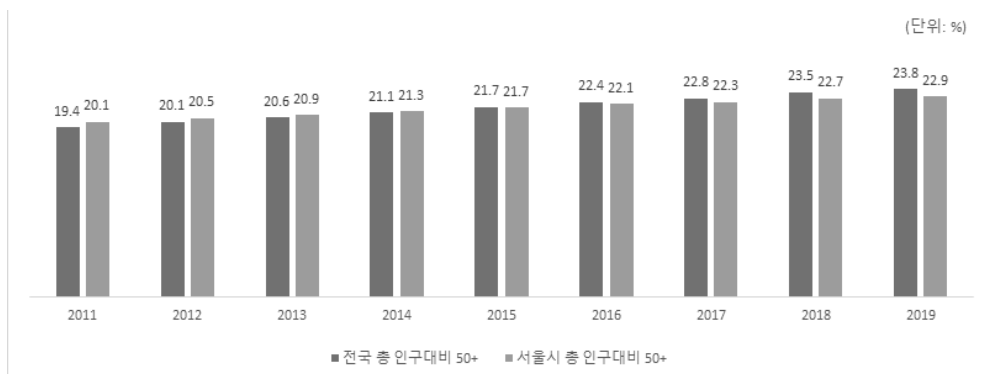
〈표 2-7〉 50+세대 인구변화 추이

(단위: 명)

연도	전국 총인구	서울시 총인구	45~49세	50~64세	50~64세			65~69세
					50~54세	55~59세	60~64세	
2011	50,734,284	10,249,679	822,851	2,058,413	867,807	692,287	498,319	396,019
2012	50,948,272	10,195,318	809,739	2,090,274	862,811	713,525	513,938	401,794
2013	51,141,463	10,143,645	822,093	2,115,143	848,087	745,718	521,338	419,597
2014	51,327,916	10,103,233	832,090	2,147,113	830,977	773,183	542,953	437,267
2015	51,529,338	10,022,181	842,139	2,173,573	802,504	785,829	585,240	452,512
2016	51,696,216	9,930,616	866,421	2,197,351	770,459	799,578	627,314	448,956
2017	51,778,544	9,857,426	869,355	2,200,114	757,665	795,878	646,571	462,481
2018	51,826,059	9,765,623	856,037	2,220,903	766,952	780,002	673,949	468,466
2019	51,849,253	9,740,398	840,237	2,239,266	777,110	769,806	692,350	482,105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재구성. 2019년 10월 기준.

- 전국과 서울시의 총인구 대비 50+세대의 비율은 2011년에 전국 19.4%, 서울시는 20.1%를 차지하였고, 2019년 전국 23.8%, 서울시 22.9%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임.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가 전국보다 50+세대 비율이 높았으나, 2015년에 21.7%로 같아졌고, 2016년부터는 역전이 일어나 전국이 서울시에 비해 50+세대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2-3] 50+세대 인구 비율 추이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2019년 8월 기준.

2. 서울시 자치구별 50+세대 비율

- 50+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금천구, 도봉구, 중랑구로서 2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함.
- 은평구, 성북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구로구, 노원구는 50+세대 비율이 22%로 서울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50+세대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20%대)이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마포구(19.7%)임.



[그림 2-4]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50~64세 비율(2018년 기준)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제 3 장



조사 설계

제3장

조사 설계

제1절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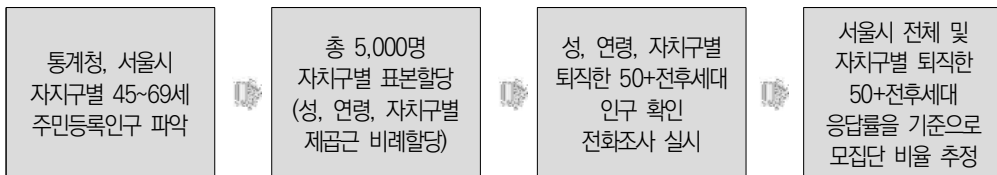
1. 조사대상

- 본 연구는 은퇴전환기에 놓여있는 서울시 50+세대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것으로, 주요 조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임.
- 50+세대는 이전, 이후세대와는 다른 학력, 직업력, 경제력,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음. 이제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50+세대는 이들 세대가 가진 인적·물적 역량 측면에서 이전세대와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노년기 생활방식을 고수해 나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석재은, 이기주, 2010; 강소랑 외, 2016).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세대의 이전세대와 이후세대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전후세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서울시에 거주하는 50+전후세대는 만 45~69세(1950.1.1.~1974.12.31.)를 의미
- 즉, 2차 베이비붐세대(1974~1968년생), 50+세대(1969~1955년생), 노인세대(1954~1950년생)의 특성 및 일과 활동, 소득과 소비, 삶의 질 등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서울시 50+전후세대가 포함된 가구가 기본이며,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50+전후세대라면 함께 조사를 수행함.

-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실태조사 연구들은 횡단면조사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50+세대들의 일자리 이력을 살펴보기 어려움.
- 또한, 서울시 50+세대 전체를 모집단으로 할 경우, 서울시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퇴직 후 일자리 이동 케이스들이 포함될 확률이 낮게 됨.
 -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2017년에 조사한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4%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중’, 15.9%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으나, 현재 재취업함’으로 나타남.
 - 더불어, 서울연구원에서 2018년에 조사한 <서울시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50+세대의 현재 고용상태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중’이 60.4%, ‘퇴직했으나 재취업함’이 21.8%로 나타남3).
-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서울시 50+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자리 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주기 모형 관점(점진적 은퇴 유형)에서 주요 조사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로 삼음.

1) 모집단 파악을 위한 조사 설계

- 2019년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만 45~69세 성인 남녀임.
 -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서는 본 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자료가 없음. 즉, 서울시 자치구별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전후세대의 분포특성 파악이 불가능함.
 - 따라서 [그림 3-1]과 같은 과정을 거쳐 모집단을 파악함.



[그림 3-1] 모집단 파악 조사 진행 단계

3) ‘생애 주된 일자리’에 대한 개념정의는 연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조사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음.

- 통계청, 서울시 자치구별 45~69세 주민등록인구 파악 및 총 5,000명 자치구별 표본 할당, 사전조사 실시
 - 서울시 50+세대 인구비율에 맞춰 자치구별 표본할당을 하되 자치구별로 최소 100명 이상은 조사할 수 있도록 표본할당(제공근 비례배분) 실시
 - 조사예산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표본오차가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정 표본 수 5,000명 산정(서울시 전체 표본오차를 95% 신뢰수준에서 3%미만으로 유지)하여 무작위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의 사전 전화조사를 실시⁴⁾
- 서울시 및 자치구별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한 50+전후세대 모집단 파악
 - 최종 사전조사 결과, 응답자 중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응답자의 성, 연령별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자치구별 모집단 분포 특성을 추정(자치구*성*연령으로 층화 후 층별 퇴직자 비율 산정)하였으며, 이 추정비율을 근거로 본조사 표본설계 실시
- 최종 표본설계 결과, 서울시 5,000명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38\%$, 자치구별 표본오차는 $\pm 10.0\%$ 미만으로 산출됨.

〈표 3-1〉 서울시 50+전후세대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률 파악(2019.4월 기준)

(단위: 명, %)

자치구	서울시 인구	서울시 인구 중 50+전후세대 (45~69세)	구별 모집단 파악 조사 인원	구별 퇴직 인원	구별 퇴직률
	9,766,886	3,561,288	5,000	3,012	60.2
총 로 구	152,495	57,918	131	81	62.2
중 구	125,913	47,652	117	66	56.6
용 산 구	228,940	83,398	154	103	66.8
성 동 구	305,785	109,663	178	104	58.6
광 진 구	354,344	125,555	191	117	61.3
동 대 문 구	346,312	127,114	193	109	56.7
중 량 구	401,546	158,761	213	130	61.1
성 북 구	439,754	161,332	216	126	58.2
강 북 구	316,604	124,961	190	108	56.8
도 봉 구	337,346	134,788	199	112	56.1

4) RDD로 133만개의 무작위 전화번호 생성하였고, 결번·부재·중도포기 등을 제외한 2만 여개 번호를 연락함.

자치구	서울시 인구	서울시 인구 중 50+전후세대 (45~69세)	구별 모집단 파악 조사 인원	구별 퇴직 인원	구별 퇴직률
	9,766,886	3,561,288	5,000	3,012	60.2
노원구	539,884	204,781	244	159	65.2
은평구	484,267	181,410	228	127	55.9
서대문구	311,586	112,761	180	109	60.8
마포구	374,824	124,604	189	118	62.7
양천구	462,126	176,315	224	140	62.7
강서구	596,233	210,774	248	132	53.2
구로구	405,516	150,066	208	122	58.9
금천구	234,173	91,760	163	101	61.9
영등포구	368,874	130,135	196	133	67.7
동작구	399,118	138,514	202	138	68.2
관악구	502,251	164,700	217	147	67.9
서초구	432,336	150,347	206	132	64.0
강남구	542,108	189,746	234	135	57.6
송파구	679,824	242,591	264	127	47.9
강동구	424,727	161,642	215	132	61.6

자료: 통계청-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9.04).

〈표 3-2〉 권역별 표본오차

(단위: 명, %)

권역별	서울시 인구	서울시 인구 중 50+전후세대	구별 모집단 파악 조사 인원	
			사례수	표본오차
	9,766,886	3,561,288	5,000	1.38
서부	795,853	294,171	408	4.88
중부	882,172	313,572	591	4.03
남부	2,968,291	1,062,264	1,458	2.56
동남	2,078,995	744,326	919	3.23
북부	1,633,588	625,862	849	3.36
동부	1,407,987	521,093	775	3.52

자료: 통계청-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9.04).

〈표 3-3〉 자치구/성별/연령별 퇴직률 산정

(단위: %)

성 영 영	별 평 계	구/성/연령별 퇴직률												합계
		남 자						여 자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합	계	54.1	51.1	56.0	65.4	71.3	53.5	58.5	58.2	66.9	73.5	60.2		
중	로 구	29.4	56.3	35.0	55.0	68.4	72.7	62.5	77.8	81.8	91.7	62.2		
중	산 구	80.0	60.0	61.5	42.9	42.9	57.1	50	33.3	57.1	83.3	56.6		
영	산 구	63.6	83.3	55.6	66.7	75.0	80.0	53.8	75.0	50	66.7	66.8		
성	동 구	66.7	60.0	58.3	55.0	45.5	66.7	83.3	36.4	42.9	69.2	58.6		
광	진 구	66.7	43.5	55.0	54.5	74.2	75.0	55.6	75.0	52.9	61.5	61.3		
동	대 문 구	60.0	46.7	35.3	61.5	61.1	77.8	42.9	50.0	56.3	80.0	56.7		
중	랑 구	52.4	57.1	51.4	69.2	64.7	53.8	76.2	56.5	68.4	62.5	61.1		
성	복 구	53.8	57.9	41.7	58.3	50.0	63.6	75.0	36.4	61.1	87.5	58.2		
강	복 구	57.1	57.1	50.0	72.7	81.3	50.0	41.7	20.0	70.0	77.8	56.8		
도	봉 구	40.0	45.5	58.3	57.9	64.7	50.0	50.0	66.7	72.7	55.6	56.1		
노	원 구	54.5	40.0	47.8	84.2	90.0	50.0	71.4	87.5	64.7	73.3	65.2		
은	평 구	40.0	42.9	64.7	69.2	72.2	20.0	80.0	50.0	56.5	73.7	55.9		
서	대 문 구	45.5	50.0	66.7	64.7	84.2	37.5	40.0	70.0	84.6	78.6	60.8		
마	포 구	64.3	50.0	57.1	85.7	92.3	57.1	46.7	50.0	56.3	83.3	62.7		
양	천 구	50.0	44.4	75.0	68.4	75.0	71.4	66.7	54.5	58.3	69.2	62.7		
강	서 구	54.5	55.6	72.7	61.1	65.0	42.9	37.5	27.3	52.9	71.4	53.2		
구	로 구	76.5	26.7	55.0	52.9	89.5	40.0	50.0	54.5	85.7	63.6	58.9		
금	천 구	50.0	52.6	60.0	62.1	60.7	50.0	60.0	70.6	76.5	80.0	61.9		
영	등 표 구	62.5	50.0	58.3	68.4	80.0	83.3	63.6	58.3	70.6	88.2	67.7		
동	작 구	55.6	71.0	47.4	71.4	77.4	66.7	60.0	75.0	85.7	75.9	68.2		
관	악 구	63.6	61.3	65.2	64.3	71.9	58.3	60.0	81.8	85.0	68.0	67.9		
서	초 구	54.5	45.5	66.7	85.7	61.5	54.5	83.3	60.0	60.0	75.0	64.0		
강	남 구	63.6	35.7	60.0	61.5	80.0	37.5	60.0	60.0	60.0	70.0	57.6		
송	파 구	14.3	33.3	35.7	68.2	70.6	25.0	33.3	60.0	87.5	66.7	47.9		
강	동 구	50.0	75.0	62.5	58.3	71.4	33.3	57.1	66.7	70.0	77.8	61.6		

〈표 3-4〉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 모집단 추정

(단위: 명)

성 연	구/성/연령별 퇴직자 추정													합계
	남 자						여 자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합 계	225,856	191,533	211,387	214,332	159,686	223,228	229,338	231,535	241,688	183,703	2,112,286			
종 로 구	1,940	3,553	2,301	3,091	2,525	4,955	4,014	4,983	4,478	3,673	35,512			
중 로 구	4,112	3,100	3,426	2,120	1,412	2,815	2,506	1,746	2,788	2,896	26,920			
영 산 구	6,312	7,524	4,957	5,185	3,716	8,171	4,895	6,975	4,131	3,951	55,817			
성 동 구	8,639	7,294	7,249	5,672	2,966	8,591	10,235	4,466	4,541	5,032	64,683			
광 진 구	9,780	6,026	7,491	6,231	5,412	11,489	8,014	10,815	6,552	5,015	76,825			
동 대 문 구	8,762	6,467	4,869	7,703	5,274	10,718	5,713	7,039	7,405	7,511	71,461			
중 량 구	8,901	9,807	9,422	10,854	6,643	8,852	13,402	10,672	11,066	7,005	96,624			
성 북 구	10,826	10,111	6,904	8,369	4,932	12,910	13,209	6,437	9,734	10,014	93,446			
강 북 구	7,968	7,424	6,651	8,606	6,647	6,859	5,622	2,857	9,191	7,836	69,662			
도 북 구	5,734	6,275	8,463	7,707	5,722	7,535	7,579	10,633	10,479	5,231	75,357			
노 원 구	13,531	8,968	10,023	14,924	10,730	13,618	16,757	19,812	13,035	9,840	131,238			
인 평 구	8,548	8,066	12,170	11,320	8,130	4,395	16,022	10,355	10,533	9,916	99,455			
서 대 문 구	6,041	6,054	7,958	6,613	5,665	5,138	5,154	8,893	9,452	6,314	67,282			
마 포 구	10,536	6,827	7,353	8,888	6,174	9,649	6,595	6,709	6,643	6,989	76,362			
양 천 구	11,063	8,931	14,005	10,372	7,784	16,720	13,529	10,326	9,561	7,483	109,773			
강 서 구	13,232	11,585	16,123	12,140	8,822	10,390	8,473	6,829	12,126	10,917	110,637			
구 로 구	13,208	4,129	8,848	7,592	9,259	6,556	7,926	9,229	13,641	7,290	87,676			
금 천 구	4,958	5,362	6,566	5,515	3,654	4,732	6,067	7,521	7,043	5,098	56,515			
영 등 포 구	9,538	7,123	8,457	8,651	6,878	11,992	8,666	8,398	9,244	8,255	87,200			
동 작 구	8,895	10,033	6,878	8,972	6,827	10,743	9,167	12,023	12,425	8,025	93,989			
관 약 구	12,770	10,590	11,299	9,644	8,042	10,426	10,278	15,122	14,628	8,925	111,723			
서 초 구	11,177	7,432	9,351	10,640	5,342	11,831	13,858	9,220	8,599	7,757	95,206			
강 남 구	16,328	7,656	10,686	9,240	8,709	10,548	12,755	11,218	10,653	9,148	106,941			
송 파 구	4,037	8,563	8,974	15,190	10,836	7,559	9,004	16,661	21,674	10,719	113,217			
강 동 구	9,022	12,633	10,963	9,094	7,586	6,037	9,900	12,598	12,088	8,866	98,767			

2) 표본 추출

○ 다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법

- 1단계: 지역(25개 자치구)별 규모에 따라 집계구 수 배분 검토
- 2단계: 주택유형 특성을 고려한 집계구 배분 실시
- 3단계: 자치구별 배분 수만큼 집계구 랜덤 추출
- 4단계: 선정된 집계구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
- 5단계: 만 45~69세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 대상 면접조사 실시 + 만 45~69세 가구원 조사

○ 표본크기

- 조사의 표본크기는 가용 조사인력 및 예산, 조사 소요시간 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표본오차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오차의 한계가 $\pm 3.2\%p$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 1,000명 이상을 표본크기로 함(최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0\%p$).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전후세대 조사대상자와 동거하는 50+전후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함.
- 또한, 이 연구의 주요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이기 때문에, 표본크기의 80%이상을 50+세대(50~64세)에 할당함.

<표 3-5> 표본배분현황(구/성/연령별 표본 할당)

(단위: 명)

성 연령	구/성/연령별 표본 할당														집계구 합계
	남자							여자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합계	51	115	127	135	48	49	138	134	151	52	1,000	100			
중로구	1	3	2	3	1	2	4	5	5	2	28	3			
중산구	2	3	4	2	1	1	3	2	3	2	23	2			
중동구	2	6	4	4	2	2	4	5	4	1	34	3			
중남구	2	5	5	4	1	2	7	3	3	2	34	3			
광진구	2	4	5	4	2	3	5	7	4	2	38	4			
동대문구	2	4	3	5	2	3	4	4	5	2	34	3			
중랑구	2	6	5	6	2	2	8	6	7	2	46	5			
성북구	2	6	4	5	1	3	8	4	6	3	42	4			
강북구	2	5	4	6	2	2	4	2	6	2	35	4			
노원구	1	4	5	5	2	2	5	6	7	2	39	4			
노원구	3	5	5	9	3	2	8	9	8	2	54	5			
은평구	2	4	7	7	2	1	8	5	6	2	44	5			
서대문구	2	4	6	5	2	1	3	6	7	2	38	4			
마포구	2	4	5	6	2	2	4	4	5	2	36	4			
양천구	2	5	8	6	2	3	7	6	6	2	47	5			
강서구	3	6	8	6	2	2	4	3	6	3	43	4			
구로구	3	2	5	5	3	2	5	5	8	2	40	4			
금천구	1	4	5	4	1	1	4	6	5	2	33	3			
영등포구	2	4	5	6	2	3	6	5	6	3	42	4			
동작구	2	6	4	6	2	2	6	7	8	2	45	5			
관악구	3	6	6	6	2	2	6	8	8	2	49	5			
서초구	2	4	6	7	2	2	8	6	5	2	44	4			
강남구	3	4	6	6	2	2	7	6	6	2	44	4			
송파구	1	4	4	7	3	1	4	7	10	2	43	4			
강동구	2	7	6	5	2	1	6	7	7	2	45	5			

2. 조사방법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전후세대』의 목표 조사 표본수는 1,000명이고, 최종적으로 1,010명 조사 실시함.
 - 한 가구당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전후세대 한명만을 조사하였으며, 함께 사는 가구원이 50+전후세대일 경우 추가 조사(744명)함.
- 설문조사 실사기간은 2019년 7월 15일~2019년 8월 30일까지 진행하였고,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함.

3. 조사내용

1) 설문 조사항목 개발 과정

- 2019년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직업이력 및 경제활동〉은 2019년 1월에 조사를 기획하여 9월까지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진행한 후 조사결과를 분석함.
- 본 조사의 내용은 중고령자 대상 선행연구 및 타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 검토와 함께,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책적 수요 및 조사결과 활용성을 제고함.
 - 모집단 및 표본설계를 위해 연구기획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사 설계의 적절성을 검토함.
 - 조사표 내용의 범위와 조사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및 50+당사자 대상 파일럿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함.
 - 모집단 및 표본설계 후, 조사 설계의 타당성에 대해 통계청에 자문의견을 수렴함.

2) 설문조사표 내용

〈표 3-6〉 설문조사표 내용(요약)

대분류	중분류	조사 내용
서울시 50+세대의 직업이력	일과 활동 이력	일과 활동 구분, 일과 활동 상태, 시작 시기, 끝난 시기, 기관 또는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된 활동, 산업, 사업장 위치, 부서명, 맡은 일, 직위, 직업, 근무형태, 고용형태, 근무시간 형태, 월 평균 소득(만원), 일 또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만족도, 경력연관성(생애 주된 일자리, 바로 직전 일 또는 활동), 현재 일 또는 활동 여부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과 활동 실태	생애 근무 기간,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근무 기간,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유, 퇴직 후 일·활동을 위해 준비한 것, 퇴직금 수령 여부, 퇴직금 금액, 퇴직금 사용처, 현재 일과 활동 상태, 현재 일 상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소득의 생활비 도움 정도, 50+세대에게 필요한 지원 항목, 다른 일에 대한 활동 또는 계획, 활동의 주된 이유, 활동의 주된 경로, 활동 만족도
서울시 50+세대의 소득과 소비 (퇴직 전·후)	소득	퇴직 전 대비 현재 가구 소득, 소득 항목별 소득 금액, 재정상태 총분성
	소비	퇴직 전 대비 현재 가구 소비, 소비 항목별 소비 금액, 지출항목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 평소 한 달 용돈, 용돈 충분성, 생활비 부담자, 생활비 마련 경로, 생활비 부족 경험, 부족한 생활비 마련 경로, 최소한의 월평균 생활비, 적절한 월평균 생활비
	자산	퇴직 전 대비 현재 가구 자산, 소비 항목별 소비 금액, 거주 주택의 등기상 점유형태 및 시기, 거주주택 금액 마련 경로,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 저축 항목별 저축 여부, 퇴직 전 대비 현재 가구 저축, 자산 형성 우선 지원 희망 분야, 자산 형성 관련 지원 희망 형태
	부채	퇴직 전 대비 현재 가구 부채, 가구 부채 현황, 부채 이유, 부채 지출 이자
서울시 50+세대의 삶의 질과 노후 준비	삶의 질	삶에 대한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행복도, 사다리 문항, 최근 관심사, 자아존중감, 가족부양여부, 부양 중인 가족, 본인의 건강상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것
	노후준비	본인이 생각하는 노후 시작 연령, 노후 시작 연령에 대한 이유, 근로 희망 연령, 활동 희망 연령,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충분성,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불충분 이유, 노후대책 마련의 주 역할 대상, 노후 자금 마련 경로, 노후 주거지의 조건

3) 직업이력 조사 기준

- 본 조사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과 활동 이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생애 주된 일자리가 없었다거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하지 않은 50+전후세대는 조사대상이 아님.
- 생애 주된 일자리,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현재까지의 일자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력 정보를 수집함.
 - 일자리 시작시기, 끝난 시기, 종사상 지위, 기관 또는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된 활동, 산업분류, 산업장 위치, 부서명, 맡은 일, 직위, 직업 분류, 근무형태, 고용형태, 근무시간 형태, 월평균 소득, 소득만족도,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경력 연관성, 바로 직전 일 또는 활동와의 경력 연관성
- ‘생애 주된 일자리’의 조사 기준은 ‘만 15세 이후 가진 일자리 중에서 근속년수가 가장 긴 일자리 혹은 (근속년수가 같다면) 소득이 더 많았던 일자리’이고,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자리 변동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일자리 변동 기준을 따름.

〈표 3-7〉 일자리 변동 기준

종사상 지위	일자리 변동	하나의 일자리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일을 하더라도 직장이나 사업자가 바뀐 경우 • (예) A0아파트 경비일→B0아파트 경비일로 옮긴 경우 다른 일자리로 간주 • 종사상의 지위가 바뀐 경우 • 한 회사에서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회사를 인수해서 고용주가 되는 경우, 같은 일을 그대로 하는 경우라도 일자리 변동으로 간주 • 일자리 변경 유무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표를 제출했는지 등으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국공립학교교사, 공기업직원, 대기업, 건설회사 등의 순환근무·전근의 경우 • (예) 강남구에서 국공립중학교 3학년 교사→노원구에서 국공립중학교 1학년 교사일 경우, 하나의 일자리로 간주 •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띄엄띄엄했다더라도 주기적으로 일한 경우 (예) 1988년부터 건설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다 2000년 마지막으로 근무한 경우, 하나의 일자리로 간주
자영업자/ 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일(업종변경)을 하다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한 경우 (예) 치킨집→철물점→치킨집(일자리 3개) • 사업장을 이사회 새롭게 개업한 경우 (예) 은평구에서 치킨집→마포구로 이전해서 치킨집(일자리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간이 년 중 몇 개월인 한철 장사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조사대상자 1,010명 중, 2차 베이비붐세대는 102명(10.1%), 50+세대는 806명(79.8%), 노인세대는 102명(10.1%)으로 주요 조사대상인 50+세대의 비율이 매우 높음.
 - 50+세대를 연령별로 구분하면, 50~54세는 254명(31.51%), 55~59세는 264명(32.75%), 60~64세는 288명(35.73%)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총 1,010명 중 남성 483명(47.9%), 여성 527명(52.2%)로 여성이 다소 높은 비율로 조사됨.
 - 2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남성 조사대상자 수가 여성보다 다소 많았지만, 50+세대와 노인세대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은 2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대학교 졸업(68.6%)이 가장 많았고, 50+세대(63.15%)와 노인세대(76.5%)는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음.
-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기혼(93.5%)이었으며, 50+세대(2.11%)와 노인세대(9.8%)에서는 사별의 경우도 조사되었음.
- 50+캠퍼스 권역별로 보면, 남부캠퍼스(30.2%) 권역의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동남캠퍼스(17.6%), 북부캠퍼스(16.8%)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가구형태의 경우 2차 베이비붐세대<50+세대<노인세대로 갈수록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노인세대<50+세대<2차 베이비붐세대로 갈수록 2세대 가구의 비율이 높음.

〈표 3-8〉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전체 (1,010명)		2차 베이비붐세대 (102명)		50+세대 (806명)		노인세대 (102명)	
			n	%	n	%	n	%	n	%
성 별	남	성	483	47.8	53	52.0	381	47.3	49	48.0
	여	성	527	52.2	49	48.0	425	52.7	53	52.0
학 력	중	학 교	22	2.2	0	0.0	11	1.36	11	10.8
	고	등 학 교	619	61.3	32	31.4	509	63.15	78	76.5
	대	학 교	359	35.5	70	68.6	276	34.24	13	12.7
	대	학 원	10	1.0	0	0.0	10	1.24	0	0.0
혼인상태	미	혼	11	1.1	1	1.0	9	1.12	1	1.0
	기	혼	944	93.5	101	99.0	754	93.55	89	87.3
	별	거 및 이혼	28	2.8	0	0.0	26	3.23	2	2.0
	사	별	27	2.7	0	0.0	17	2.11	10	9.8
50+캠퍼스권역별	서	부	82	8.1	6	5.9	68	8.4	8	7.8
	중	부	122	12.1	14	13.7	95	11.8	13	12.7
	남	부	305	30.2	33	32.4	242	30.0	30	29.4
	동	남	178	17.6	14	13.7	145	18.0	19	18.6
	북	부	170	16.8	17	16.7	136	16.9	17	16.7
	동	부	153	15.1	18	17.6	120	14.9	15	14.7
가구형태	1	인 가 구	59	5.8	2	2.0	44	5.5	13	12.7
	1	세 대 가 구	298	29.5	2	2.0	230	28.5	66	64.7
	2	세 대 가 구	643	63.7	96	94.1	527	65.4	20	19.6
	3	세 대 가 구	8	0.8	2	2.0	3	0.4	3	2.9
	비	혈 연 가 구	2	0.2	0	0.0	2	0.2	0	0.0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제 4 장



서울시 50+세대의 실태조사 결과

제4장

서울시 50+세대의 실태조사 결과

- 본 연구의 주요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이므로, 제1절, 제2절, 제3절에서는 50+세대(50~64세)의 일과 활동, 경제적 실태, 삶의 질과 노후준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4절에서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 50+세대, 노인세대를 비교한 경제활동 분석결과를 제시함.
- 50+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년도는 1986년~2019년까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분석대상 개개인의 퇴직년도에 따라 50+세대의 일자리 이동 경로와 이력의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퇴직시기에 따라 응답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서로 다름).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전체 표본, 50+세대 시기(50~64세)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표본으로 나누어 분석결과를 제시함.

제1절 직업이력

1. 일과 활동 이력

1)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퇴직 후의 일과 활동 개수

- 서울시 50+세대의 44.1%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에 생애 주된 일자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95.8%는 퇴직 후 1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퇴직 후 2개 이상 일자리를 가진 50+세대는 14.2%이었고, 퇴직 후 일을 하지 않는 50+세대는 4.2%이었음.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활동을 하고 있는 50+세대는 11.3%로 나타남.
 - 퇴직 전과 후로 최대 활동 개수는 각각 1개이고, 퇴직 후 활동하는 50+세대 비율은 퇴직 전보다 증가하였음(0.1%→11.3%).

<표 4-1>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퇴직 후의 일과 활동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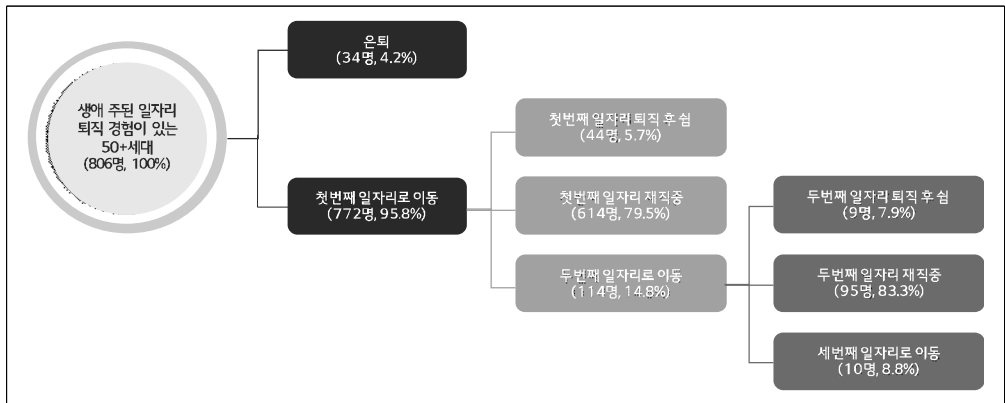
구 분		일		활동	
		n	%	n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전 일·활동 개수	0	0	0.0	805	99.9
	1	450	55.8	1	0.1
	2	243	30.1	-	-
	3개 이상	113	14.0	-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후 일·활동 개수	0	34	4.2	715	88.7
	1	658	81.6	91	11.3
	2	104	12.9	-	-
	3개 이상	10	1.3	-	-

2) 50+세대의 일자리 이동

(1) 50+세대의 일자리 이동 경로(전체)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95.8%는 퇴직 후 1개 이상의 일자리를 경험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해당 일자리에서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50+세대 표본(806명)의 95.8%(772명)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일자리를 이동하여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짐.
 - 첫 번째 자리로 이동한 50+세대 중 79.5%(614명)는 첫 번째 자리에서 현재 재직 중이었고, 14.8%(114명)는 두 번째 자리로 이동함.

- 두 번째 일자리에서 이동한 50+세대 중 83.3%(95명)은 두 번째 일자리에서 현재 재직 중이었고, 8.8%(10명)는 세 번째 일자리로 이동함.
-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바로 은퇴하지 않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거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4.2%만이 잠정적으로 은퇴한 것으로 나타남.
- 첫 번째 일자리에서 퇴직 후 쉬는 경우는 5.7%, 두 번째 일자리에서 퇴직 후 쉬는 경우는 7.9%로 나타남.



[그림 4-1] 50+ 세대의 일자리 이동 경로(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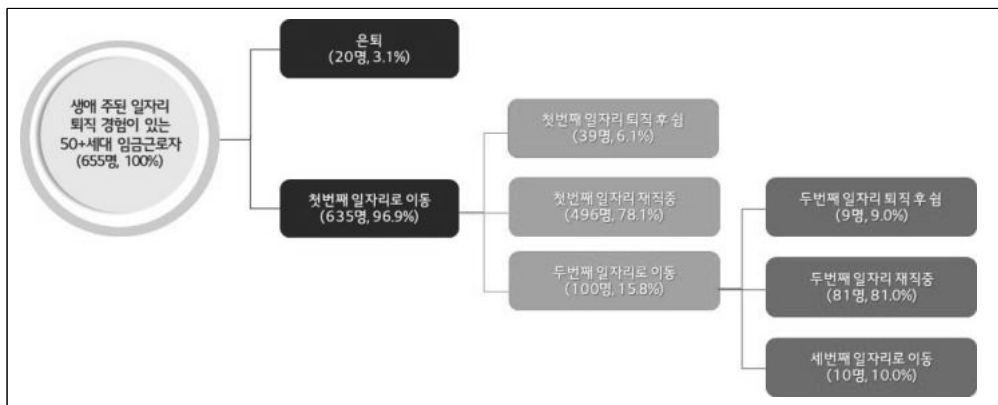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는 감소하고 자영업자는 증가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는 81.3%이었고, 퇴직 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첫 번째 일자리는 67.9%, 두 번째 일자리는 66.6%이었음. 퇴직 후 일자리를 거칠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감소하였고(81.0%→54.5%→53.5%), ‘임시직’과 ‘일용직’은 퇴직 전후로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자영업자’는 17.9%이었고, 퇴직 후 일자리를 거칠수록 자영업은 증가하였으며(17.9%→30.5%→31.6%), 그 중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컸음(11.0%→18.8%→20.2%).

〈표 4-2〉 50+세대의 일자리 종사상 지위표(전체)

생애 주된 일자리 (806명)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772명)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 (114명)	
상용직	81.0%	상용직	54.5%	상용직	53.5%
임시직	0.2%	임시직	10.2%	임시직	9.6%
일용직	0.0%	일용직	3.2%	일용직	3.5%
종업원 있는 고용주	6.9%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11.7%	종업원 있는 고용주	11.4%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1.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8.8%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20.2%
무급가족종사자	0.7%	무급가족종사자	0.6%	무급가족종사자	0.9%
창업자	0.0%	창업자	0.9%	창업자	0.9%

(2) 50+세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경로

- 806명의 50+세대 표본 중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였던 50+세대는 655명(81.3%)이고, 655명을 100%로 봤을 때, 96.9%가 첫 번째 일자리로 이동했으며, 그 중 78.1%는 계속 재직 중에 있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로 퇴직한 50+세대의 72.2%가 그대로 임금근로자로 이동하였고, 25.9%는 자영업, 1.1%는 창업으로 이동하였음.
 - 다만,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일자리가 변경되면서 계속 감소함(99.7%→59.8%→56.0%).
- 퇴직 후 일자리가 이동될수록 임금근로자에서 임금근로자는 감소하고(72.2%→66.0%),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는 증가함(25.9%→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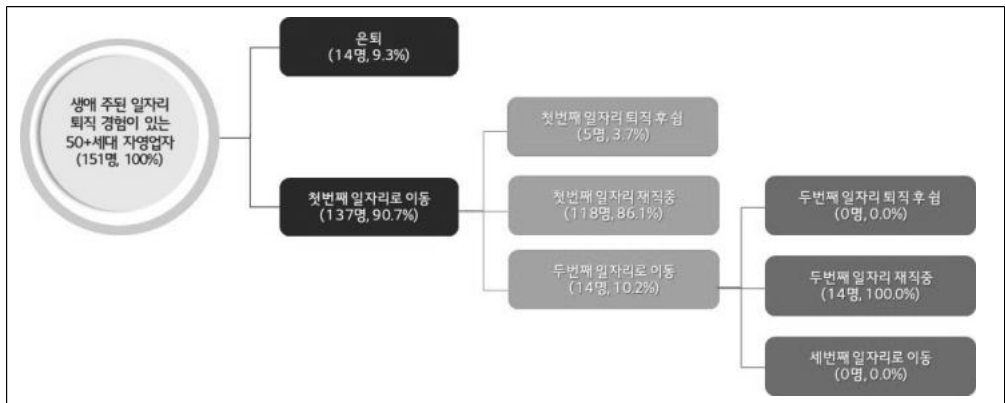
〔그림 4-2〕 50+ 세대의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경로

〈표 4-3〉 50+세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종사상 지위표

생애 주된 일자리 (655명)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635명)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 (100명)	
상용직	99.7%	상용직	59.8%	상용직	56.0%
임시직	0.3%	임시직	9.4%	임시직	8.0%
일용직	0.0%	일용직	3.0%	일용직	2.0%
		종업원 있는 고용주	10.9%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13.0%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5.0%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9.0%
		무급가족종사자	0.8%	무급가족종사자	1.0%
		창업자	1.1%	창업자	1.0%

(3) 50+세대 자영업자의 일자리 경로

- 806명의 50+세대 표본 중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자영업자이었던 50+세대는 151명 (18.7%)이고, 151명을 100%로 봤을 때, 90.7%가 첫 번째 일자리로 이동하였으며, 그 중 86.1%는 계속 재직 중에 있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자영업자로 퇴직한 50+세대의 51.8%가 다시 자영업으로 이동하였고, 48.2%는 임금근로자로 이동함.
- 퇴직 후 일자리가 이동될수록 자영업자는 감소하였지만(51.8%→28.6%), 임금근로자로의 이동은 증가하였는데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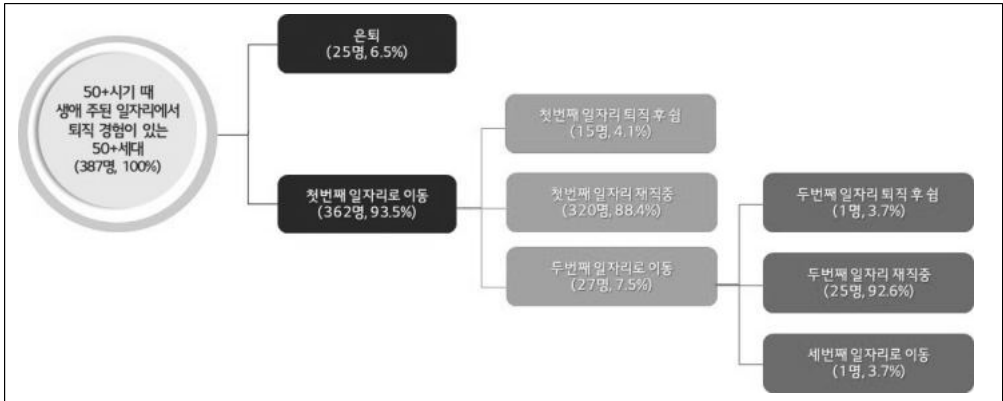
〔그림 4-3〕 50+세대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동 경로

〈표 4-4〉 50+세대 자영업자의 일자리 종사상 지위표

생애 주된 일자리 (151명)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137명)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 (14명)	
종업원 있는 고용주	37.1%	상용직	29.9%	상용직	35.7%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58.9%	임시직	13.9%	임시직	21.4%
무급가족종사자	4.0%	일용직	4.4%	일용직	14.3%
창업자	0.0%	종업원 있는 고용주	15.3%	종업원 있는 고용주	0.0%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36.5%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28.6%
		무급가족종사자	0.0%	무급가족종사자	0.0%
		창업자	0.0%	창업자	0.0%

(4)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일자리 이동 경로(전체)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50~64세에 퇴직한 50+세대의 93.5%는 첫 번째 자리로 이동하였고, 그 중 88.4%가 첫 번째 자리에서 종사 중임.
- 첫 번째 자리로 이동한 362명 중 27명(7.5%)만이 두 번째 자리로 이동하였고, 그 중 1명(3.7%)만이 세 번째 자리로 이동함.
- 퇴직 후 일자리가 이동될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감소하고, 임시직과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증가하였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73.4%이었고, 첫 번째 자리에서는 51.9%, 두 번째 자리에서는 55.6%로 다소 증가함.
 - 임시직과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통합하여 보면, 퇴직 전후로 10%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0.5%→13.8%→11.1%).
- 자영업의 경우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두 번째 자리로 이동하면서 9.3%p 증가함.



[그림 4-4]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일자리 이동 경로(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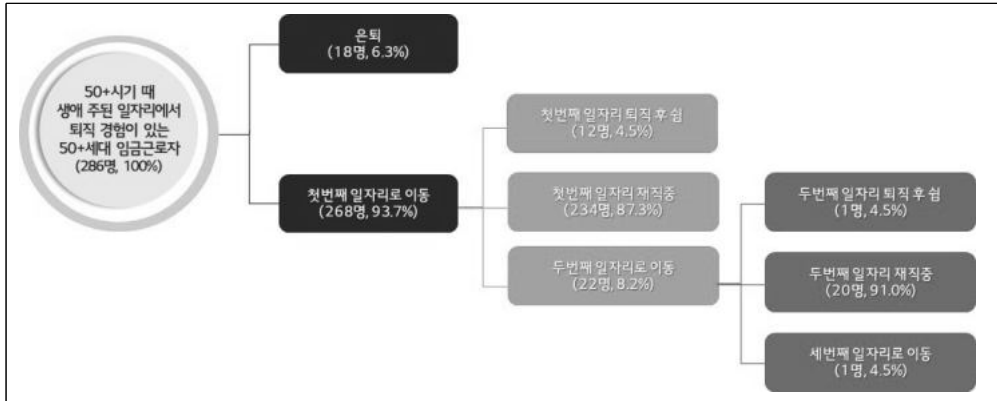
<표 4-5>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종사상 지위

생애 주된 일자리 (387명)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362명)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 (27명)	
상용직	73.4%	상용직	51.9%	상용직	55.6%
임시직	0.5%	임시직	9.9%	임시직	3.7%
일용직	0.0%	일용직	3.9%	일용직	7.4%
종업원 있는 고용주	11.6%	종업원 있는 고용주	15.5%	종업원 있는 고용주	11.1%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2.9%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6.6%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22.2%
무급가족종사자	1.6%	무급가족종사자	0.6%	무급가족종사자	0.0%
창업자	0.0%	창업자	1.7%	창업자	0.0%

(5)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임금근로자의 이동 경로

-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임금근로자는 286명이고, 그 중 268명(93.7%)이 다음 일자리로 이동하였고, 그 중 22명(8.2%)이 두 번째 일자리로 이동하였으며, 1명(4.5%)만이 세 번째 일자리로 이동함.
- 50+세대 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로 퇴직한 50+세대의 72.4%가 그대로 임금근로자로 이동하였고, 24.7%는 자영업, 2.2%는 창업으로 이동하였음.
 - 퇴직 후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39.6%p감소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증가함.
 - 두 번째 일자리로 가면 임시직은 감소한 반면(9.3%→4.5%), 일용직은 오히려 증가함 (3.4%→9.1%).

- 자영업의 경우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는 감소하고(14.6%→13.6%),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함(10.1%→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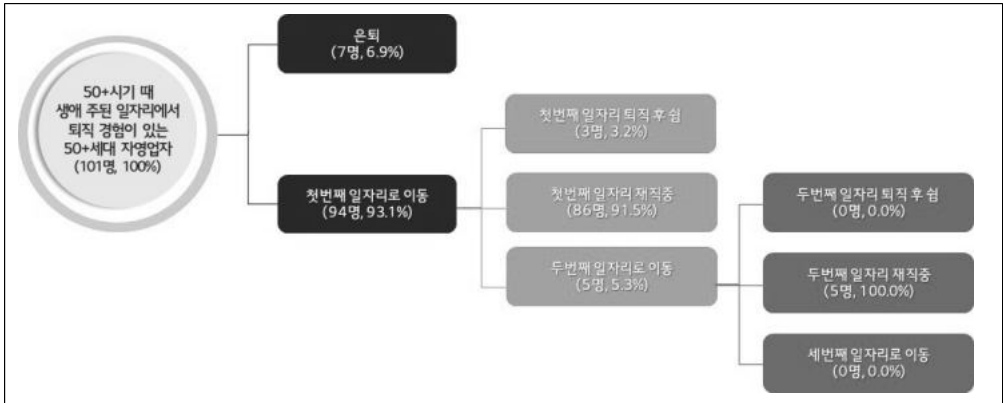
[그림 4-5]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임금근로자의 이동 경로

[표 4-6]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생애 주된 일자리 (286명)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268명)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 (22명)	
상용직	99.3%	상용직	59.7%	상용직	59.1%
임시직	0.7%	임시직	9.3%	임시직	4.5%
일용직	0.0%	일용직	3.4%	일용직	9.1%
		종업원 있는 고용주	14.6%	종업원 있는 고용주	13.6%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0.1%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3.6%
		무급가족종사자	0.7%	무급가족종사자	0.0%
		창업자	2.2%	창업자	0.0%

(6)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자영업자 이동 경로

-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자영업자 101명 중 93.1%가 첫 번째 일자리로 이동하였고, 그 중 5.3%만이 두 번째 일자리로 이동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는 일자리가 이동하면서 급격히 감소함(44.6%→18.1%→0.0%).



[그림 4-6]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자영업자의 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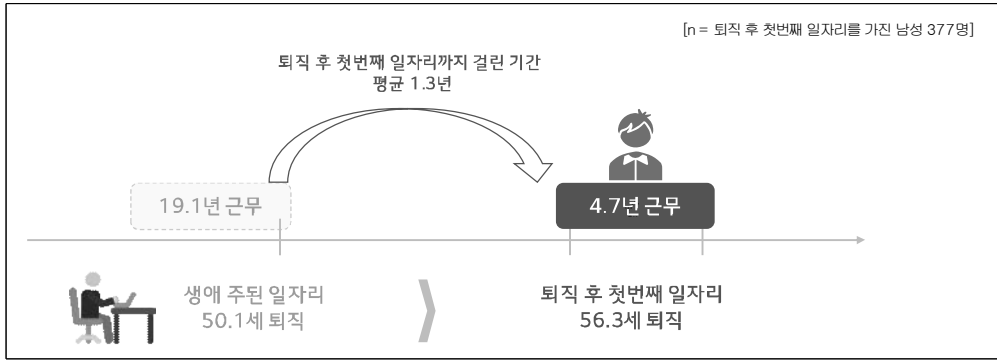
<표 4-7>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자영업자 종사상 지위

생애 주된 일자리 (101명)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94명)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 (5명)	
종업원 있는 고용주	44.6%	상용직	29.8%	상용직	40.0%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49.5%	임시직	11.7%	임시직	0.0%
무급가족종사자	5.9%	일용직	5.3%	일용직	0.0%
창업자	0.0%	종업원 있는 고용주	18.1%	종업원 있는 고용주	0.0%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35.1%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60.0%
		무급가족종사자	0.0%	무급가족종사자	0.0%
		창업자	0.0%	창업자	0.0%

3) 50+세대의 일자리 현황

(1)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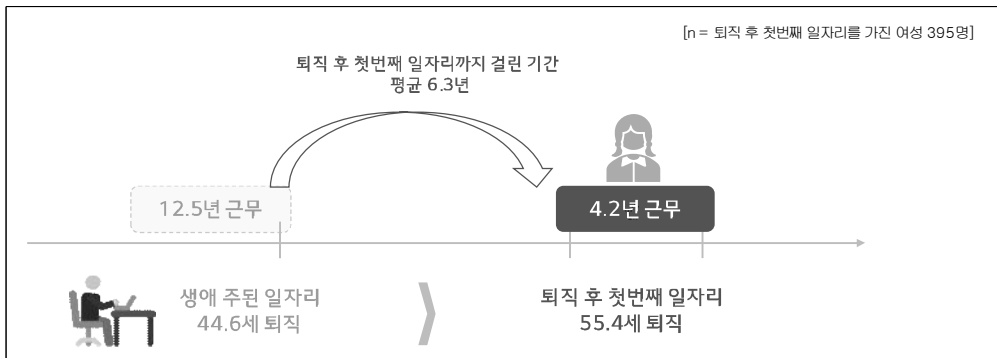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남성의 평균 근무기간은 19.1년이었고, 평균 퇴직연령은 50.1세로 나타남.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3년이었고, 평균 4.7년을 근무하고 56.3세에 퇴직함.



[그림 4-7]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이력(남성)

(2)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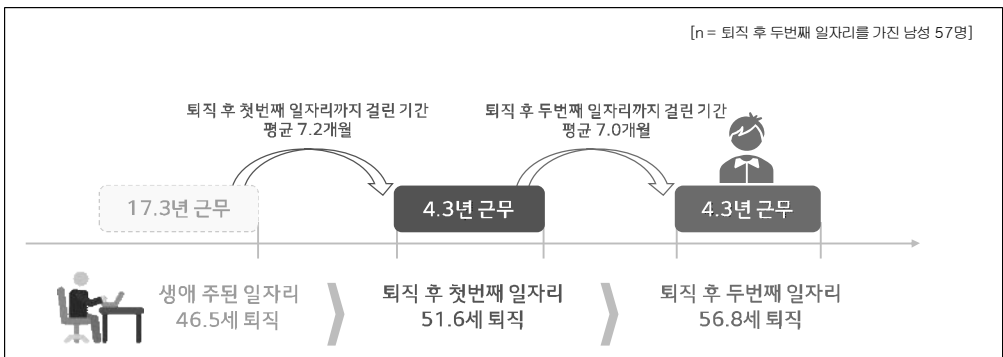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여성의 평균 근무기간은 12.5년이었고, 평균 퇴직연령은 44.6세로 남성에 비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빨리 퇴직함.
- 또한, 여성의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3년으로 남성에 비해 약 4배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평균 근무기간은 4.2년이었고, 첫 번째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5.4세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다음 일자리에서도 남성에 비해 퇴직이 빠름.



[그림 4-8]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이력(여성)

(3)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를 가진 남성

-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로 이동한 경험이 있는 50+세대 남성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 평균 근무기간은 17.3년, 평균 퇴직연령은 46.5세였음.
-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7.2개월이었고, 두 번째 일자리까지 걸린 기간은 7.0개월로 나타남.
-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와 두 번째 일자리 평균 근무기간은 각각 4.3년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 근무기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함.
 -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51.6세, 두 번째 일자리 퇴직 연령은 56.8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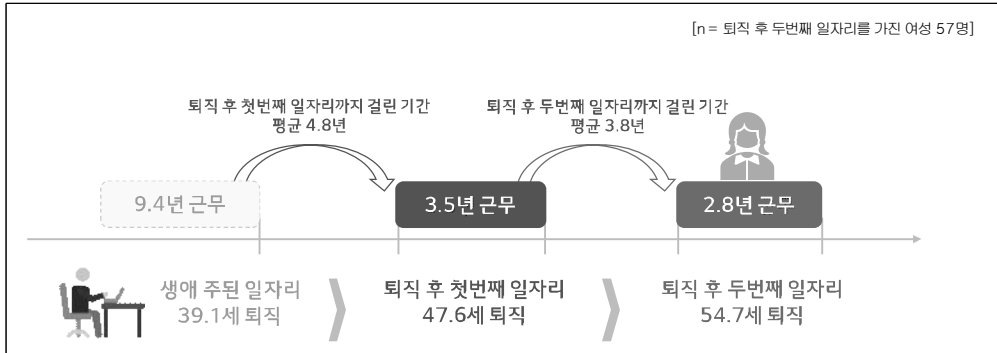


[그림 4-9]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 이력(남성)

(4)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를 가진 여성

-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로 이동한 경험이 있는 50+세대 여성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 평균 근무기간은 9.4년, 평균 퇴직연령은 39.1세로 나타남.
-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8년이었고, 두 번째 일자리까지 걸린 기간은 3.8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다음 일자리까지 걸린 기간이 매우 긴 편임.
-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평균 근무기간은 3.5년, 두 번째 일자리 평균 근무기간은 2.8년으로 여성의 근무기간은 남성에 비해 짧은 편임.

-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7.6세, 두 번째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54.7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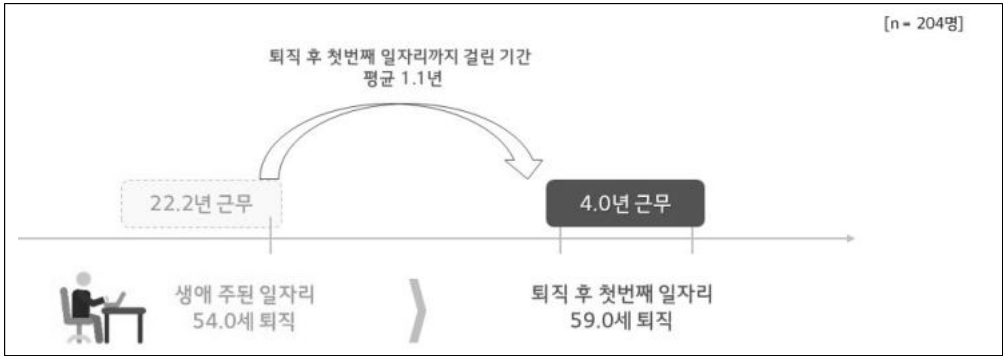


[그림 4-10]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 이력(여성)

(5)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남성

- 50~64세에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로 이동한 경험이 있는 50+세대 남성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 평균 근무기간은 22.2년이었고, 평균 퇴직 연령은 54.0세로 나타남).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까지 평균 1.1년이 걸렸고, 첫 번째 일자리에서 평균 4.0년을 근무했으며, 평균 퇴직연령은 59.0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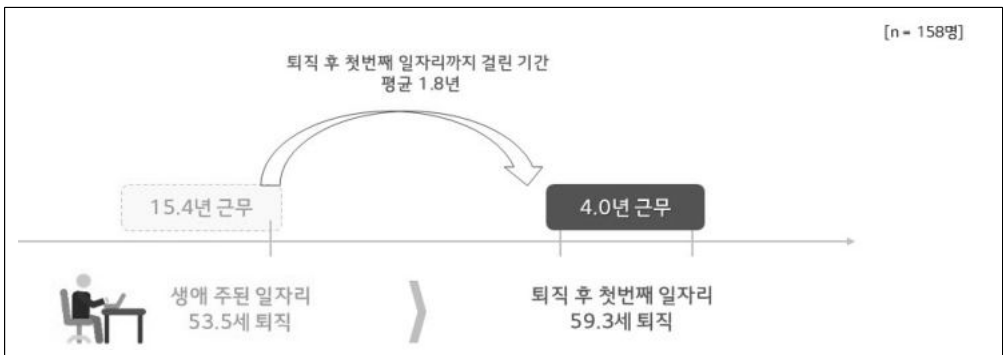
5) 2019년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10년 이상 임금근로 후 50세 이후 직장에서 퇴직한 50~69세를 대상으로 조사함)에 따르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25년 근무 후, 54.5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1]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남성

(6)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여성

- 50~64세 퇴직 후 첫 번째 자리로 이동한 경험이 있는 50+세대 여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15.4년 근무하고, 53.5세에 퇴직함.
- 여성의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8년이었고, 첫 번째 일자리 평균 근무기간은 4.0년, 첫 번째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9.3세로 나타남.
-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50+시기에 퇴직한 50+세대 표본으로 봤을 때, 같은 시기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일자리 이동은 주된 일자리 총 근무기간을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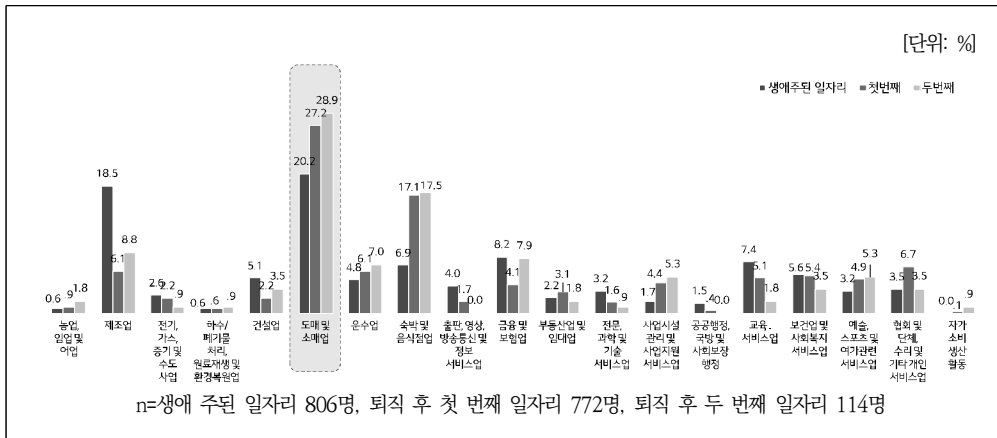


[그림 4-12]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여성

4) 50+세대의 일자리 이력

(1) 일자리별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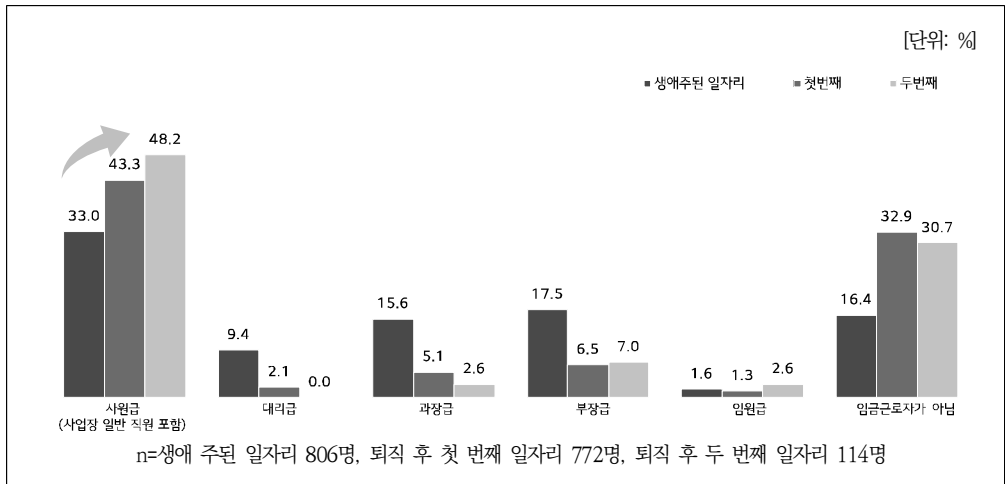
-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로 도매 및 소매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였고, 첫 번째, 두 번째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그 증가율도 가장 크게 나타남.
- 50+세대는 제조업에 많이 종사했지만 퇴직 후에는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함.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퇴직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4-13] 일자리별 산업

(2) 일자리별 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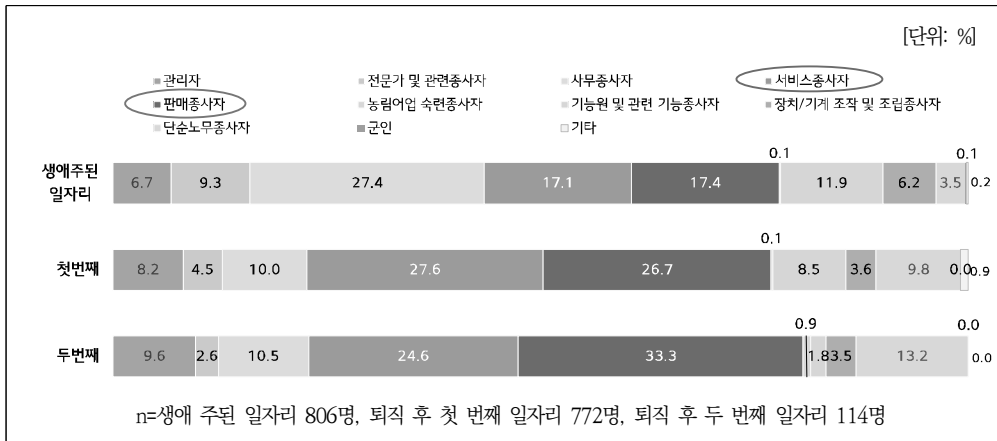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사원급(일반 직원), 대리급, 과장급, 부장급 등에 위치하였던 50+세대는 퇴직 후에 사업장의 일반직원(사원급)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4-14] 일자리별 직위

(3) 일자리별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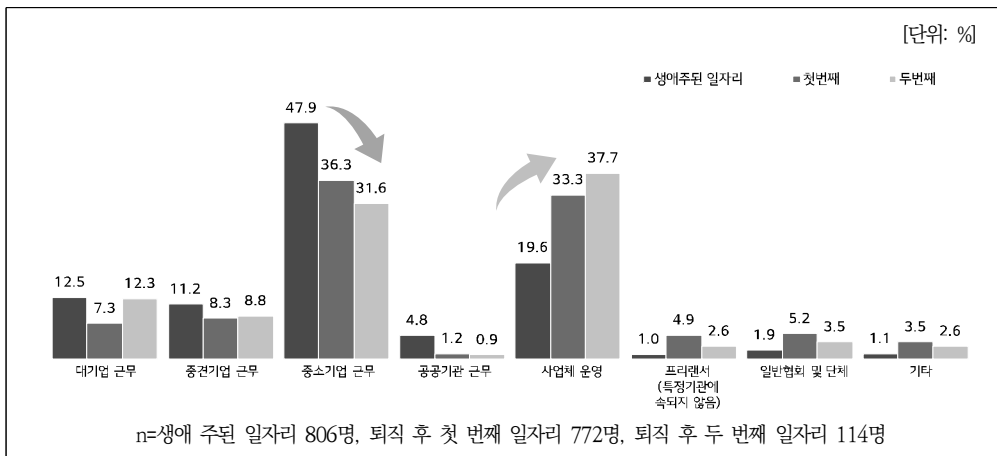
-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로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에 많이 종사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대비 퇴직 후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 등 증가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서비스 종사자'는 17.1%,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는 27.6%, 두 번째 일자리는 24.6%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판매 종사자'는 17.4%,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는 26.7%, 두 번째 일자리는 33.3%
 - '단순노무종사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는 3.5%,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는 9.8%, 두 번째 일자리는 13.2%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대비 퇴직 후 전문직, 사무직, 기능직, 기술직 등 감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사무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퇴직 후 절반 이하로 낮아졌으며(27.4%→10.0%), '기능직' 또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는 '판매종사자' 다음으로 높았으나 퇴직 후 일자리에서 매우 낮아짐(11.9%→8.5%→1.8%).



[그림 4-15] 일자리별 직업

(4) 일자리별 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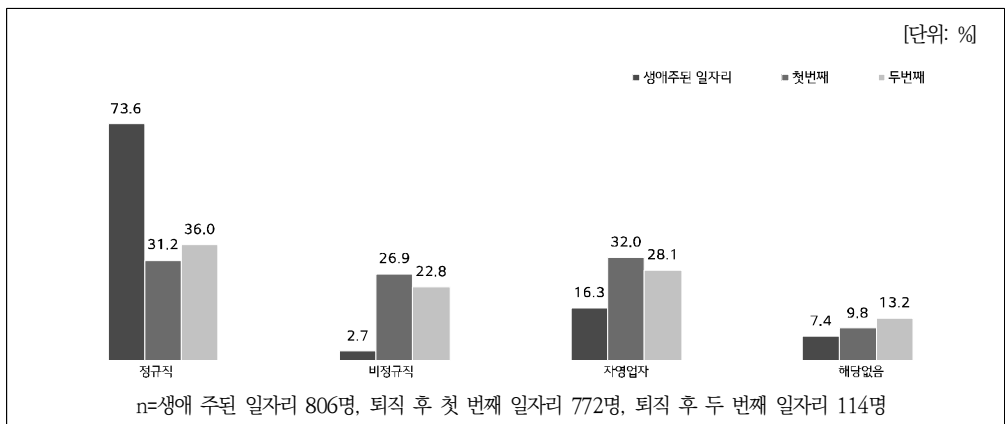
-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중소기업에서 47.9%, 대기업에서 12.5%가 근무 하였고, 사업체 운영한 경우도 19.6%로 나타남.
- 50+세대는 퇴직 후 일자리를 이동할수록 중소기업에서의 근무는 감소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함.



[그림 4-16] 일자리별 근무형태

(5) 일자리별 고용형태

-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로 임금근로자(81.3%, 상용직: 81.0%, 임시직: 0.2%)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던 만큼 정규직의 형태가 73.6%로 나타남.
- 그러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다음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정규직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자영업의 형태로 변화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정규직'은 73.6%이었고,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는 31.2%, 두 번째 일자리는 36.0%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은 2.7%, 퇴직 후 첫 번째 자리에서는 26.9%, 두 번째 일자리는 22.8%
 - 또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자영업자'는 16.3%,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는 32.0%, 두 번째 일자리는 28.1%로 퇴직 전 대비 (첫 번째) 일자리에서 2배정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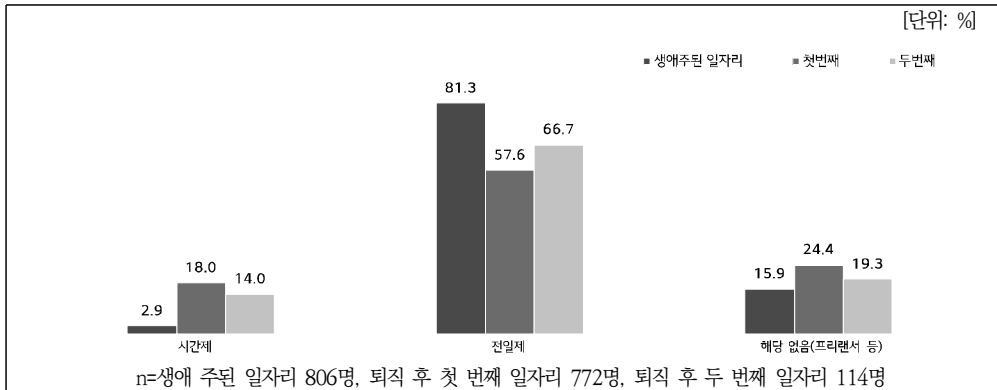


[그림 4-17] 일자리별 고용형태

(6) 일자리별 근무시간 형태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대비 퇴직 후, 근무시간 형태는 전일제 근무가 감소하였고, 시간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가 증가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전일제' 근무는 81.3%로 나타났지만, 퇴직 후 첫 번째 자리에서는 57.6%, 두 번째 자리에서는 66.7%로 감소함

- 프리랜서 등의 경우, '시간제' 근무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4-18] 일자리별 근무시간 형태

(7) 50+세대 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일자리 이력

- 50+시기(50~64세)때 퇴직한 50+세대 표본으로 일자리 변화를 요약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들은 일자리 이동을 거치며 소득, 종사상지위, 직무, 직종, 사업장 규모 등 근로여건의 변화를 경험함.
- 주된 일자리 퇴직 전에 비해 퇴직 후 월 평균 소득은 약 23% 정도 감소하였고, 퇴직 후 거친 일자리 간 소득은 큰 폭의 변화 없음.
- 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자리를 이동하면서 상용직은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증가하였음. 자영업자의 경우,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1인)의 비중이 증가함.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로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면,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증가하고(11.1%→20.2%→33.3%), 제조업은 크게 감소함(15.2%→4.4%→3.7%).
- 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자리를 이동하면서 직위는 일반 직원인 사원급은 증가한 반면, 대리급, 과장급, 부장급은 크게 감소함. 다만, 임원급은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일자리에서 오히려 증가함.

〈표 4-8〉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일자리 이력(전체)

		생애 주된 일자리 (387명)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362명)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 (27명)
월 평균 소득	평 균	342만원	263만원	260만원
	중위값	300만원	230만원	220만원
종사상 지위	상용직	73.4%	상용직 51.9%	상용직 55.6%
	임시직	0.5%	임시직 9.9%	임시직 3.7%
	일용직	0.0%	일용직 3.9%	일용직 7.4%
	종업원 있는 고용주	11.6%	종업원 있는 고용주 15.5%	종업원 있는 고용주 11.1%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2.9%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6.6%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22.2%
	무급가족종사자	1.6%	무급가족종사자 0.6%	무급가족종사자 0.0%
	창업자	0.0%	창업자 1.7%	창업자 0.0%
산 업	도매 및 소매업	20.7%	도매 및 소매업 22.9%	도매 및 소매업 3.7%
	제조업	15.2%	제조업 4.4%	제조업 3.7%
	금융 및 보험업	6.7%	숙박 및 음식점업 20.2%	숙박 및 음식점업 33.3%
	숙박 및 음식점업	1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1%	
직 위	사원급	20.9%	사원급 44.5%	사원급 48.1%
	대리급	4.7%	대리급 0.6%	대리급 0.0%
	과장급	14.2%	과장급 2.8%	과장급 0.0%
	부장급	27.9%	부장급 6.4%	부장급 3.7%
	임원급	1.6%	임원급 1.9%	임원급 7.4%
	임금근로자가 아님	23.3%	임금근로자가 아님 35.6%	임금근로자가 아님 33.3%
직 업	사무	16.5%	사무 6.4%	판매 3.7%
	판매	18.3%	판매 22.1%	서비스 29.6%
	서비스	20.2%	서비스 31.2%	단순노무 25.9%
근 무 형 태	대기업 근무	12.4%	대기업 근무 5.5%	대기업 근무 3.7%
	중견기업 근무	7.8%	중견기업 근무 6.6%	중견기업 근무 3.7%
	중소기업 근무	42.1%	중소기업 근무 35.5%	중소기업 근무 44.4%
	공공기관 근무	7.5%	공공기관 근무 1.1%	공공기관 근무 0.0%
	사업체 운영	27.1%	사업체 운영 36.8%	사업체 운영 40.7%
	프리랜서	1.0%	프리랜서 4.4%	프리랜서 0.0%
	일반협회 및 단체	1.3%	일반협회 및 단체 6.1%	일반협회 및 단체 3.7%
	기타	0.8%	기타 3.9%	기타 3.7%
	근무시간형태	전일제 76.0%	전일제 56.1%	전일제 63.0%
고 용 형 태	정규직 65.6%	정규직 26.8%	정규직 44.4%	

○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뿐만 아니라 다음 일자리로의 이동을 거치며 근로여건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주된 일자리 퇴직 전에 비해 퇴직 후 월 평균 소득은 남성은 약 22%, 여성은 약 27% 정도 감소함.

〈표 4-9〉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일자리 이력(남성)

		생애 주된 일자리 (208명)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204명)		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 (19명)	
월 평균 소득	평 균	398만원		310만원		267만원	
	중위값	400만원		285만원		180만원	
산 업	도매 및 소매업	17.3%	22.5%	도매 및 소매업	15.8%		
	제조업	19.7%	5.4%	제조업	5.3%		
	금융 및 보험업	3.8%	13.2%	숙박 및 음식점업	15.8%		
	숙박 및 음식점업	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1.3%			
직 위	사원급	8.2%	33.8%	사원급	63.2%		
	대리급	7.2%	1.0%	대리급	0.0%		
	과장급	18.3%	4.9%	과장급	0.0%		
	부장급	44.7%	9.8%	부장급	5.3%		
	임원급	2.9%	3.4%	임원급	10.5%		
	임금근로자가 아님	15.4%	40.2%	임금근로자가 아님	21.1%		
직 업	사무	19.7%	8.8%	사무	5.3%		
	판매	9.6%	18.1%	서비스	15.8%		
	서비스	13.0%	23.5%	단순노무	31.6%		
근 무 형 태	대기업 근무	8.7%	6.4%	대기업 근무	5.3%		
	중견기업 근무	11.5%	7.4%	중견기업 근무	5.3%		
	중소기업 근무	51.9%	33.5%	중소기업 근무	57.9%		
	공공기관 근무	7.7%	1.0%	공공기관 근무	0.0%		
	사업체 운영	18.8%	41.4%	사업체 운영	21.1%		
	프리랜서	0.0%	3.9%	프리랜서	0.0%		
	일반협회 및 단체	1.0%	5.4%	일반협회 및 단체	5.3%		
	기타	0.5%	1.0%	기타	5.3%		
	근무시간형태	전일제	82.7%	전일제	60.8%	전일제	73.7%
고 용 형 태	정규직	78.8%	정규직	27.5%	정규직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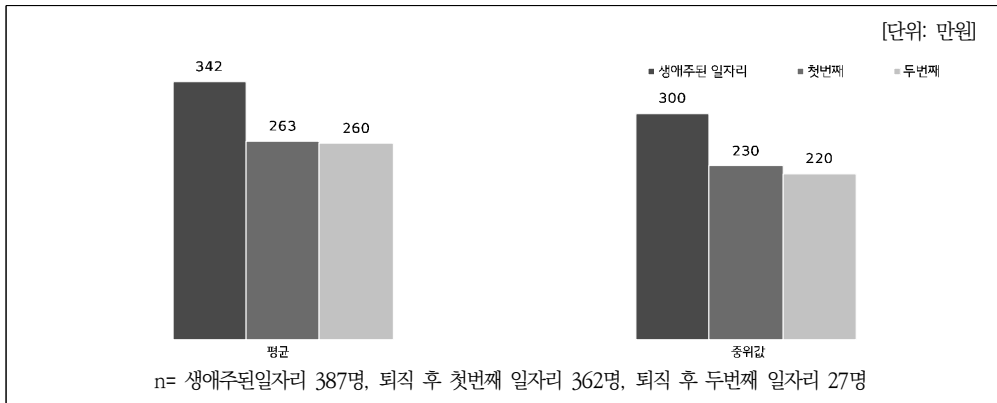
〈표 4-10〉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일자리 이력(여성)⁶⁾

		생애 주된 일자리 (179명)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158명)	
월 평균 소득	평균	277만원		202만원	
	중위값	250만원		180만원	
산 업	도매 및 소매업	24.6%	도매 및 소매업	23.4%	
	제조업	10.1%	제조업	3.2%	
	금융 및 보험업	10.1%	숙박 및 음식점업	29.1%	
	숙박 및 음식점업	1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8%	
직 위	사원급	35.8%	사원급	58.2%	
	대리급	1.7%	대리급	0.0%	
	과장급	9.5%	과장급	0.0%	
	부장급	8.4%	부장급	1.9%	
	임원급	0.0%	임원급	0.0%	
	임금근로자가 아님	32.4%	임금근로자가 아님	29.7%	
직 업	사무	12.8%	사무	3.2%	
	판매	28.5%	판매	27.2%	
	서비스	28.5%	서비스	41.1%	
근 무 형 태	대기업 근무	16.8%	대기업 근무	4.4%	
	중견기업 근무	3.4%	중견기업 근무	5.7%	
	중소기업 근무	30.7%	중소기업 근무	38.0%	
	공공기관 근무	7.3%	공공기관 근무	1.3%	
	사업체 운영	36.9%	사업체 운영	31.0%	
	프리랜서	2.2%	프리랜서	5.1%	
	일반협회 및 단체	1.7%	일반협회 및 단체	7.0%	
	기타	1.1%	기타	7.6%	
	근무시간 형태	전일제	68.2%	전일제	50.0%
고 용 형 태	정규직	50.3%	정규직	25.9%	

6)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이동한 여성의 두 번째 일자리의 표본은 8명에 불과해 요약표에 제시하지 않음.

(8) 일자리별 월 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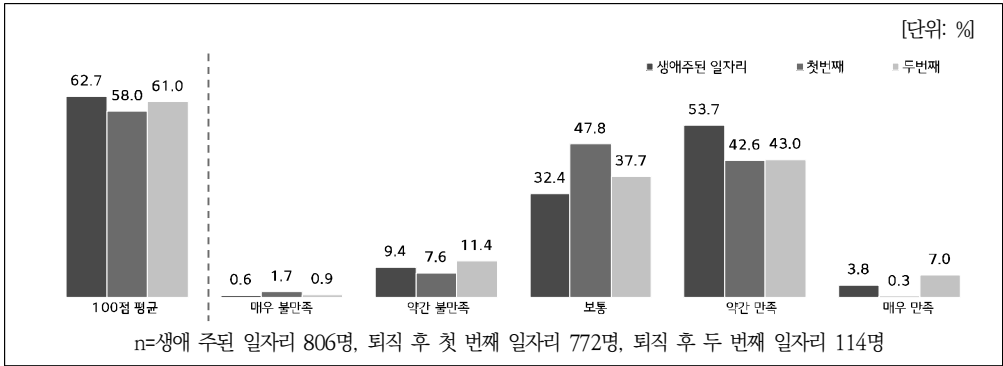
- 50~64세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경우, 퇴직 전에 비해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 월 평균 소득은 약 23% 정도 감소하였고, 두 번째 일자리 월 평균 소득은 약 24% 감소함.
- 생애 주된 일자리 월평균 소득은 342만원이었고,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는 263만원, 두 번째 일자리에서는 260만원으로 나타남.
- 중위 값으로 보면, 생애 주된 일자리는 300만원,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는 230만원, 두 번째 일자리는 220만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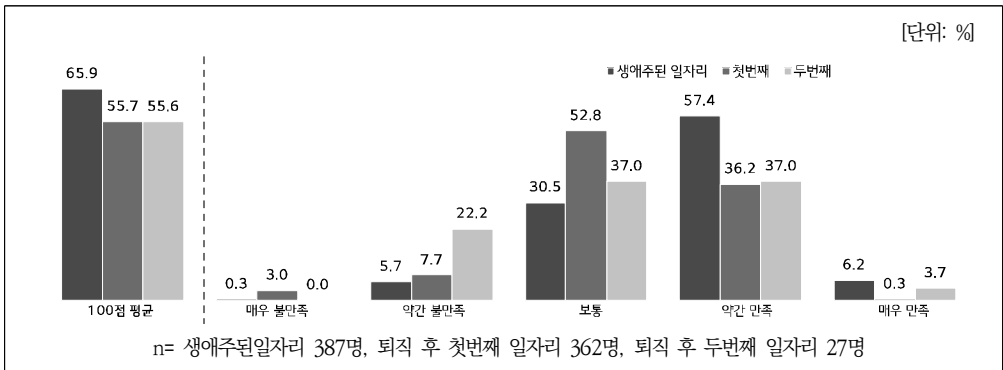
[그림 4-19]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월평균 소득 변화

(9) 일자리별 소득 만족도

- 일자리별 소득 만족도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일자리 이동을 거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에 대한 소득 만족도는 65.9점으로 나타났으나, 첫 번째 일자리에서는 10.2점 감소하였으며, 두 번째 일자리의 소득 만족도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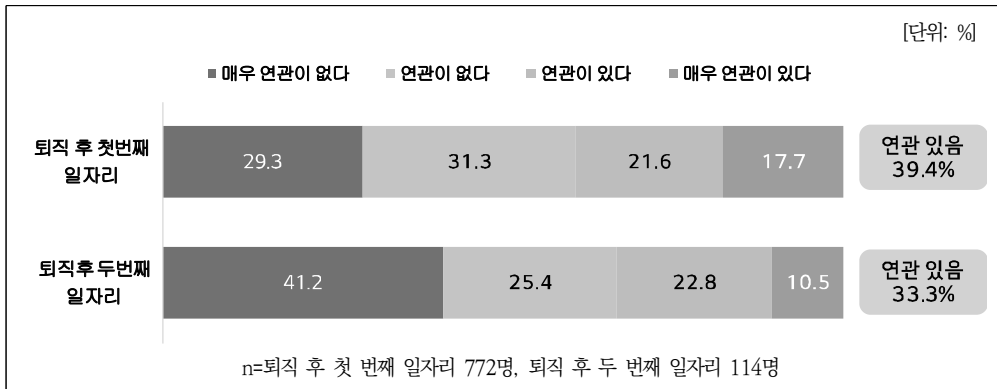
[그림 4-20] 일자리별 소득 만족도



[그림 4-21] 50+시기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소득만족도

(10) 일자리별 경력 연관성

- 생애 주된 일자리와 퇴직 후 이동한 일자리와의 경력 연관성은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퇴직 후 이동한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경력 연관성은 일자리를 거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60.6%→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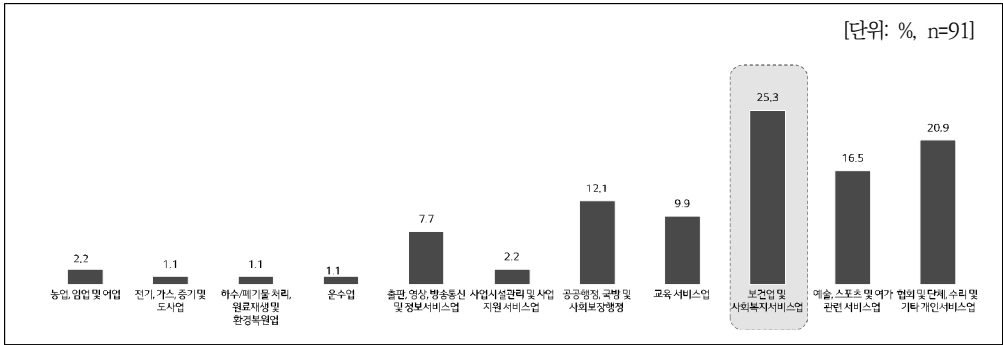
[그림 4-22] 일자리별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경력 연관성

5) 50+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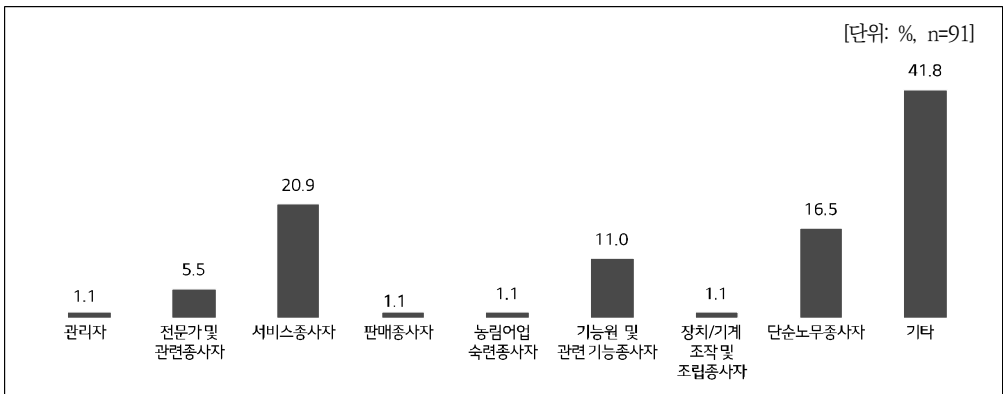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활동은 50+세대들이 지역사회에서 집단활동을 하는 것으로 학습활동, 취미활동, 봉사활동, 공공일자리사업활동 등을 포함.
 - 다만, 단순 여가 및 향유를 위한 활동은 제외
- 50+세대의 다양한 활동은 노동시장으로 다시금 뺏어갈 수 있는 디딤돌로서, 그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춤.

(1) 퇴직 후 활동의 산업·직업

- 50+세대의 활동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짐.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5.3%로 가장 많았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16.5%로 많았음.
 - 그 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도 12.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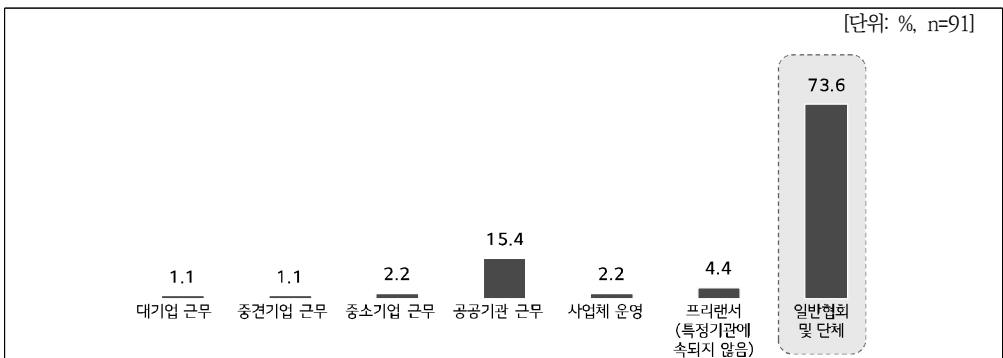
[그림 4-23] 퇴직 후 활동의 산업



[그림 4-24] 퇴직 후 활동의 직업

(2) 퇴직 후 활동의 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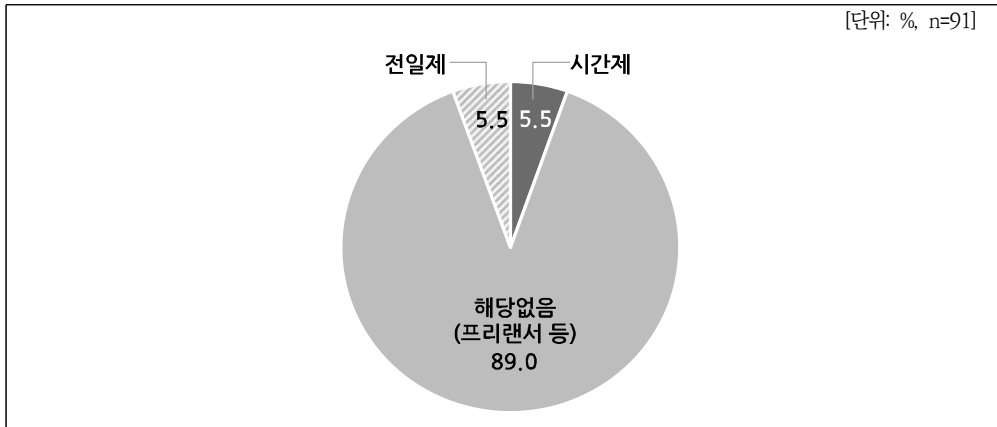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73.6%가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5] 퇴직 후 활동의 근무형태

(3) 퇴직 후 활동의 근무시간 형태

○ 50+세대의 활동 근무시간 형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가 89.0%로 나타남.



[그림 4-26] 퇴직 후 활동의 근무시간 형태

(4) 퇴직 후 활동의 월 평균 소득 만족도

○ 활동으로 발생한 월 평균 소득은 5.7만원으로 나타났고, 40.7%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1> 퇴직 후 활동의 월 평균 소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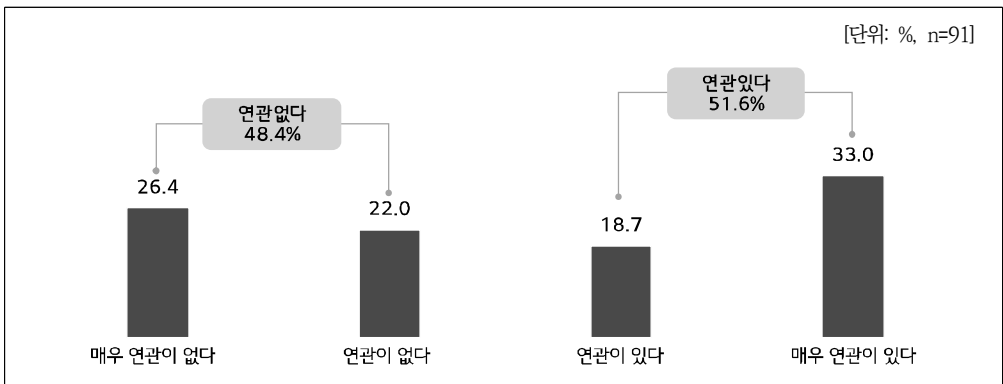
[단위: %, n=91]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91)	3.3	37.4	47.3	12.1	3.3	37.4	59.3	3.68	
성별	남성	(29)	6.9	37.9	41.4	13.8	6.9	37.9	55.2	3.62
	여성	(62)	1.6	37.1	50.0	11.3	1.6	37.1	61.3	3.71
연령	만50-54세	(31)	0.0	29.0	48.4	22.6	0.0	29.0	71.0	3.94
	만55-59세	(27)	7.4	44.4	40.7	7.4	7.4	44.4	48.1	3.48
	만60-64세	(33)	3.0	39.4	51.5	6.1	3.0	39.4	57.6	3.61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50+ 캠퍼스 권역별	서부	(9)	0.0	44.4	44.4	11.1	0.0	44.4	55.6	3.67
	중부	(5)	0.0	40.0	20.0	40.0	0.0	40.0	60.0	4.00
	남부	(24)	0.0	12.5	79.2	8.3	0.0	12.5	87.5	3.96
	동남	(32)	9.4	59.4	28.1	3.1	9.4	59.4	31.3	3.25
	북부	(5)	0.0	20.0	80.0	0.0	0.0	20.0	80.0	3.80
	동부	(16)	0.0	31.3	37.5	31.3	0.0	31.3	68.8	4.00
가구 형태	1인 가구	(1)	0.0	0.0	100.0	0.0	0.0	0.0	100.0	4.00
	1세대 가구	(28)	3.6	42.9	42.9	10.7	3.6	42.9	53.6	3.61
	2세대 가구	(62)	3.2	35.5	48.4	12.9	3.2	35.5	61.3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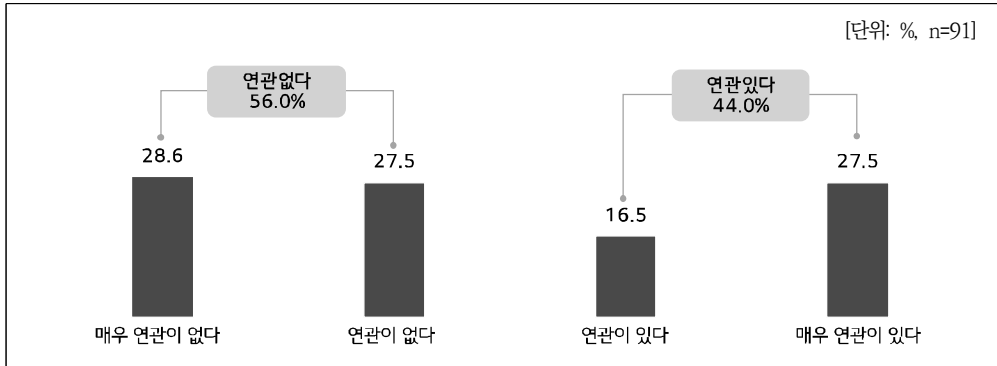
(5) 퇴직 후 활동의 경력 연관성

- 50+세대의 활동과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경력은 51.6%가 연관성이 있었고, 이들 중 33.0%는 매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애 주된 일자리와 퇴직 후 이동한 일자리의 경력연관성은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활동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와 경력연관성이 높게 나타남.



[그림 4-27]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경력 연관성

- 바로 직전 일이나 활동과의 경력 연관성은 44.0%가 연관 있다고 하였고, 이들 중 27.5%가 매우 연관 있다고 나타남.



[그림 4-28] 바로 직전 일 또는 활동과의 경력 연관성

(6) 50+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활동의 특성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현재까지 활동 경험이 있는 50+세대는 91명이었고,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월평균 5.7만원임.
- 활동형태로 봉사활동(56.0%)이 가장 많았으며, 재능기부활동(26.4%)이 뒤를 이음.
- 50+세대들이 활동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5.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0.9%로 나타남.
- 활동의 시간이나 고용형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동적임.

<표 4-12> 50+세대의 퇴직 후 활동(요약)

구 분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활동(91명)	
월 평균 소득	5.7만원	
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5%
직위	임금근로자가 아님	96.7%
	사원급	3.3%
직업	서비스종사자	20.9%
	단순노무종사자	16.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0%
근무형태	일반협회 및 단체	73.6%
	공공기관 근무	15.4%

구 분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활동(91명)	
근무시간형태	해당 없음(프리랜서 등)	89.0%
	시간제	5.5%
	전일제	5.5%
활동 상태	봉사활동	56.0%
	재능기부활동	26.4%
	공공일자리사업 활동	2.2%
고용 형태	해당 없음(프리랜서 등)	90.1%
	자영업자	4.4%

2.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과 활동 실태

1) 생애 근무 이력

- 서울시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에는 평균 19.4년 근무하고, 퇴직 후에는 평균 5.5년 근무 하여, 생애동안 평균 25.2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생애 총 근무' 기간은 평균 29.9년으로 여성(21.0년)보다 평균 8.9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됨.
 - 남녀의 근무기간 차이는 생애 주된 일자리와 퇴직 후 일자리에서도 나타나는데, 남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23.5년 근무하는 반면, 여성은 15.8년 근무함. 퇴직 후에는 남성은 평균 6.0년, 여성은 4.9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3〉 생애 근무 이력

[단위: 년(평균), n=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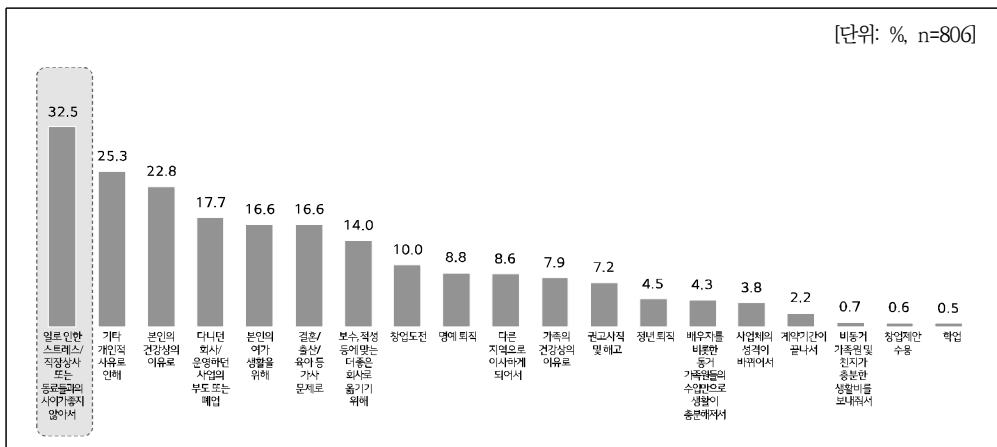
		사례수	생애 총 근무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근무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근무
전 체		(806)	25.2	19.4	5.5
성 별	남 성	(381)	29.9	23.5	6.0
	여 성	(425)	21.0	15.8	4.9
연 령	만50-54세	(254)	21.1	16.3	4.5
	만55-59세	(264)	24.9	19.1	5.5
	만60-64세	(288)	29.1	22.5	6.2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23.9	19.1	4.7
	중 부	(95)	25.0	18.2	6.6
	남 부	(242)	24.5	18.7	5.4

		사례수	생애 총 근무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근무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근무
50+ 캠퍼스 권역별	동 남	(145)	25.7	20.1	5.0
	북 부	(136)	26.0	20.6	5.2
	동 부	(120)	26.0	20.1	5.7
가구 형태	1인 가구	(44)	23.3	17.5	5.2
	1세대 가구	(230)	28.3	21.6	6.3
	2세대 가구	(527)	24.0	18.7	5.1
	3세대 가구	(3)	31.8	22.4	9.4
	비혈연 가구	(2)	24.9	20.6	3.8

2)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유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유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직장 상사 또는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가 32.5%로 가장 많았음.

- 남성은 ‘일로 인한 스트레스/직장상사 또는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순으로 높았고, 여성은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인해’, ‘일로 인한 스트레스/직장 상사 또는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순으로 높았음.
- 특히, ‘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해’가 여성이 29.9%, 남성이 1.9%로 남녀 차이가 가장 컸으며, ‘보수 적성 등에 맞는 더 좋은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창업 도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10%가량 더 많았음.
- 연령별로 보면, 모두 일로 인한 ‘스트레스/직장상사 또는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60~64세는 그 다음으로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가 많았음.



[그림 4-29]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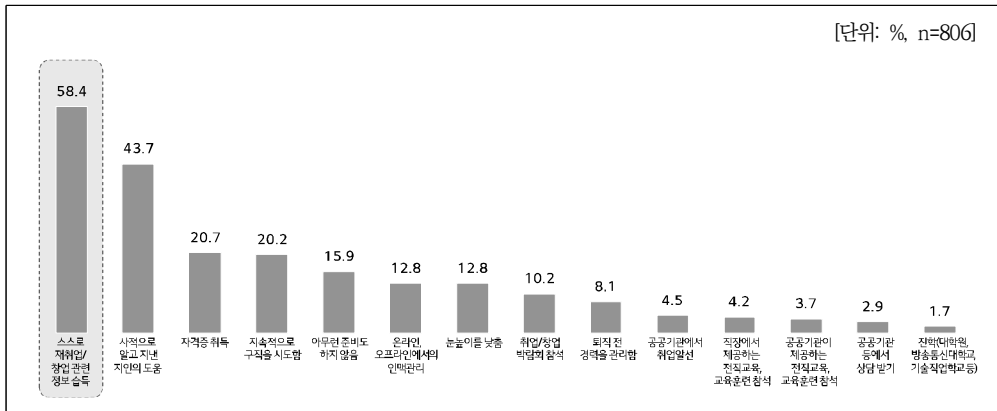
〈표 4-14〉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유

[단위: %, n=806]

구분	시례 수	일로 인한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인해	본인의 건강 상의 이유로	결혼/출신/육아 등 가사 문제로	다니던 회사/운영하던 사업의 부도 또는 폐업	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해	보수, 적성 등에 맞는 더 좋은 회사로 옮기기 위해	창업 도전	다른 지역 이사 하게 되어서	명예 퇴직	가족의 건강 상의 이유로	권고 시작 및 해고	정년 퇴직	배우자를 비롯한 동거 가족원 들의 수입만 으로 생활이 충분 해져서	사업체 성격이 바뀌어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창업 제안 수용	비동거 가족원 및 친지가 중대한 생활비를 보내 줘서	학업
		스트레스/직장 상사 또는 동료들 사이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인해	이유로	문제	부도 또는 폐업	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해	보수, 적성 등에 맞는 더 좋은 회사로 옮기기 위해	창업 도전	다른 지역 이사 하게 되어서	명예 퇴직	가족의 건강 상의 이유로	권고 시작 및 해고	정년 퇴직	배우자를 비롯한 동거 가족원 들의 수입만 으로 생활이 충분 해져서	사업체 성격이 바뀌어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창업 제안 수용	비동거 가족원 및 친지가 중대한 생활비를 보내 줘서	학업
성	전 체	32.5	25.3	22.8	17.7	16.6	16.6	14.0	10.0	8.8	8.6	7.9	7.2	4.5	4.3	3.8	2.2	0.7	0.6	0.5
	남 성	38.3	21.3	23.6	18.9	13.1	13.1	19.7	15.5	14.4	9.4	5.5	11.0	7.6	1.6	5.5	2.6	0.3	0.8	0.5
연 령	여 성	27.3	28.9	22.1	16.7	19.8	29.9	8.9	5.2	3.8	7.8	10.1	3.8	1.6	6.8	2.4	1.9	1.2	0.5	0.5
	50~54세	31.1	26.4	18.1	15.7	15.0	23.6	16.5	5.5	3.5	8.3	7.1	9.8	1.6	7.1	2.8	2.0	0.4	0.8	0.8
	55~59세	32.6	25.0	19.3	18.6	15.5	15.9	10.6	13.6	11.4	11.0	9.8	7.6	3.0	4.2	3.0	1.5	0.8	0.4	0.4
	60~64세	33.7	24.7	30.2	18.8	19.1	11.1	14.9	10.8	11.1	6.6	6.9	4.5	8.3	2.1	5.6	3.1	1.0	0.7	0.3
50+캠퍼스 권역 별	서 부	19.1	25.0	14.7	26.5	19.1	8.8	7.4	10.3	13.2	10.3	4.4	7.4	7.4	7.4	4.4	0.0	0.0	0.0	0.0
	중 부	24.2	26.3	13.7	13.7	17.9	25.3	15.8	13.7	9.5	9.5	8.4	12.6	8.4	9.5	4.2	0.0	2.1	0.0	2.1
	남 부	34.3	17.8	21.9	21.1	10.3	17.4	21.5	9.5	6.2	11.6	9.9	9.9	2.9	2.9	3.7	2.9	0.4	0.4	0.0
	동 남	37.2	31.0	23.4	11.7	21.4	15.2	5.5	11.7	6.9	4.8	8.3	3.4	3.4	2.8	4.8	2.8	2.1	2.8	0.7
	북 부	32.4	25.7	32.4	17.6	16.9	16.2	10.3	5.1	10.3	7.4	8.1	2.9	6.6	4.4	2.2	4.4	0.0	0.0	0.0
	동 부	37.5	32.5	25.0	16.7	20.8	15.0	15.8	11.7	11.7	6.7	6.7	5.0	6.7	3.3	4.2	0.8	0.0	0.0	0.0
가구 형태	1인 가구	22.7	29.5	15.9	29.5	31.8	4.5	2.3	4.5	4.5	0.0	6.8	2.3	4.5	2.3	0.0	0.0	2.3	0.0	0.0
	1세대 가구	29.1	25.7	27.0	19.6	17.0	13.0	18.3	10.0	7.4	7.4	5.2	4.3	7.0	6.1	4.8	3.0	0.9	1.3	0.9
	2세대 가구	34.5	25.0	21.6	15.9	15.4	19.4	13.1	10.4	9.5	9.9	9.3	8.9	3.4	3.8	3.6	2.1	0.6	0.4	0.4
	3세대 가구	33.3	0.0	0.0	33.3	0.0	0.0	0.0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월연 가구	(2)	100.0	0.0	50.0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3)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준비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과 활동을 위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준비한 것은 1, 2, 3순위를 통합했을 때, ‘스스로 재취업/창업 관련 정보 습득’이 58.4%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사적으로 알고 지낸 지인의 도움’이 43.7%, ‘자격증 취득’이 20.7%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스스로 재취업/창업 관련 정보 습득’, ‘사적으로 알고 지낸 지인의 도움’ 순으로 많았음.
- 다음으로 남성은 ‘지속적으로 구직을 시도함’이 23.9%로 많았고, 여성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음’이 25.9%로 많았음.
- ‘자격증 취득’은 여성이 23.8%, 남성은 17.3%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구직을 시도함’은 낮아지고(23.2%→19.7%→18.1%), ‘사적으로 알고 지낸 지인의 도움’(35.0%→47.3%→47.9%)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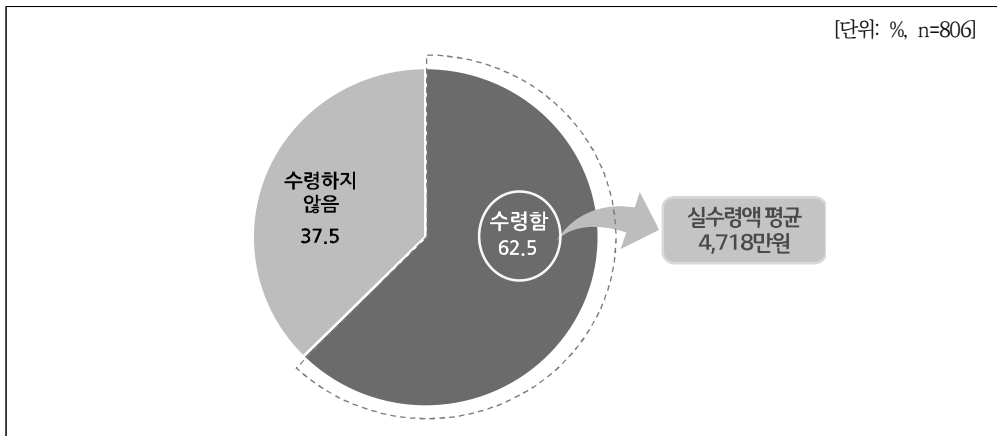


[그림 4-30]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준비 - 1+2+3순위

4) 퇴직금

(1) 퇴직금 수령 여부 및 실 수령액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중 62.5%는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평균 실 수령액은 4,718만원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 퇴직금 수령여부와 퇴직금 액수의 차이가 큼(남성: 6,326만원, 여성: 2,370만원).
- 연령이 높을수록 퇴직금 실 수령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그림 4-31] 퇴직금 수령 여부 및 실 수령액

<표 4-16> 퇴직금 수령 여부 및 실 수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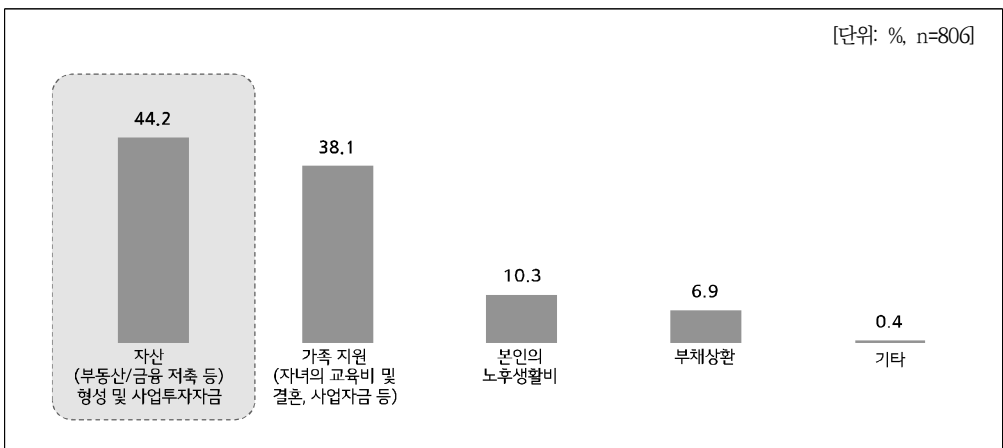
[단위: %, 만원, n=806(퇴직금 수령자=504)]

		사례 수	수령하지 않음	수령함	평균 실수령액 (만원)
전 체		(806)	37.5	62.5	4,718
성 별	남 성	(381)	26.8	73.2	6,326
	여 성	(425)	47.1	52.9	2,730
연 령	만50-54세	(254)	40.6	59.4	3,810
	만55-59세	(264)	31.1	68.9	4,844
	만60-64세	(288)	40.6	59.4	5,385

		사례 수	수령하지 않음	수령함	평균 실수령액 (만원)
50+ 캠퍼스별 권역별	서 부	(68)	29.4	70.6	5,892
	중 부	(95)	41.1	58.9	4,043
	남 부	(242)	34.3	65.7	3,985
	동 남	(145)	45.5	54.5	4,834
	북 부	(136)	45.6	54.4	5,696
	동 부	(120)	26.7	73.3	4,911
가 구 태	1인 가구	(44)	54.5	45.5	3,760
	1세대 가구	(230)	41.7	58.3	4,960
	2세대 가구	(527)	34.3	65.7	4,697
	3세대 가구	(3)	33.3	66.7	3,900
	비혈연 가구	(2)	0.0	100.0	2,550

(2) 퇴직금 사용처

- 퇴직금 사용처는 ‘자산 형성 및 사업투자자금’이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 사업자금 등과 같은 가족지원(38.1%)으로 나타남.
-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노후 생활비’가 많았음(7.3%→8.2%→15.2%)



[그림 4-32] 퇴직금 사용처

〈표 4-17〉 퇴직금 사용처

[단위: %, 만원, n=806(퇴직금 수령자=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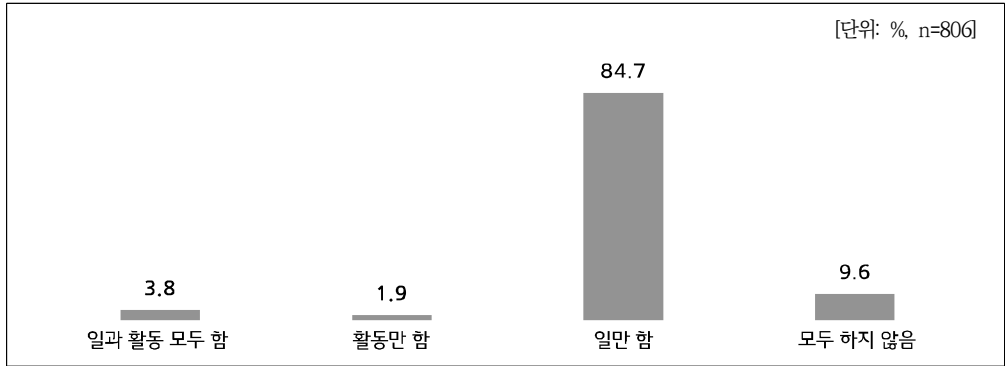
		사례 수	자산형성 및 사업투자 자금	가족지원	본인의 노후생활비	부채상환	무응답
전 체		(504)	44.2	38.1	10.3	6.9	0.4
성 별	남 성	(279)	45.5	34.8	11.5	7.9	0.4
	여 성	(225)	42.7	42.2	8.9	5.8	0.4
연 령	만50-54세	(151)	41.7	39.7	7.3	10.6	0.7
	만55-59세	(182)	49.5	37.9	8.2	3.8	0.5
	만60-64세	(171)	40.9	36.8	15.2	7.0	0.0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48)	54.2	31.3	12.5	2.1	0.0
	중 부	(56)	50.0	33.9	12.5	3.6	0.0
	남 부	(159)	37.1	39.6	10.7	12.6	0.0
	동 남	(79)	44.3	43.0	6.3	6.3	0.0
	북 부	(74)	40.5	41.9	14.9	2.7	0.0
	동 부	(88)	51.1	34.1	6.8	5.7	2.3
가 구 구 태	1인 가구	(20)	55.0	15.0	15.0	15.0	0.0
	1세대 가구	(134)	35.8	43.3	16.4	4.5	0.0
	2세대 가구	(346)	47.1	37.3	7.8	7.2	0.6
	3세대 가구	(2)	0.0	100.0	0.0	0.0	0.0
	비혈연 가구	(2)	50.0	0.0	0.0	50.0	0.0

5) 현재 일과 활동 상태

(1) 현재 일과 활동 상태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84.7%가 현재 일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근무조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여러 일자리를 거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남성은 일만 하는 경우가 91.6%로 가장 많았고, 활동만 하는 경우는 없었음. 여성 역시 일만 하는 경우가 78.6%로 가장 많았고, 활동만 하는 경우는 3.5%로 남성과 달리 여성은 높게 나타남.

- 특히, 여성은 현재 일과 활동 모두 하지 않는 경우도 14.1%로 나타나 남성(4.5%)에 비해 많음.



[그림 4-33] 현재 일과 활동 상태

<표 4-18> 현재 일과 활동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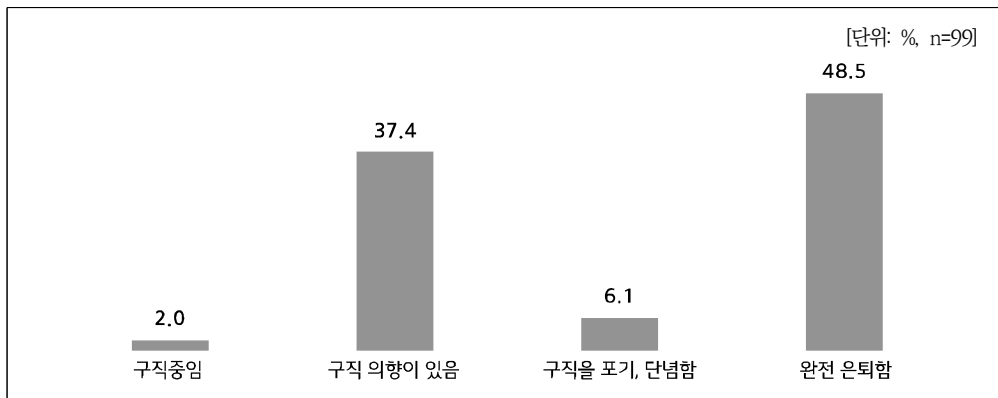
[단위: %, 만원, n=806]

		사례수	일과 활동 모두 한다	일은 하지 않지만, 활동은 한다	일은 하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일과 활동 모두 하지 않는다
전 체		(806)	3.8	1.9	84.7	9.6
성 별	남 성	(381)	3.9	0	91.6	4.5
	여 성	(425)	3.8	3.5	78.6	14.1
연 령	만50-54세	(254)	3.5	1.6	81.9	13
	만55-59세	(264)	4.5	1.9	87.5	6.1
	만60-64세	(288)	3.5	2.1	84.7	9.7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	5.9	83.8	10.3
	중 부	(95)	1.1	1.1	87.4	10.5
	남 부	(242)	2.5	2.1	88.4	7
	동 남	(145)	13.1	0	75.2	11.7
	북 부	(136)	0.7	1.5	94.9	2.9
	동 부	(120)	3.3	2.5	75.8	18.3
가 구 태	1인 가구	(44)	2.3	0	95.5	2.3
	1세대 가구	(230)	3.5	1.7	81.7	13
	2세대 가구	(527)	4.2	2.1	85.2	8.5
	3세대 가구	(3)	0	0	100	0
	비혈연 가구	(2)	0	0	50	50

(2) 현재 일 상태

○ 현재 일과 활동 모두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50+세대 중 48.5%는 '완전 은퇴', 37.4%는 '구직 의향이 있음'으로 나타남.

-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직의 의향이 높은 것(31.6%→37.5%→43.2%)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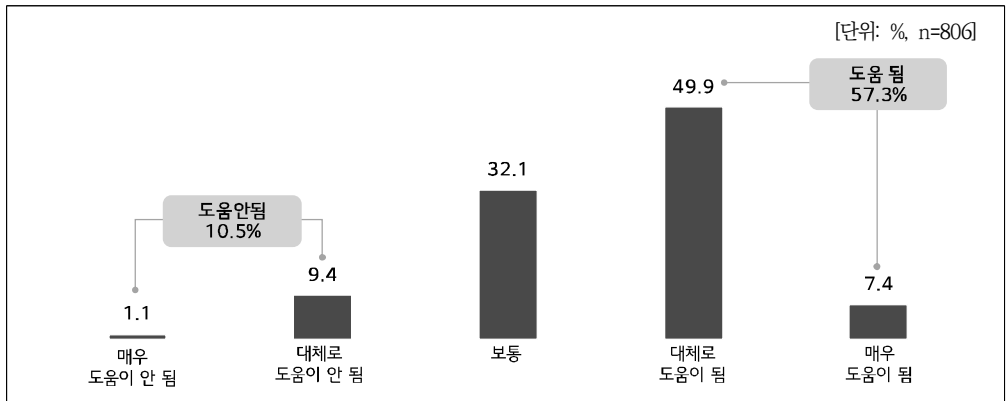
[그림 4-34] 현재 일 상태

〈표 4-19〉 현재 일 상태

		사례 수	구직중임	구직의향이 있음	구직을 포기, 단념함	완전 은퇴함	무응답
전 체		(99)	2.0	37.4	6.1	48.5	6.1
성 별	남 성	(18)	0.0	72.2	5.6	16.7	5.6
	여 성	(81)	2.5	29.6	6.2	55.6	6.2
연 령	만50-54세	(38)	2.6	31.6	5.3	52.6	7.9
	만55-59세	(24)	0.0	37.5	4.2	54.2	4.2
	만60-64세	(37)	2.7	43.2	8.1	40.5	5.4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13)	7.7	30.8	7.7	53.8	0.0
	중 부	(11)	0.0	45.5	0.0	45.5	9.1
	남 부	(24)	4.2	29.2	4.2	58.3	4.2
	동 남	(18)	0.0	50.0	0.0	27.8	22.2
	북 부	(7)	0.0	14.3	14.3	71.4	0.0
	동 부	(26)	0.0	42.3	11.5	46.2	0.0
가 구 형 태	1인 가구	(1)	0.0	100.0	0.0	0.0	0.0
	1세대 가구	(37)	2.7	45.9	8.1	40.5	2.7
	2세대 가구	(60)	1.7	30.0	5.0	55.0	8.3
	비혈연 가구	(1)	0.0	100.0	0.0	0.0	0.0

6)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활동의 소득 도움 정도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이동한 일자리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대체로 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 57.3%).
- 다만,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1인 가구에서 2세대 가구로 갈수록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4.5%→7.4%→12.3%).



[그림 4-35]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활동의 소득 도움 정도

<표 4-20>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활동의 소득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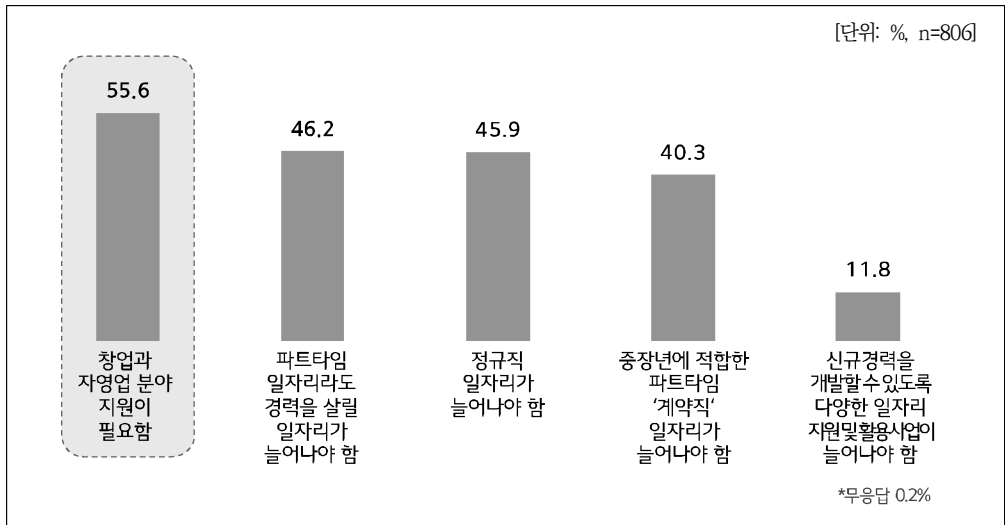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도움이 안 됨	대체로 도움이 안 됨	보통	대체로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종합평가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전 체	(806)	1.1	9.4	32.1	49.9	7.4	10.5	32.1	57.3
성 별	남 성 (381)	1.6	10.2	30.7	51.4	6.0	11.8	30.7	57.5
	여 성 (425)	0.7	8.7	33.4	48.5	8.7	9.4	33.4	57.2
연 령	만50-54세 (254)	2.4	9.1	24.4	58.7	5.5	11.4	24.4	64.2
	만55-59세 (264)	0.8	10.2	31.4	50.8	6.8	11.0	31.4	57.6
	만60-64세 (288)	0.3	9.0	39.6	41.3	9.7	9.4	39.6	51.0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1.5	13.2	25.0	60.3	0.0	14.7	25.0	60.3
	중 부 (95)	3.2	21.1	31.6	37.9	6.3	24.2	31.6	44.2
	남 부 (242)	0.8	6.2	27.7	53.7	11.6	7.0	27.7	65.3
	동 남 (145)	1.4	6.9	46.2	42.1	3.4	8.3	46.2	45.5
	북 부 (136)	0.7	8.1	30.1	54.4	6.6	8.8	30.1	61.0
	동 부 (120)	0.0	9.2	30.8	50.0	10.0	9.2	30.8	60.0

	사례 수	매우 도움이 안 됨	대체로 도움이 안 됨	보통	대체로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종합평가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가 구 태 형	1인 가구	(44)	0.0	4.5	36.4	56.8	2.3	4.5	36.4	59.1
	1세대 가구	(230)	0.4	7.0	38.7	44.3	9.6	7.4	38.7	53.9
	2세대 가구	(527)	1.5	10.8	29.2	51.6	6.8	12.3	29.2	58.4
	3세대 가구	(3)	0.0	0.0	0.0	66.7	33.3	0.0	0.0	100.0
	비혈연 가구	(2)	0.0	50.0	0.0	50.0	0.0	50.0	0.0	50.0

7) 50+세대에게 필요한 지원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에게 필요한 지원은 ‘창업과 자영업 분야의 지원’(55.6%)과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경력을 살릴 일자리 제공’(46.2%)으로 나타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는 신규 경력개발보다는 기존 경력을 활용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신규경력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 지원은 11.8%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창업과 자영업 분야 지원’, ‘정규직 일자리’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경력을 위한 일자리’, ‘창업과 자영업 분야 지원’ 순으로 많았음.
 - 여성의 경우, ‘신규 경력 개발 일자리 지원’이 16.0%로 남성 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경력단절(평균 4.8년~6.3년)로 인해 기존 경력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 자영업 지원’이 증가하고, ‘경력을 위한 일자리 증가’와 ‘신규 경력 개발 일자리 지원’은 감소하였음.



[그림 4-36] 50+ 세대에게 필요한 지원 -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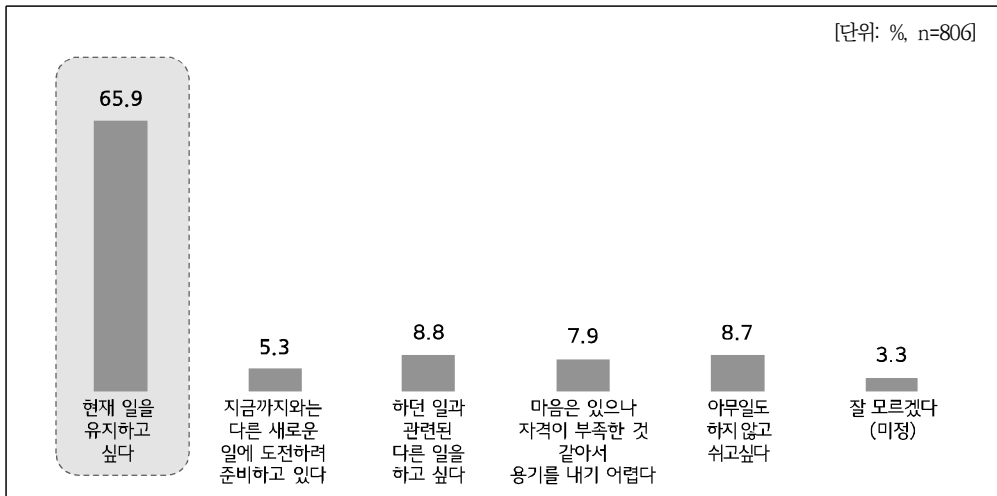
<표 4-21> 50+세대에게 필요한 지원

[단위: %, n=806]

구분		사례 수	창업, 자영업 지원	경력 위한 일자리 증가	정규직 일자리	중장년 적합 계약직 증가	신규경력 개발 일자리 지원
전 체		(806)	55.6	46.2	45.9	40.3	11.8
성 별	남 성	(381)	62.7	38.6	53.5	37.5	7.1
	여 성	(425)	49.2	52.9	39.1	42.8	16.0
연 령	5 0 ~ 5 4 세	(254)	46.5	49.6	42.1	47.2	13.8
	5 5 ~ 5 9 세	(264)	57.2	48.9	46.6	37.1	10.2
	6 0 ~ 6 4 세	(288)	62.2	40.6	48.6	37.2	11.5
50+ 캠퍼스 권 역 별	서 부	(68)	39.7	52.9	38.2	57.4	11.8
	중 부	(95)	51.6	49.5	45.3	38.9	14.7
	남 부	(242)	59.5	41.3	50.0	35.5	13.6
	동 남	(145)	56.6	52.4	44.8	38.6	6.2
	북 부	(136)	58.1	46.3	47.8	38.2	9.6
	동 부	(120)	55.8	41.7	41.7	45.8	15.0
가 구 형 태	1 인 가 구	(44)	61.4	34.1	50.0	52.3	2.3
	1 세 대 가 구	(230)	60.9	39.6	47.0	34.8	17.8
	2 세 대 가 구	(527)	52.9	50.1	45.2	41.7	9.7
	3 세 대 가 구	(3)	33.3	33.3	66.7	0.0	66.7
	비혈연 가 구	(2)	50.0	50.0	0.0	100.0	0.0

8) 다른 일에 대한 계획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65.9%는 ‘현재 일을 유지’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로 ‘하던 일과 관련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8.8%,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는 의견도 8.7%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과반 수 이상이 ‘현재 일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였고, 남성(73.5%)이 여성(59.1%)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하던 일과 관련된 다른 일을 하고 싶다’가 10.8%로 많았고, 여성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가 13.6%로 많았음.
 - 한편, ‘마음은 있으나 용기 내기가 어려움’의 경우, 여성은 9.2%, 남성은 6.6%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4-37] 다른 일에 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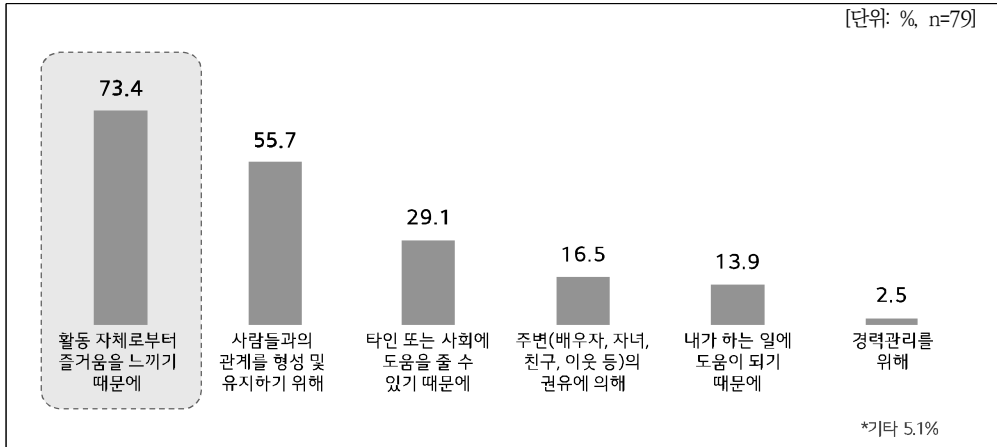
〈표 4-22〉 다른 일에 대한 계획

[단위: %, n=806]

구분		사례 수	현재 일을 유지 하고 싶음	새로운 일 준비 중	하던 일과 관련된 다른 일을 하고 싶음	마음은 있으나 용기 내기 어려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싶음	잘 모르겠다 (미정)
전 체		(806)	65.9	5.3	8.8	7.9	8.7	3.3
성 별	남 성	(381)	73.5	4.7	10.8	6.6	3.1	1.3
	여 성	(425)	59.1	5.9	7.1	9.2	13.6	5.2
연 령	50 ~ 54 세	(254)	64.2	4.7	6.7	11.4	9.4	3.5
	55 ~ 59 세	(264)	61.7	6.1	13.3	9.1	8.0	1.9
	60 ~ 64 세	(288)	71.2	5.2	6.6	3.8	8.7	4.5
50+캠퍼스 권역 별	서 부	(68)	60.3	1.5	17.6	7.4	8.8	4.4
	중 부	(95)	62.1	6.3	13.7	9.5	7.4	1.1
	남 부	(242)	69.0	8.7	5.0	6.6	7.9	2.9
	동 남	(145)	62.1	0.0	6.9	12.4	14.5	4.1
	북 부	(136)	76.5	5.9	8.1	5.1	2.9	1.5
	동 부	(120)	58.3	5.8	10.8	7.5	10.8	6.7
가 구 형 태	1 인 가 구	(44)	70.5	0.0	9.1	13.6	2.3	4.5
	1 세 대 가 구	(230)	62.2	6.1	10.0	7.0	9.6	5.2
	2 세 대 가 구	(527)	67.0	5.3	8.3	8.0	8.9	2.5
	3 세 대 가 구	(3)	100.0	0.0	0.0	0.0	0.0	0.0
	비혈연 가 구	(2)	50.0	50.0	0.0	0.0	0.0	0.0

9) 주된 활동 이유

- 50+세대의 주된 활동 이유는 활동 자체로부터 오는 즐거움(73.4%)과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55.7%)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38] 주된 활동 이유-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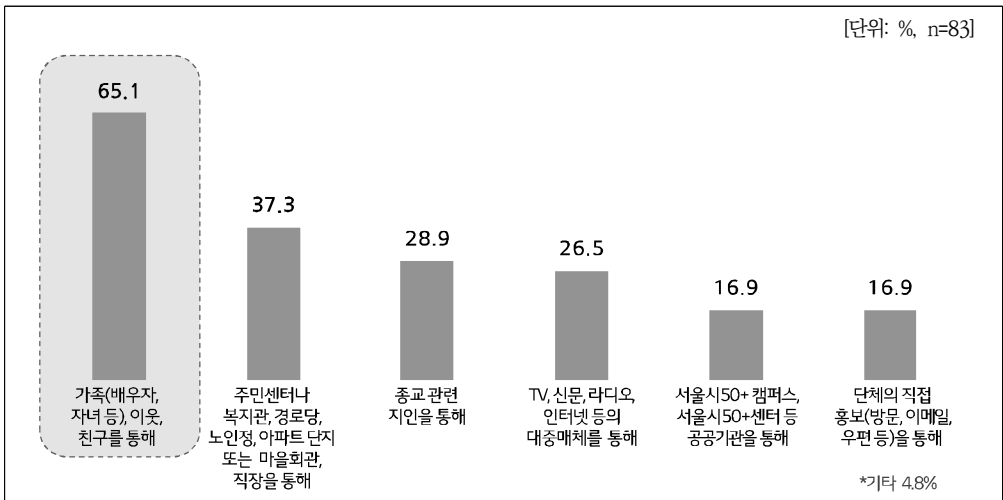
<표 4-23> 주된 활동 이유

1+2순위		사례 수	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의 권유에 의해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력관리를 위해	기타
전 체		(79)	73.4	55.7	29.1	16.5	13.9	2.5	5.1
성 별	남 성	(22)	68.2	50.0	31.8	27.3	18.2	0.0	4.5
	여 성	(57)	75.4	57.9	28.1	12.3	12.3	3.5	5.3
연 령	만50-54세	(30)	80.0	76.7	23.3	6.7	3.3	0.0	6.7
	만55-59세	(23)	56.5	30.4	30.4	30.4	39.1	0.0	8.7
	만60-64세	(26)	80.8	53.8	34.6	15.4	3.8	7.7	0.0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1)	100.0	0.0	0.0	0.0	100.0	0.0	0.0
	중 부	(5)	80.0	80.0	20.0	0.0	20.0	0.0	0.0
	남 부	(21)	71.4	71.4	14.3	14.3	14.3	4.8	4.8
	동 남	(32)	68.8	40.6	34.4	28.1	12.5	0.0	9.4
	북 부	(5)	60.0	60.0	40.0	0.0	20.0	20.0	0.0
	동 부	(15)	86.7	60.0	40.0	6.7	6.7	0.0	0.0
가 구 태	1인 가구	(1)	100.0	0.0	0.0	100.0	0.0	0.0	0.0
	1세대 가구	(24)	70.8	45.8	37.5	12.5	16.7	8.3	4.2
	2세대 가구	(54)	74.1	61.1	25.9	16.7	13.0	0.0	5.6

[단위: %, n=79]

10) 주된 활동 경로

- 50+세대의 주된 활동 경로를 살펴보면, ‘가족(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를 통해서’가 6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민 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노인정,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가 37.3%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주된 활동 경로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나, 50~54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서울시 공공기관(서울시50+캠퍼스, 50+센터 등)을 통해서(34.4%) 활동하는 경우도 나타남.



[그림 4-39] 주된 활동 경로-1+2순위

<표 4-24> 주된 활동 경로 - 1+2순위

[단위: %, n=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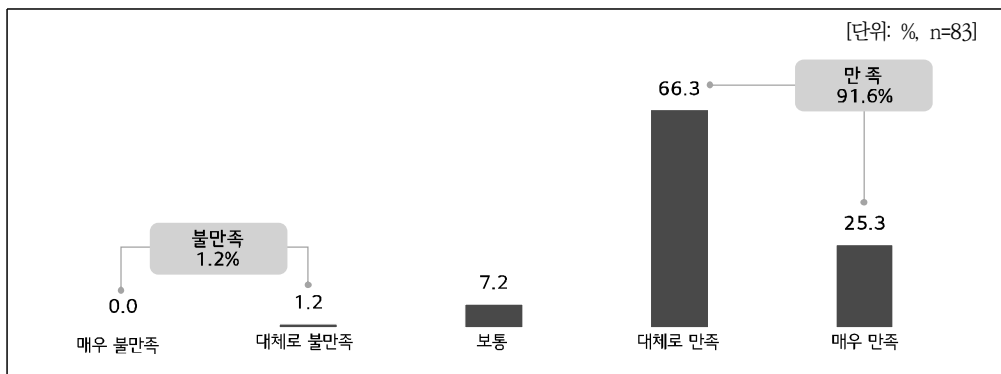
1+2순위		사례수	가족 (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를 통해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노인정,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종교 관련 지인을 통해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서울시 50+ 캠퍼스, 서울시 50+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단체의 직접 홍보 (방문, 이메일, 우편 등)를 통해	기타
전 체		(83)	65.1	37.3	28.9	26.5	16.9	16.9	4.8
성 별	남 성	(23)	69.6	43.5	26.1	13.0	17.4	26.1	4.3
	여 성	(60)	63.3	35.0	30.0	31.7	16.7	13.3	5.0

1+2순위		사례수	가족 (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를 통해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노인정,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종교 관련 지인을 통해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 체를 통해	서울시 50+ 캠퍼스, 서울시 50+센터 등 공공 기관을 통해	단체의 직접 홍보 (방문, 이메일, 우편 등)를 통해	기타
연령	만50-54세	(32)	75.0	34.4	21.9	12.5	34.4	15.6	3.1
	만55-59세	(24)	45.8	41.7	25.0	41.7	4.2	25.0	8.3
	만60-64세	(27)	70.4	37.0	40.7	29.6	7.4	11.1	3.7
50+ 캠퍼스 권역별	서부	(2)	100.0	0.0	0.0	50.0	50.0	0.0	0.0
	중부	(6)	66.7	33.3	16.7	33.3	50.0	0.0	0.0
	남부	(21)	52.4	57.1	28.6	19.0	9.5	28.6	0.0
	동남	(34)	64.7	29.4	35.3	29.4	8.8	14.7	11.8
	북부	(5)	40.0	60.0	20.0	20.0	0.0	60.0	0.0
	동부	(15)	86.7	26.7	26.7	26.7	33.3	0.0	0.0
가구 형태	1인 가구	(1)	100.0	0.0	0.0	100.0	0.0	0.0	0.0
	1세대 가구	(26)	80.8	26.9	30.8	38.5	3.8	15.4	3.8
	2세대 가구	(56)	57.1	42.9	28.6	19.6	23.2	17.9	5.4

11) 활동 만족도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활동을 하는 50+세대의 91.6%는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매우 적음(월 평균 약 5.7만원)에도 불구하고 활동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활동을 하는 50+세대에게 소득 비중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40] 활동 만족도

〈표 4-25〉 활동 만족도

[단위: %, n=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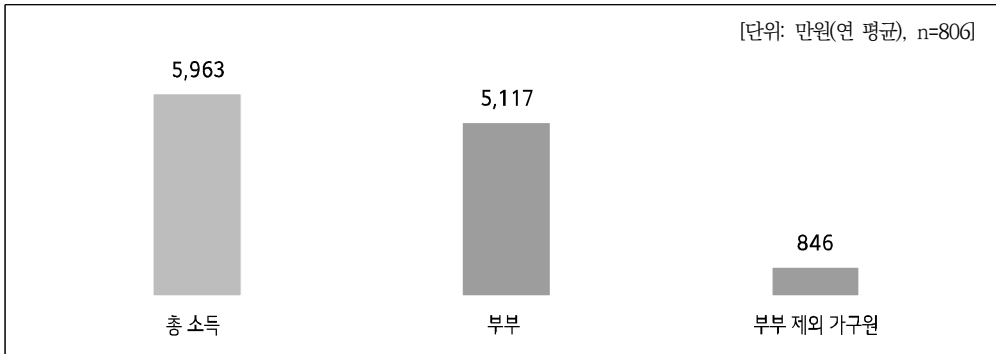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3)	0.0	1.2	7.2	66.3	25.3	1.2	7.2	91.6
성 별	남 성	(23)	0.0	0.0	0.0	73.9	26.1	0.0	0.0	100.0
	여 성	(60)	0.0	1.7	10.0	63.3	25.0	1.7	10.0	88.3
연 령	만50-54세	(32)	0.0	0.0	3.1	59.4	37.5	0.0	3.1	96.9
	만55-59세	(24)	0.0	0.0	8.3	70.8	20.8	0.0	8.3	91.7
	만60-64세	(27)	0.0	3.7	11.1	70.4	14.8	3.7	11.1	85.2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2)	0.0	0.0	0.0	50.0	50.0	0.0	0.0	100.0
	중 부	(6)	0.0	0.0	16.7	33.3	50.0	0.0	16.7	83.3
	남 부	(21)	0.0	0.0	4.8	85.7	9.5	0.0	4.8	95.2
	동 남	(34)	0.0	0.0	2.9	67.6	29.4	0.0	2.9	97.1
	북 부	(5)	0.0	0.0	20.0	60.0	20.0	0.0	20.0	80.0
가 구 구 태	동 부	(15)	0.0	6.7	13.3	53.3	26.7	6.7	13.3	80.0
	1 인 가 구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 세대 가 구	(26)	0.0	3.8	15.4	65.4	15.4	3.8	15.4	80.8
	2 세대 가 구	(56)	0.0	0.0	3.6	66.1	30.4	0.0	3.6	96.4

제2절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경제적 실태

1. 소득

1) 가구소득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서울시 50+세대의 가구소득은 연 평균 5,963만원으로 조사됨. 이 중, 부부의 연 평균 소득은 5,117만원, 부부 제외 가구원의 연 평균 소득은 846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4-41] 가구소득

- <표 4-26>은 본 조사결과와 2018년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연평균 소득을 비교한 것임.
 - 소득수준을 해석함에 있어 표본 및 소득 구성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차이를 감안해야 함.
 - 서울복지실태조사(2018년)의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조사의 가구소득은 근로·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서 서울복지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26〉 연평균 가구소득 비교

[단위: 만원]

	본 조사	2018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가구	50~64세 중장년세대 가구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계속 근무중인 50+세대 가구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후, 재취업, 창업, 구직중인 50+세대 가구
총 가구소득	5,963	5,524	5,812	5,153

주) * 원자료: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2018), 「2018년 서울복지실태조사」데이터, 금융소득은 제외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부의 소득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50-54세: 5,857만원, 55-59세: 5,276만원, 60-64세: 4,31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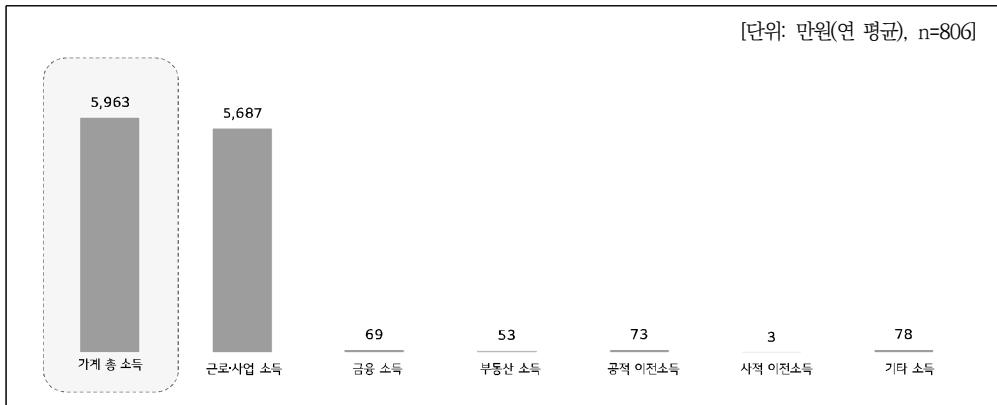
〈표 4-27〉 가구소득

[단위: 만원(연 평균), n=806]

		사례 수	현재(평균)	부부(평균)	부부 제외(평균)
전 체		(806)	5,963	5,117	846
성 별	남 성	(381)	5,730	4,867	862
	여 성	(425)	6,172	5,340	832
연 령	만50-54세	(254)	6,410	5,857	553
	만55-59세	(264)	6,416	5,276	1,141
	만60-64세	(288)	5,153	4,318	835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5,740	5,203	538
	중 부	(95)	5,606	4,726	880
	남 부	(242)	5,607	4,781	826
	동 남	(145)	5,745	4,820	925
	북 부	(136)	6,803	5,642	1,161
	동 부	(120)	6,399	5,818	581
가 구 태	1인 가구	(44)	3,056	3,004	52
	1세대 가구	(230)	4,986	4,767	219
	2세대 가구	(527)	6,641	5,447	1,193
	3세대 가구	(3)	5,680	5,600	80
	비혈연 가구	(2)	4,011	4,011	-

2) 유형별 가구소득

-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사업소득이 연평균 5,687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95.37%를 차지함.
- 그 외에 금융소득은 1.16%, 부동산소득은 0.89%, 공적이전소득은 1.22%, 사적이전소득은 0.05%, 기타소득은 1.31%로 나타남.



[그림 4-42] 유형별 가구소득

<표 4-28> 유형별 가구소득 구성비

[단위: 만원, %]

	근로·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총 가구소득
평균액	5,687	69	53	73	3	78	5,963
구성비	95.37	1.16	0.89	1.22	0.05	1.3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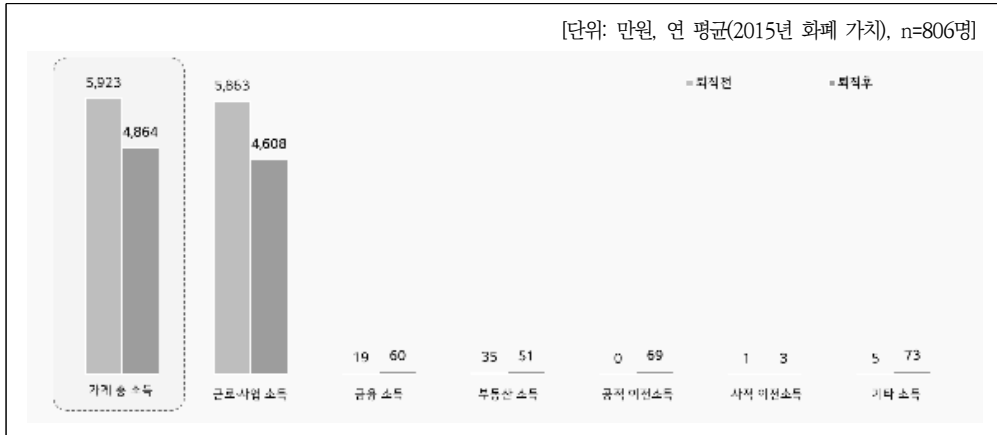
〈표 4-29〉 유형별 가구소득

[단위: 만원(연 평균), n=806]

		사례 수	가계 총소득	근로/사업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기타소득
전 체		(806)	5,963	5,687	69	53	73	3	78
성 별	남 성	(381)	5,730	5,440	74	28	49	2	137
	여 성	(425)	6,172	5,908	64	76	95	4	25
연 령	만50-54세	(254)	6,410	6,273	43	17	7	0	70
	만55-59세	(264)	6,416	6,229	70	39	8	2	68
	만60-64세	(288)	5,153	4,675	90	99	192	6	93
50+ 캠퍼스별 권역	서 부	(68)	5,740	5,385	0	26	329	0	0
	중 부	(95)	5,606	5,593	1	3	9	0	0
	남 부	(242)	5,607	5,240	101	73	49	3	141
	동 남	(145)	5,745	5,505	57	48	55	7	73
	북 부	(136)	6,803	6,507	48	71	53	0	124
	동 부	(120)	6,399	6,126	133	54	75	4	6
가 형 구 태	1인 가구	(44)	3,056	2,971	0	19	58	8	0
	1세대 가구	(230)	4,986	4,475	121	111	155	7	116
	2세대 가구	(527)	6,641	6,450	52	31	39	0	68
	3세대 가구	(3)	5,680	5,600	0	0	80	0	0
	비혈연 가구	(2)	4,011	4,000	6	0	0	5	0

3)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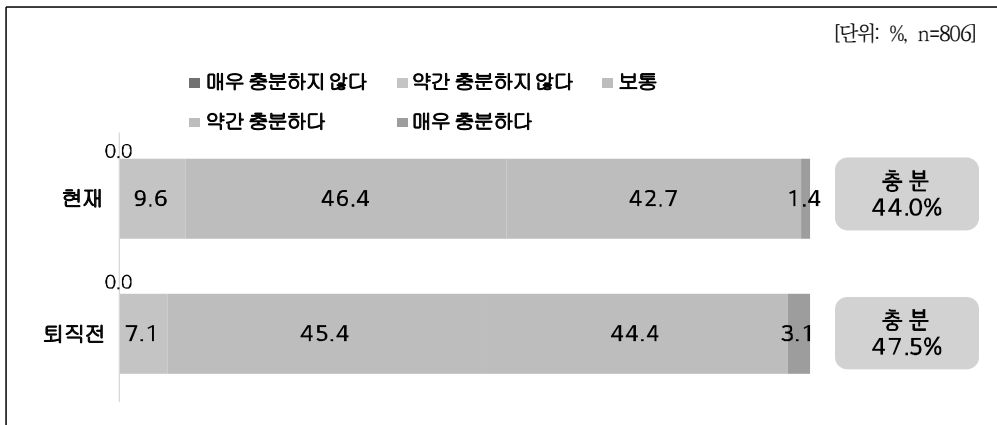
- 서울시 50+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년도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퇴직 전·퇴직 후의 화폐가치가 현재가치와 다르게 측정됨. 따라서 퇴직 전·후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화폐가치가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고시한 2015년 화폐가치(2015년=100)로 변환하여 분석함.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퇴직 후의 가계 연 평균 총 소득은 퇴직 전에 비해 1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근로·사업소득은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5,863만원에서 퇴직 후 4,608만원으로 21.4%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그림 4-43]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소득 변화

4) 소득의 충분성

○ 서울시 50+세대에게 퇴직 전·후의 소득 충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분하다 (약간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47.5%, 퇴직 후(현재) 44.0%로 나타남.



[그림 4-44] 소득의 충분성

〈표 4-30〉 소득의 충분성(퇴직 전)

[단위: %, n=806]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806)	0.0	7.1	45.4	44.4	3.1	7.1	45.4	47.5	
성 별	남 성	(381)	0.0	8.9	45.1	40.9	5.0	8.9	45.1	45.9
	여 성	(425)	0.0	5.4	45.6	47.5	1.4	5.4	45.6	48.9
연 령	만50-54세	(254)	0.0	8.3	47.2	42.5	2.0	8.3	47.2	44.5
	만55-59세	(264)	0.0	9.5	50.4	37.5	2.7	9.5	50.4	40.2
	만60-64세	(288)	0.0	3.8	39.2	52.4	4.5	3.8	39.2	56.9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1.5	35.3	58.8	4.4	1.5	35.3	63.2
	중 부	(95)	0.0	17.9	45.3	31.6	5.3	17.9	45.3	36.8
	남 부	(242)	0.0	7.4	49.6	43.0	0.0	7.4	49.6	43.0
	동 남	(145)	0.0	6.2	48.3	37.9	7.6	6.2	48.3	45.5
	북 부	(136)	0.0	2.2	45.6	49.3	2.9	2.2	45.6	52.2
	동 부	(120)	0.0	7.5	39.2	51.7	1.7	7.5	39.2	53.3
가 구 구 태	1인 가구	(44)	0.0	4.5	27.3	59.1	9.1	4.5	27.3	68.2
	1세대 가구	(230)	0.0	8.7	43.9	47.4	0.0	8.7	43.9	47.4
	2세대 가구	(527)	0.0	6.5	47.4	42.1	4.0	6.5	47.4	46.1
	3세대 가구	(3)	0.0	0.0	66.7	33.3	0.0	0.0	66.7	33.3
	비혈연 가구	(2)	0.0	50.0	50.0	0.0	0.0	50.0	50.0	0.0

〈표 4-31〉 소득의 충분성(현재)

[단위: %, n=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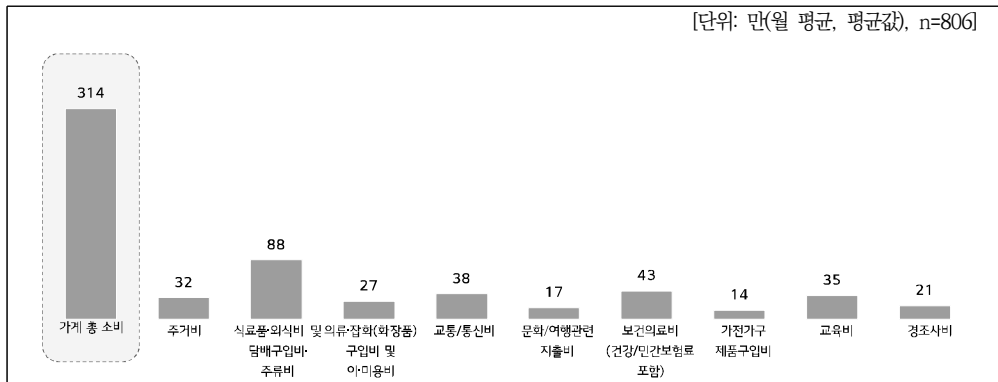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806)	0.0	9.6	46.4	42.7	1.4	9.6	46.4	44.0	
성 별	남 성	(381)	0.0	10.5	50.7	37.8	1.0	10.5	50.7	38.8
	여 성	(425)	0.0	8.7	42.6	47.1	1.6	8.7	42.6	48.7
연 령	만50-54세	(254)	0.0	8.7	48.8	40.6	2.0	8.7	48.8	42.5
	만55-59세	(264)	0.0	11.4	45.1	42.0	1.5	11.4	45.1	43.6
	만60-64세	(288)	0.0	8.7	45.5	45.1	0.7	8.7	45.5	45.8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2.9	45.6	50.0	1.5	2.9	45.6	51.5
	중 부	(95)	0.0	18.9	46.3	33.7	1.1	18.9	46.3	34.7
	남 부	(242)	0.0	11.2	37.6	50.0	1.2	11.2	37.6	51.2
	동 남	(145)	0.0	10.3	59.3	28.3	2.1	10.3	59.3	30.3
	북 부	(136)	0.0	5.9	43.4	48.5	2.2	5.9	43.4	50.7
	동 부	(120)	0.0	5.8	52.5	41.7	0.0	5.8	52.5	41.7
가 구 구 태	1인 가구	(44)	0.0	20.5	56.8	18.2	4.5	20.5	56.8	22.7
	1세대 가구	(230)	0.0	14.8	42.2	41.7	1.3	14.8	42.2	43.0
	2세대 가구	(527)	0.0	6.3	47.2	45.4	1.1	6.3	47.2	46.5
	3세대 가구	(3)	0.0	0.0	66.7	33.3	0.0	0.0	66.7	33.3
	비혈연 가구	(2)	0.0	50.0	50.0	0.0	0.0	50.0	50.0	0.0

2. 소비

1) 가계 소비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가구가 지출한 월 평균 생활비는 314만원임.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항목으로 ‘식료품·외식비·담배구입비·주류비’가 8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비’(43만원), ‘교통·통신비’(38만원), ‘교육비’(35만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45] 가계 소비

<표 4-32> 가계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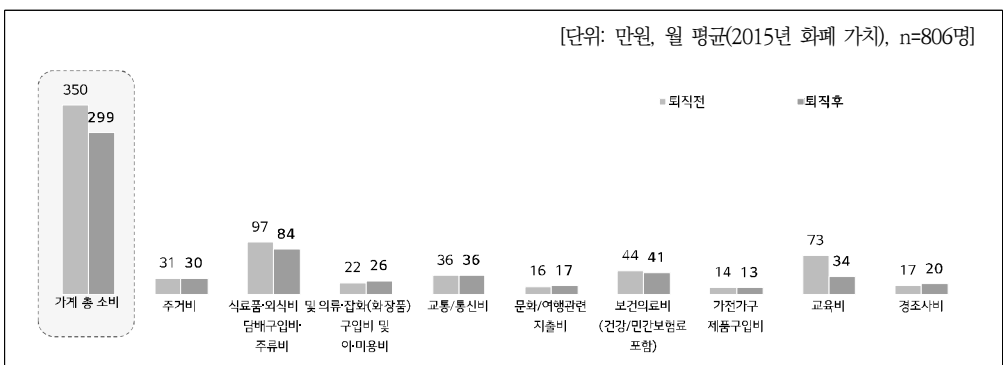
		사례수	가계 총소비	주거비	식료품/외식비/담배구입비/주류비	의류/잡화(화장품)구입비 및 미용비	교통통신	문화여행관련	보건의료	가전가구제품	교육비	경조사비
전 체		(806)	314	32	88	27	38	17	43	14	35	21
성 별	남 성	(381)	316	32	88	23	39	18	46	14	35	21
	여 성	(425)	313	32	88	31	37	17	40	13	36	21
연 령	만50-54세	(254)	364	32	97	25	40	18	48	14	68	20
	만55-59세	(264)	343	35	90	37	42	19	46	15	35	23
	만60-64세	(288)	245	29	78	20	32	15	35	11	7	19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333	40	97	28	46	20	24	17	35	26
	중 부	(95)	295	33	83	21	39	15	36	15	34	20
	남 부	(242)	285	30	82	33	31	14	42	8	32	14

		사례수	가계 총소비	주거비	식료품/외식비/담배구입비/주류비	의류/잡화(화장품)구입비 및 이미용비	교통통신	문화여행관련	보건의료	가전가구제품	교육비	경조사비
50+ 캠퍼스 권역별	동 남	(145)	338	35	84	24	39	22	53	18	43	20
	북 부	(136)	332	29	100	27	44	18	46	16	30	24
	동 부	(120)	330	30	92	25	37	18	43	15	41	30
가형 구태	1인 가구	(44)	174	23	51	10	21	9	25	7	7	21
	1세대 가구	(230)	259	31	74	34	31	15	37	10	9	19
	2세대 가구	(527)	349	33	97	26	42	19	47	16	49	22
	3세대 가구	(3)	493	60	83	43	60	30	60	43	83	30
	비혈연 가구	(2)	299	53	70	23	60	12	24	10	40	8

2)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소비 변화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소비를 비교한 결과, 퇴직 후의 ‘가계 월 평균 총 소비’는 퇴직 전에 비해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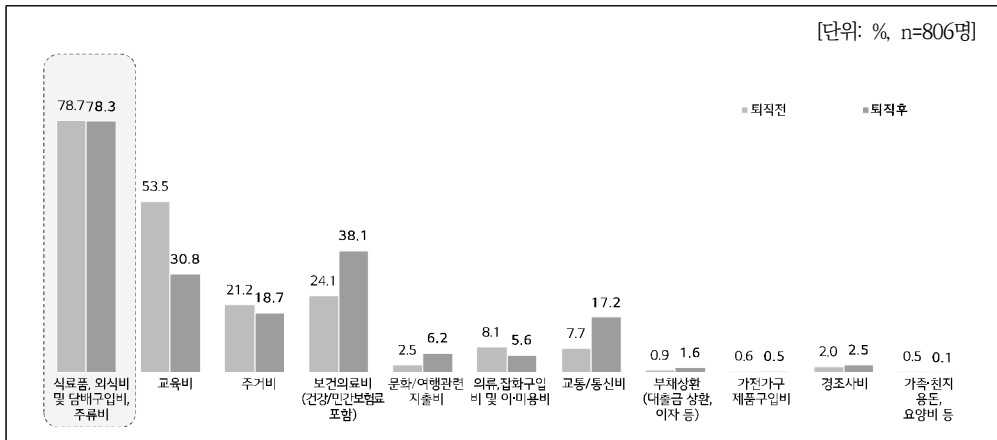
- 특히, ‘교육비’는 퇴직 전 73만원에서 퇴직 후 34만원으로 53.4% 감소하여 가장 큰 폭 하락하였으며, ‘식료품·외식비 및 담배구입비·주류비’ 또한 97만원에서 84만원으로 감소함.



[그림 4-46]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소비 변화

3)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50+세대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은 ‘식료품, 외식비 및 담배구입비, 주류비’(퇴직 전 78.7%, 퇴직 후 78.3%)로 나타남.
- 퇴직 후에는 ‘교육비’ 부담 정도가 22.7%p 하락한 반면, ‘보건의료비’와 ‘교통/통신비’에 대한 부담은 각각 14.0%p, 9.5%p 상승하였음.



[그림 4-47]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지출 비중 변화

[표 4-33]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퇴직 전)

[단위: %, n=806명]

1+2순위		사례수	식료품, 외식비 및 담배구입비, 주류비	교육비	보건 의료비 (건강/민간 보험료 포함)	주거비	의류, 잡화 구입비 및 이미용비	교통/통신비	문화/여행관련 지출비	경조사비
전 체		(806)	78.7	53.5	24.1	21.2	8.1	7.7	2.5	2.0
성 별	남 성	(381)	75.1	62.5	23.1	18.4	6.3	7.6	2.1	2.1
	여 성	(425)	81.9	45.4	24.9	23.8	9.6	7.8	2.8	1.9
연 령	만50-54세	(254)	76.8	61.0	16.5	19.3	9.1	9.4	3.5	1.6
	만55-59세	(264)	73.9	53.4	28.4	24.6	8.7	5.3	2.7	0.0
	만60-64세	(288)	84.7	46.9	26.7	19.8	6.6	8.3	1.4	4.2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66.2	63.2	7.4	42.6	5.9	4.4	0.0	1.5
	중 부	(95)	83.2	44.2	20.0	30.5	5.3	11.6	2.1	1.1
	남 부	(242)	81.8	51.7	30.2	21.5	7.9	4.5	1.2	0.0

1+2순위		사례수	식료품, 외식비 및 담배 구입비, 주류비	교육비	보건 의료비 (건강/민간 보험료 포함)	주거비	의류, 잡화 구입비 및 이미용비	교통/통신비	문화/여행관련 지출비	경조사비
50+ 캠퍼스 권역별	동 남	(145)	77.2	61.4	17.2	17.2	11.7	8.3	3.4	0.7
	북 부	(136)	79.4	59.6	20.6	11.8	5.1	11.0	2.2	7.4
	동 부	(120)	76.7	42.5	36.7	16.7	10.8	8.3	5.8	2.5
가 구 태	1인 가구	(44)	84.1	20.5	45.5	29.5	0.0	20.5	0.0	0.0
	1세대 가구	(230)	77.0	45.2	33.5	21.7	10.9	6.5	2.2	1.3
	2세대 가구	(527)	79.3	59.6	18.2	20.1	7.6	7.2	2.8	2.5
	3세대 가구	(3)	66.7	66.7	0.0	33.3	0.0	0.0	0.0	0.0
	비혈연 가구	(2)	0.0	100.0	50.0	5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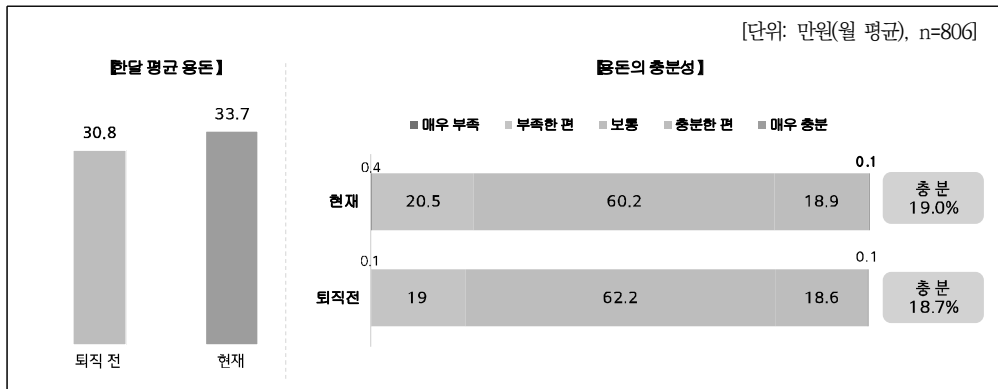
〈표 4-34〉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현재)

[단위: %, n=806명]

1+2순위		사례수	식료품, 외식비 및 담배 구입비, 주류비	보건 의료비 (건강/민간 보험료 포함)	교육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문화/여행관련 지출비	의류, 잡화 구입비 및 이미용비	경조사비
전 체		(806)	78.3	38.1	30.8	18.7	17.2	6.2	5.6	2.5
성 별	남 성	(381)	77.2	39.9	29.4	17.1	17.3	7.3	6.3	1.8
	여 성	(425)	79.3	36.5	32.0	20.2	17.2	5.2	4.9	3.1
연 령	만50-54세	(254)	75.2	27.6	57.1	16.9	12.6	3.5	3.1	0.8
	만55-59세	(264)	73.5	37.9	31.4	19.3	19.3	5.7	7.6	2.7
	만60-64세	(288)	85.4	47.6	6.9	19.8	19.4	9.0	5.9	3.8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80.9	8.8	39.7	36.8	16.2	8.8	4.4	1.5
	중 부	(95)	76.8	30.5	35.8	22.1	18.9	5.3	2.1	4.2
	남 부	(242)	77.3	52.5	25.6	17.4	12.8	2.9	7.4	3.3
	동 남	(145)	80.7	33.1	33.8	18.6	13.8	6.9	4.1	2.8
	북 부	(136)	83.8	33.8	27.2	12.5	27.2	8.8	5.1	0.7
가 구 태	동 부	(120)	70.8	42.5	32.5	15.8	18.3	8.3	7.5	1.7
	1인 가구	(44)	81.8	45.5	2.3	36.4	31.8	0.0	0.0	2.3
	1세대 가구	(230)	81.3	52.6	7.8	21.7	17.8	3.9	8.3	3.9
	2세대 가구	(527)	77.0	31.3	43.1	15.9	15.7	7.8	4.6	1.7
	3세대 가구	(3)	66.7	0.0	33.3	0.0	0.0	0.0	66.7	33.3
비혈연 가구	(2)	0.0	50.0	50.0	50.0	50.0	0.0	0.0	0.0	

4) 용돈

○ 한 달 평균 용돈은 퇴직 전 30.8만원, 퇴직 후 33.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50+세대는 퇴직 전·후로 각각 18.7%, 19.0%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8] 한 달 평균 용돈 및 용돈의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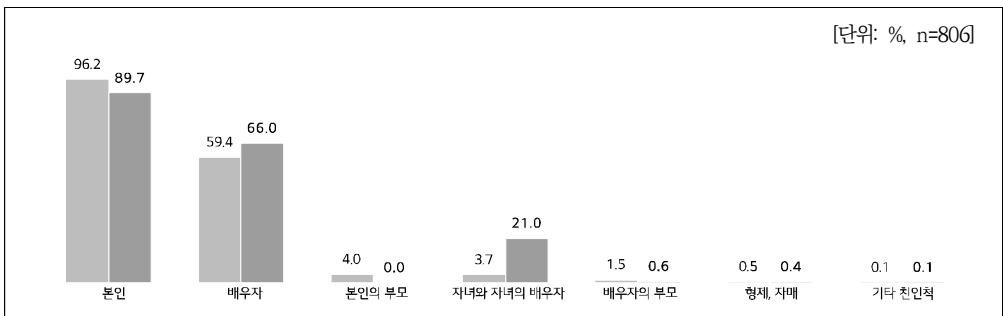
[표 4-35] 한 달 평균 용돈 및 용돈의 충분성

[단위: 만원(월 평균), n=806]

	사례 수	한 달 평균 용돈		용돈의 충분성(100점 평균)	
		퇴직 전	현재	퇴직 전	현재
전 체	(806)	30.8	33.7	49.9	49.5
성 별	남 성 (381)	35.4	38.2	49.0	48.3
	여 성 (425)	26.8	29.7	50.8	50.5
연 령	만50-54세 (254)	29.7	33.6	51.0	49.7
	만55-59세 (264)	30.1	37.6	48.2	49.4
	만60-64세 (288)	32.5	30.2	50.5	49.3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30.5	30.0	50.7	50.0
	중 부 (95)	28.7	31.7	48.4	46.1
	남 부 (242)	28.8	36.7	47.0	50.8
	동 남 (145)	30.4	29.5	51.7	46.7
	북 부 (136)	29.3	32.3	52.9	51.8
	동 부 (120)	39.1	38.2	50.8	49.8
가 구 태	1인 가구 (44)	26.5	24.1	55.1	51.7
	1세대 가구 (230)	30.8	33.1	46.4	47.2
	2세대 가구 (527)	31.2	34.6	51.1	50.3
	3세대 가구 (3)	31.7	66.7	33.3	50.0
	비혈연 가구 (2)	35.0	38.0	37.5	37.5

5) 생활비 부담자

- 주된 생활비 부담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이나 퇴직 후에 모두 50+세대 본인(퇴직 전 96.2%, 퇴직 후 89.7%)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퇴직 후에는 ‘본인’의 부담이 줄어들며 ‘배우자’(퇴직 전 59.4%, 퇴직 후 66.0%)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퇴직 전 3.7%, 퇴직 후 21.0%)가 부담하는 정도가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4-49] 생활비 부담자 - 1+2+3순위

<표 4-36> 생활비 부담자(퇴직 전)

[단위: %, n=806]

1순위		사례 수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기타 친인척
전 체		(806)	96.2	59.4	4.0	3.7	1.5	0.5	0.1
성 별	남 성	(381)	99.7	46.5	0.8	3.7	0.5	0.0	0.0
	여 성	(425)	92.9	71.1	6.8	3.8	2.4	0.9	0.2
연 령	만50-54세	(254)	95.7	65.7	6.3	2.0	0.8	0.8	0.0
	만55-59세	(264)	95.5	55.3	4.5	3.8	1.1	0.4	0.4
	만60-64세	(288)	97.2	57.6	1.4	5.2	2.4	0.3	0.0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97.1	66.2	2.9	8.8	0.0	2.9	0.0
	중 부	(95)	98.9	46.3	0.0	4.2	5.3	2.1	0.0
	남 부	(242)	95.0	59.1	4.5	2.1	2.1	0.0	0.0
	동 남	(145)	94.5	55.2	4.1	3.4	1.4	0.0	0.7
	북 부	(136)	97.1	65.4	3.7	2.2	0.0	0.0	0.0
	동 부	(120)	96.7	65.0	6.7	5.8	0.0	0.0	0.0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4)	95.5	20.5	2.3	13.6	0.0	0.0	0.0
	1세대 가구	(230)	94.8	57.8	3.0	3.0	1.7	1.3	0.0

1순위		사례 수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기타 친인척
가 구 태 형	2세대 가구	(527)	96.8	63.8	4.6	3.2	1.5	0.2	0.2
	3세대 가구	(3)	100.0	33.3	0.0	0.0	0.0	0.0	0.0
	비혈연 가구	(2)	100.0	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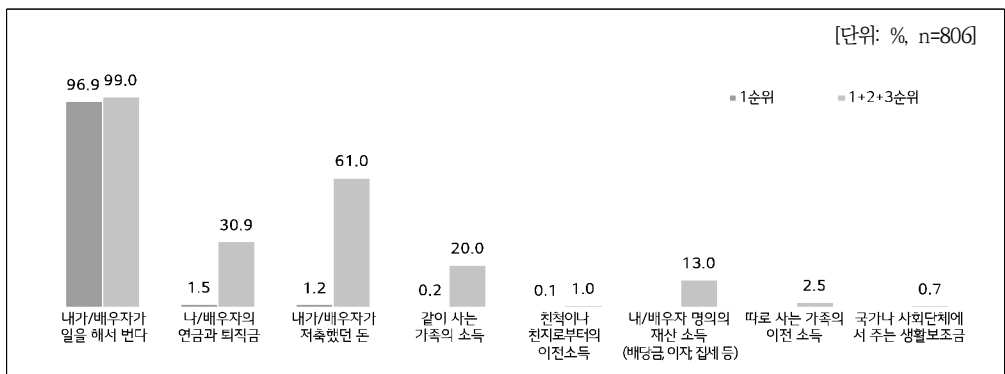
〈표 4-37〉 생활비 부담자(현재)

[단위: %, n=806]

1순위		사례 수	본인	배우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기타 친인척	기타
전 체		(806)	89.7	66.0	22.5	0.6	0.4	0.1	0.1
성 별	남 성	(381)	98.4	48.0	21.0	0.5	0.3	0.3	0.0
	여 성	(425)	81.9	82.1	23.8	0.7	0.5	0.0	0.2
연 령	만50-54세	(254)	91.7	78.3	16.5	0.8	0.8	0.0	0.0
	만55-59세	(264)	89.8	58.3	29.2	0.8	0.4	0.4	0.4
	만60-64세	(288)	87.8	62.2	21.5	0.3	0.0	0.0	0.0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88.2	69.1	25.0	0.0	2.9	0.0	0.0
	중 부	(95)	94.7	57.9	14.7	2.1	0.0	0.0	0.0
	남 부	(242)	90.5	63.2	19.4	0.8	0.0	0.4	0.4
	동 남	(145)	89.0	66.9	25.5	0.7	0.0	0.0	0.0
	북 부	(136)	87.5	75.0	25.7	0.0	0.7	0.0	0.0
	동 부	(120)	88.3	65.0	25.8	0.0	0.0	0.0	0.0
가 구 태 형	1인 가구	(44)	102.3	4.5	18.2	0.0	0.0	0.0	0.0
	1세대 가구	(230)	83.5	64.8	9.1	0.9	0.9	0.4	0.4
	2세대 가구	(527)	91.3	71.9	28.7	0.6	0.2	0.0	0.0
	3세대 가구	(3)	100.0	66.7	0.0	0.0	0.0	0.0	0.0
	비혈연 가구	(2)	100.0	0.0	50.0	0.0	0.0	0.0	0.0

6)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

-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은 ‘내가/배우자가 일을 해서 번다’는 경우가 96.9%로 가장 많았음(1순위 기준).
- 그 외에 1+2+3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가/배우자가 저축했던 돈’(61.0%), ‘나/배우자의 연금과 퇴직금’(30.9%), ‘내/배우자 명의의 재산 소득’(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50]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

<표 4-38> 주된 생활비 마련방법(1순위)

[단위: %, n=806]

1순위		사례수	내가/ 배우자가 일을 해서 번다	나/배우자의 연금과 퇴직금	내가/ 배우자가 저축했던 돈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	친척이나 친지로부터의 이전소득
전 체		(806)	96.9	1.5	1.2	0.2	0.1
성 별	남 성	(381)	96.9	0.8	2.4	0.0	0.0
	여 성	(425)	96.9	2.1	0.2	0.5	0.2
연 령	만50-54세	(254)	98.0	0.0	0.8	0.8	0.4
	만55-59세	(264)	97.3	1.9	0.8	0.0	0.0
	만60-64세	(288)	95.5	2.4	2.1	0.0	0.0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91.2	4.4	4.4	0.0	0.0
	중 부	(95)	100.0	0.0	0.0	0.0	0.0
	남 부	(242)	96.3	2.1	0.8	0.8	0.0
	동 남	(145)	97.9	0.0	1.4	0.0	0.7
	북 부	(136)	98.5	0.7	0.7	0.0	0.0
동 부	(120)	95.8	2.5	1.7	0.0	0.0	

1순위		사례수	내가/ 배우자가 일을 해서 번다	나/배우자의 연금과 퇴직금	내가/ 배우자가 저축했던 돈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	친척이나 친지로부터의 이전소득
가 구 태	1인 가구	(44)	100.0	0.0	0.0	0.0	0.0
	1세대 가구	(230)	95.7	1.7	2.6	0.0	0.0
	2세대 가구	(527)	97.2	1.5	0.8	0.4	0.2
	3세대 가구	(3)	100.0	0.0	0.0	0.0	0.0
	비혈연 가구	(2)	100.0	0.0	0.0	0.0	0.0

〈표 4-39〉 주된 생활비 마련방법(1+2+3순위)

[단위: %, n=806]

1+2+3순위		사례 수	내가/ 배우자가 일을 해서 번다	내가/ 배우자가 저축했던 돈	나/ 배우자의 연금과 퇴직금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	내/ 배우자 명의로의 재산 소득	따로 사는 가족의 이전 소득	친척이나 친지로부터의 이전소득	국가나 사회단체 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
전 체		(806)	99.0	61.0	30.9	20.0	13.0	2.5	1.0	0.7
성 별	남 성	(381)	99.0	60.4	29.9	17.8	11.8	1.0	0.8	1.0
	여 성	(425)	99.1	61.6	31.8	21.9	14.1	3.8	1.2	0.5
연 령	만50-54세	(254)	99.6	63.4	22.4	19.3	14.6	0.8	2.0	0.4
	만55-59세	(264)	98.9	61.7	30.7	21.6	8.7	1.9	0.4	0.0
	만60-64세	(288)	98.6	58.3	38.5	19.1	15.6	4.5	0.7	1.7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98.5	80.9	30.9	26.5	11.8	4.4	0.0	0.0
	중 부	(95)	100.0	73.7	38.9	12.6	18.9	2.1	0.0	0.0
	남 부	(242)	99.2	58.3	31.4	19.0	5.4	0.4	0.8	1.2
	동 남	(145)	98.6	53.8	27.6	18.6	14.5	2.8	1.4	1.4
	북 부	(136)	100.0	58.8	30.1	26.5	16.9	2.9	1.5	0.7
	동 부	(120)	97.5	56.7	28.3	18.3	18.3	5.0	1.7	0.0
가 구 태	1인 가구	(44)	100.0	50.0	6.8	2.3	18.2	22.7	0.0	0.0
	1세대 가구	(230)	98.3	55.2	37.4	8.7	12.2	1.7	0.4	1.7
	2세대 가구	(527)	99.2	64.5	30.2	26.2	12.9	1.1	1.3	0.4
	3세대 가구	(3)	100.0	33.3	0.0	66.7	33.3	0.0	0.0	0.0
	비혈연 가구	(2)	100.0	100.0	50.0	0.0	0.0	0.0	0.0	0.0

		사례수	예	아니오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4)	25.0	75.0
	1세대 가구	(230)	24.8	75.2
	2세대 가구	(527)	24.3	75.7
	3세대 가구	(3)	33.3	66.7
	비혈연 가구	(2)	0.0	100.0

〈표 4-41〉 부족한 생활비 마련 방법 -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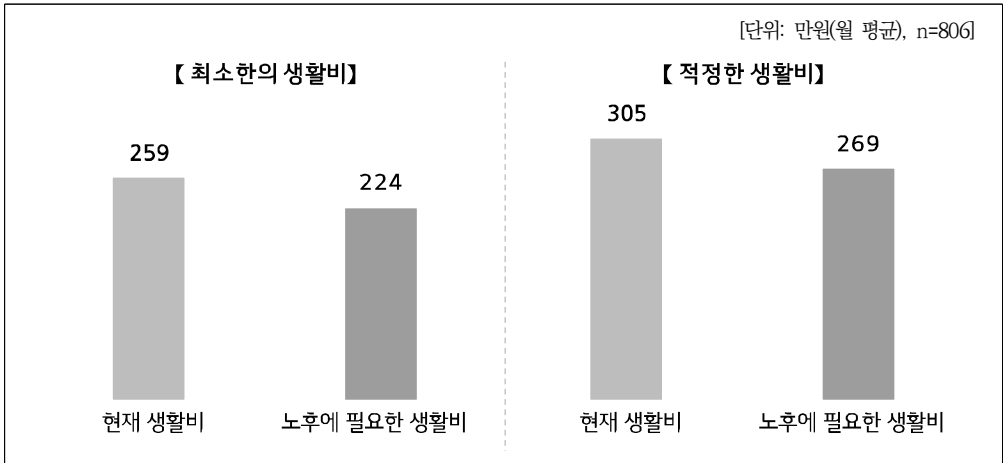
[단위: %, n=198]

		사례수	은행대출 이나 마이뉴스 등장 이용	생활비 자체를 줄임	저축, 예금, 적금, 보험 등의 해약	자녀나 친척 (친지)의 도움	현금 서비스 이용(신용 카드 사용 포함)	친구나 이웃의 도움	전세나 월세의 규모를 줄임
전 체		(198)	29.3	23.2	15.7	11.6	10.6	3.5	3.5
성 별	남 성	(96)	32.3	24.0	19.8	8.3	9.4	3.1	0.0
	여 성	(102)	26.5	22.5	11.8	14.7	11.8	3.9	6.9
연 령	만50-54세	(66)	37.9	30.3	6.1	7.6	7.6	7.6	1.5
	만55-59세	(70)	20.0	25.7	30.0	10.0	11.4	1.4	0.0
	만60-64세	(62)	30.6	12.9	9.7	17.7	12.9	1.6	9.7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8)	0.0	50.0	25.0	12.5	12.5	0.0	0.0
	중 부	(28)	32.1	25.0	17.9	3.6	21.4	0.0	0.0
	남 부	(71)	38.0	22.5	12.7	12.7	4.2	2.8	4.2
	동 남	(48)	31.3	31.3	10.4	6.3	10.4	2.1	2.1
	북 부	(26)	15.4	7.7	19.2	26.9	15.4	7.7	7.7
	동 부	(17)	17.6	11.8	29.4	11.8	11.8	11.8	5.9
가 구 형 태	1인 가구	(11)	36.4	9.1	0.0	36.4	18.2	0.0	0.0
	1세대 가구	(57)	28.1	19.3	15.8	12.3	8.8	1.8	8.8
	2세대 가구	(129)	29.5	26.4	16.3	9.3	10.9	4.7	1.6
	3세대 가구	(1)	0.0	0.0	100.0	0.0	0.0	0.0	0.0

8) 서울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적정 생활비

- 50+세대는 서울에서 살아가는데 최소한 월 평균 259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 수준은 월 평균 305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이어, 노후에는 최소한 월 평균 224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 수준은 월 평균 269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2] 서울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적정 생활비

<표 4-42> 서울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적정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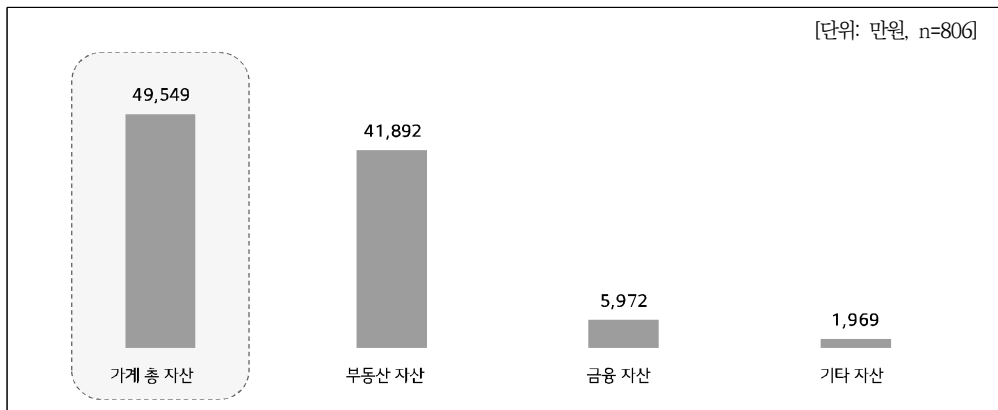
[단위: %, n=806]

	사례수	최소한의 생활비		적정한 생활비		
		현재	노후	현재	노후	
전 체	(806)	259	224	305	269	
성 별	남 성	(381)	260	228	308	274
	여 성	(425)	257	220	303	264
연 령	만50-54세	(254)	271	229	320	275
	만55-59세	(264)	268	227	315	271
	만60-64세	(288)	239	217	283	261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237	219	299	276
	중 부	(95)	252	217	292	253
	남 부	(242)	252	228	302	280
	동 남	(145)	260	222	280	253
	북 부	(136)	280	219	330	254
	동 부	(120)	265	233	330	288
가 구 태	1인 가구	(44)	191	189	236	229
	1세대 가구	(230)	247	221	293	270
	2세대 가구	(527)	270	229	316	271
	3세대 가구	(3)	300	217	400	267
	비혈연 가구	(2)	200	215	265	250

3. 자산

1) 가구 자산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가구의 자산 총액은 평균 4억 9,549만원이며, 부동산 자산이 평균 4억 1,892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84.5%를 차지함.
-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12.1%, 평균 5,972만원으로 조사됨. 부동산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의 소득화가 용이한 금융자산이 적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은퇴 후 소비지출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4-53] 가구 자산

<표 4-43> 가구 자산

[단위: 만원, n=806]

		사례수	가계 총 자산	부동산	금융	기타
전 체		(806)	49,549	41,892	5,972	1,969
성 별	남 성	(381)	49,912	41,863	6,147	2,150
	여 성	(425)	49,223	41,918	5,815	1,807
연 령	만50-54세	(254)	48,226	41,201	5,707	1,827
	만55-59세	(264)	49,620	42,374	5,546	2,070
	만60-64세	(288)	50,650	42,056	6,593	2,001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51,396	45,721	4,187	1,489
	중 부	(95)	49,643	42,553	4,829	2,261
	남 부	(242)	52,081	43,506	6,821	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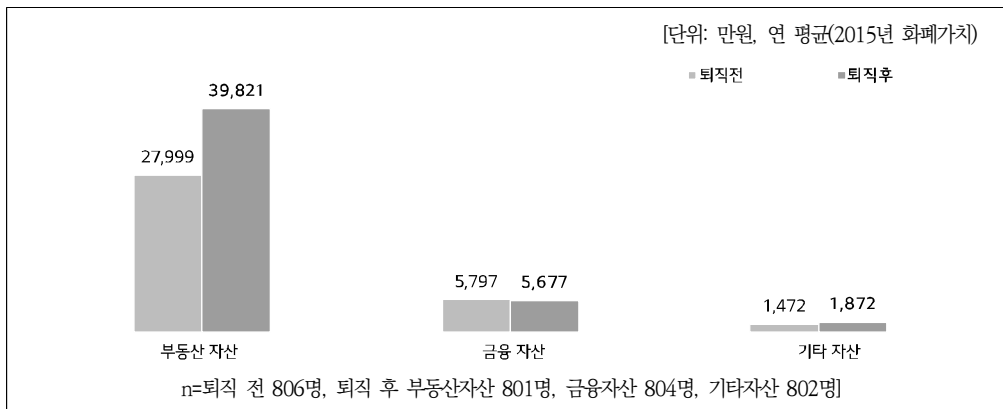
7) 서울에 거주하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자산 총액은 평균 4억 3,445만원, 부동산 자산은 평균 3억 6,829만원으로 나타남.

			사례수	가계 총 자산	부동산	금융	기타
50+ 캠퍼스 권역별	동 남		(145)	50,433	42,958	6,046	2,036
	북 부		(136)	41,663	34,512	6,047	1,682
	동 부		(120)	51,188	42,928	6,003	2,307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4)	24,031	19,682	3,355	994
	1세대 가구		(230)	50,300	42,044	6,397	2,070
	2세대 가구		(527)	51,211	43,552	6,010	2,007
	3세대 가구		(3)	87,333	76,667	8,500	2,167
	비혈연 가구		(2)	29,750	27,000	1,250	1,500

2)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자산 변화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자산을 비교한 결과, 퇴직 후의 '부동산 자산'은 퇴직 전에 비해 4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부동산 자산이 50+세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서울시라는 지역 주택가격 수준이 반영된 결과임.
- 금융자산은 퇴직 전에 비해 퇴직 후 2.1% 감소하였고, 기타자산은 27.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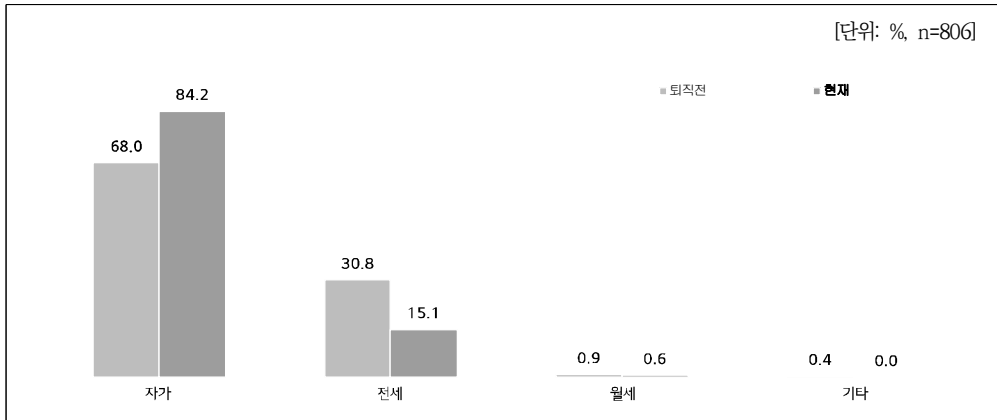
[그림 4-54]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자산 변화

3) 거주주택

(1) 등기상 점유 형태

○ 거주주택 등기상 점유 형태 중 '자가'는 퇴직 전 68.0%에서 현재 84.2%로 16.2%p 높아짐.

- 오히려 '전세'의 경우는 퇴직 전 30.8%에서 현재 15.1%로 15.7%p 낮아짐.
- 연령이 증가할수록 퇴직 후 자가의 비율은 증가하고, 1인가구의 자가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55] 거주주택 등기상 점유 형태

[표 4-44] 거주주택 등기상 점유 형태(퇴직 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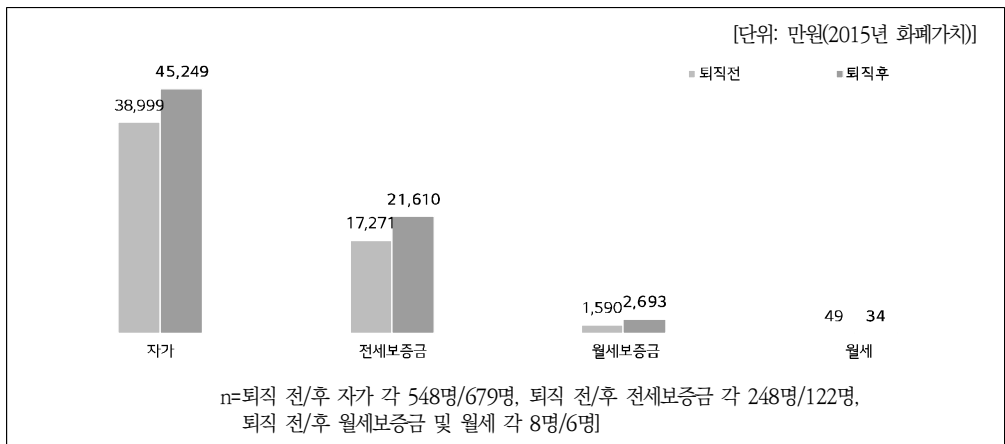
[단위: %, n=806]

	사례수	퇴직 전				현재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전 체	(806)	68.0	30.8	0.9	0.4	84.2	15.1	0.6	
성 별	남 성	(381)	69.8	29.4	0.8	0.0	83.5	15.7	0.8
	여 성	(425)	66.4	32.0	0.9	0.7	84.9	14.6	0.5
연 령	만50-54세	(254)	63.4	33.9	1.6	1.2	79.9	18.9	1.2
	만55-59세	(264)	63.3	36.0	0.8	0.0	82.2	17.4	0.4
	만60-64세	(288)	76.4	23.3	0.3	0.0	89.9	9.7	0.3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80.9	19.1	0.0	0.0	97.1	2.9	0.0
	중 부	(95)	62.1	35.8	2.1	0.0	84.2	15.8	0.0
	남 부	(242)	67.8	30.2	0.8	1.2	84.7	14.9	0.4

		사례수		퇴직 전				현재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50+ 캠퍼스 권역별	동 남	(145)	69.7	30.3	0.0	0.0	77.2	22.1	0.7	
	북 부	(136)	67.6	31.6	0.7	0.0	82.4	16.9	0.7	
	동 부	(120)	64.2	34.2	1.7	0.0	86.7	11.7	1.7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4)	45.5	47.7	6.8	0.0	52.3	38.6	9.1	
	1세대 가구	(230)	72.2	27.8	0.0	0.0	89.6	10.4	0.0	
	2세대 가구	(527)	68.1	30.6	0.8	0.6	84.6	15.2	0.2	
	3세대 가구	(3)	66.7	33.3	0.0	0.0	100.0	0.0	0.0	
	비혈연 가구	(2)	50.0	50.0	0.0	0.0	50.0	50.0	0.0	

(2) 거주주택 시가 변화

- 50+세대의 퇴직 전·후 거주하고 있는 주택 시가변화를 살펴보면, ‘자가’ 및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시가가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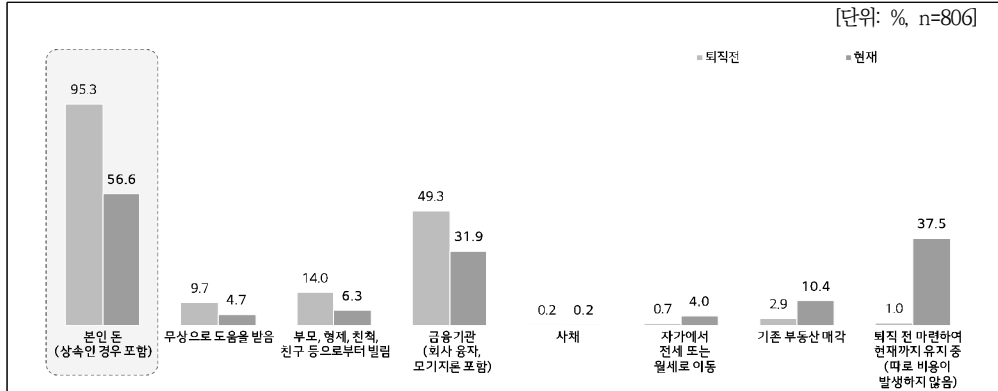


[그림 4-56] 거주주택 시가 변화

(3) 현재 거주주택 마련 방법

- 50+세대는 거주주택을 주로 ‘본인 돈’(퇴직 전 95.3%, 현재 56.6%)과 ‘금융기관’(퇴직 전 49.3%, 현재 31.9%)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 퇴직 전에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으로부터 빌림’(14.0%),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9.7%) 등의 방법이 있었으며,

- 현재는 '퇴직 전 마련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37.5%), '기존 부동산 매각'(10.4%) 등의 방법이 나타남.



[그림 4-57] 현재 거주주택 마련 방법 - 1+2순위

<표 4-45> 현재 거주주택 마련 방법(퇴직 전)

[단위: %, n=806]

1+2순위		사례수	본인 돈 (상속인 경우 포함)	금융기관 (회사 융자, 모기지론 포함)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기존 부동산 매각	퇴직 전 마련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
전 체		(806)	95.3	49.3	14.0	9.7	2.9	1.0
성 별	남 성	(381)	97.4	53.3	11.8	8.9	2.6	0.3
	여 성	(425)	93.4	45.6	16.0	10.4	3.1	1.6
연 령	만50-54세	(254)	93.3	45.7	16.5	9.8	2.0	0.8
	만55-59세	(264)	95.1	48.5	11.0	11.4	3.0	0.8
	만60-64세	(288)	97.2	53.1	14.6	8.0	3.5	1.4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100.0	69.1	13.2	10.3	0.0	0.0
	중 부	(95)	90.5	54.7	20.0	7.4	2.1	0.0
	남 부	(242)	98.3	44.6	10.3	11.6	0.8	1.2
	동 남	(145)	90.3	52.4	15.9	8.3	4.8	2.1
	북 부	(136)	97.1	41.9	11.8	10.3	2.9	0.0
	동 부	(120)	94.2	47.5	17.5	8.3	6.7	1.7
가 구 태	1인 가구	(44)	93.2	22.7	18.2	9.1	0.0	4.5
	1세대 가구	(230)	97.8	48.3	9.6	11.7	4.3	0.9
	2세대 가구	(527)	94.3	52.2	15.6	8.7	2.5	0.8
	3세대 가구	(3)	100.0	0.0	33.3	0.0	0.0	0.0
	비혈연 가구	(2)	100.0	50.0	0.0	5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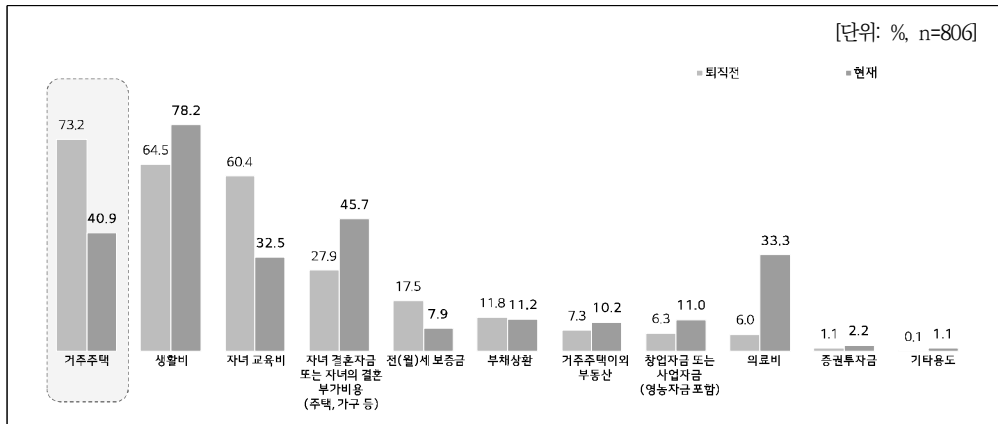
〈표 4-46〉 현재 거주주택 마련 방법(현재)

[단위: %, n=806]

1+2순위		사례수	본인 돈 (상속인 경우 포함)	퇴직 전 마련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	금융기관 (회사 용자, 모기지론 포함)	기존 부동산 매각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전 체		(806)	56.6	37.5	31.9	10.4	6.3	4.7
성 별	남 성	(381)	56.4	38.6	31.8	7.9	6.6	4.5
	여 성	(425)	56.7	36.5	32.0	12.7	6.1	4.9
연 령	만50-54세	(254)	56.7	35.0	33.5	8.3	7.5	6.3
	만55-59세	(264)	61.7	33.3	36.4	8.3	5.3	4.9
	만60-64세	(288)	51.7	43.4	26.4	14.2	6.3	3.1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42.6	57.4	25.0	4.4	1.5	8.8
	중 부	(95)	60.0	35.8	45.3	10.5	3.2	1.1
	남 부	(242)	63.2	33.9	25.2	7.0	5.0	5.8
	동 남	(145)	55.9	40.0	37.2	6.9	9.0	2.8
	북 부	(136)	50.7	37.5	27.9	10.3	11.0	5.1
	동 부	(120)	55.8	31.7	36.7	25.0	5.8	5.0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4)	47.7	50.0	15.9	0.0	6.8	0.0
	1세대 가구	(230)	55.7	37.4	25.7	13.0	6.1	7.4
	2세대 가구	(527)	57.5	36.6	35.9	10.2	6.3	4.0
	3세대 가구	(3)	100.0	0.0	33.3	0.0	33.3	0.0
	비혈연 가구	(2)	50.0	50.0	50.0	0.0	0.0	0.0

4)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

- 50+세대의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은 퇴직 전에는 '거주 주택'(73.2%)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현재는 '생활비'(78.2%)인 것으로 나타남.
- 이어, 퇴직 전에는 '생활비'(64.5%), '자녀 교육비'(6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직 후에는 '자녀 결혼자금 또는 자녀의 결혼 부가비용'(45.7%), '의료비'(33.3%)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4-58]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 - 1+2+3순위

<표 4-47>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퇴직 전)

[단위: %, n=806]

1+2+3순위		사례수	거주주택	생활비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자금 또는 자녀의 결혼 부가비용	전(월)세 보증금	부채상환
전 체		(806)	73.2	64.5	60.4	27.9	17.5	11.8
성 별	남 성	(381)	75.9	67.7	67.2	21.0	17.6	12.1
	여 성	(425)	70.8	61.6	54.4	34.1	17.4	11.5
연 령	만50-54세	(254)	72.8	56.7	62.2	32.7	19.3	13.4
	만55-59세	(264)	67.0	69.7	63.6	24.2	18.9	11.4
	만60-64세	(288)	79.2	66.7	55.9	27.1	14.6	10.8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85.3	70.6	69.1	19.1	13.2	5.9
	중 부	(95)	64.2	71.6	58.9	34.7	23.2	4.2
	남 부	(242)	72.3	68.6	63.2	18.6	18.2	20.7
	동 남	(145)	71.0	60.7	53.1	29.7	15.9	4.8
	북 부	(136)	71.3	54.4	59.6	39.7	19.1	11.0
	동 부	(120)	80.0	63.3	60.8	30.8	14.2	12.5
가 구 태	1인 가구	(44)	43.2	88.6	31.8	9.1	43.2	6.8
	1세대 가구	(230)	78.3	67.4	52.6	29.6	13.9	12.6
	2세대 가구	(527)	73.6	61.1	66.0	29.0	16.7	12.0
	3세대 가구	(3)	66.7	66.7	66.7	0.0	33.3	0.0
	비혈연 가구	(2)	50.0	100.0	100.0	0.0	5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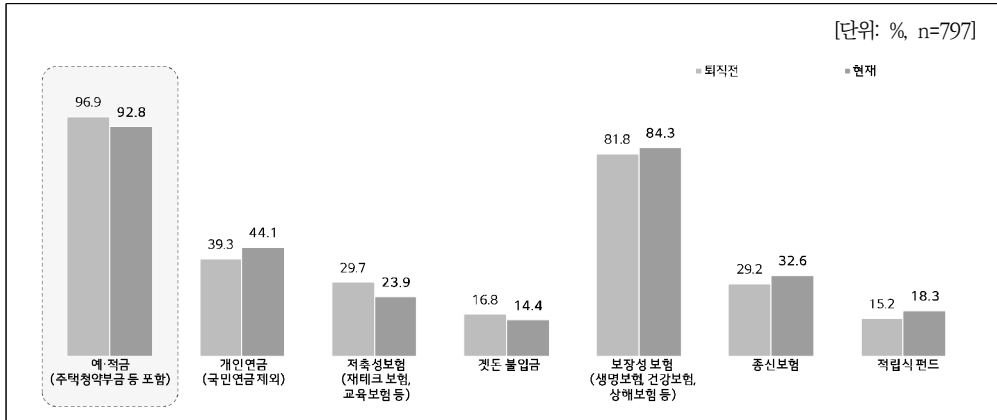
〈표 4-48〉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현재)

[단위: %, n=806]

1+2+3순위		사례수	생활비	자녀 결혼자금 또는 자녀의 결혼 부가비용	거주주택	의료비	자녀 교육비	부채상환
전 체		(806)	78.2	45.7	40.9	33.3	32.5	11.2
성 별	남 성	(381)	77.7	42.3	40.9	36.2	32.3	10.0
	여 성	(425)	78.6	48.7	40.9	30.6	32.7	12.2
연 령	만50-54세	(254)	76.0	41.3	49.2	17.7	54.3	11.8
	만55-59세	(264)	76.1	51.5	41.3	28.8	32.6	15.9
	만60-64세	(288)	81.9	44.1	33.3	51.0	13.2	6.3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79.4	44.1	51.5	50.0	36.8	1.5
	중 부	(95)	78.9	41.1	44.2	45.3	35.8	6.3
	남 부	(242)	83.1	43.8	38.8	28.5	26.9	14.0
	동 남	(145)	78.6	38.6	39.3	35.9	36.6	7.6
	북 부	(136)	72.1	60.3	44.1	21.3	33.8	11.8
	동 부	(120)	73.3	45.8	35.0	34.2	32.5	18.3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4)	97.7	20.5	18.2	75.0	4.5	4.5
	1세대 가구	(230)	86.5	39.1	32.2	53.5	11.7	11.3
	2세대 가구	(527)	73.1	51.0	46.5	21.1	43.5	11.6
	3세대 가구	(3)	33.3	0.0	66.7	33.3	66.7	33.3
	비혈연 가구	(2)	100.0	0.0	50.0	0.0	100.0	0.0

5) 저축 항목

- 50+세대는 주로 '예·적금'(퇴직 전 96.9%, 현재 92.8%)에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어, '보장성 보험'(퇴직 전 81.8%, 현재 84.3%)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연금'(퇴직 전 39.3%, 현재 44.1%)과 '종신보험'(퇴직 전 29.2%, 현재 32.6%)의 비율은 퇴직 전에 비해 현재 다소 높아짐.



[그림 4-59] 저축 항목

<표 4-49> 저축 항목(퇴직 전)

[단위: %, n=797]

		사례 수	예·적금 (주택청약 부금 등 포함)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개인연금 (국민연금 제외)	저축성 보험 (재테크 보험, 교육보험 등)	종신 보험	갯돈 불입금	적립식 펀드
전 체		(797)	96.9	81.8	39.3	29.7	29.2	16.8	15.2
성 별	남 성	(377)	96.8	83.3	43.2	30.8	31.3	13.8	18.6
	여 성	(420)	96.9	80.5	35.7	28.8	27.4	19.5	12.1
연 령	만50-54세	(251)	98.0	84.5	35.9	32.3	33.9	14.7	14.7
	만55-59세	(261)	94.6	80.8	41.0	31.4	26.4	16.5	17.2
	만60-64세	(285)	97.9	80.4	40.7	26.0	27.7	18.9	13.7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97.1	82.4	23.5	22.1	16.2	10.3	22.1
	중 부	(94)	100.0	90.4	38.3	27.7	55.3	14.9	14.9
	남 부	(240)	97.1	78.3	39.2	30.0	19.6	18.8	15.0
	동 남	(142)	95.8	76.1	54.2	47.9	26.8	19.0	11.3
	북 부	(133)	93.2	82.0	36.1	25.6	36.1	20.3	18.8
가 구 태	동 부	(120)	99.2	88.3	35.0	18.3	30.8	11.7	12.5
	1인 가구	(42)	100.0	90.5	7.1	7.1	11.9	7.1	7.1
	1세대 가구	(230)	97.0	80.4	41.3	28.7	20.4	19.6	16.5
	2세대 가구	(520)	96.5	81.9	41.0	31.9	34.2	16.5	15.2
	3세대 가구	(3)	100.0	66.7	66.7	33.3	66.7	0.0	33.3
	비혈연 가구	(2)	100.0	50.0	0.0	50.0	50.0	0.0	0.0

〈표 4-50〉 저축 항목(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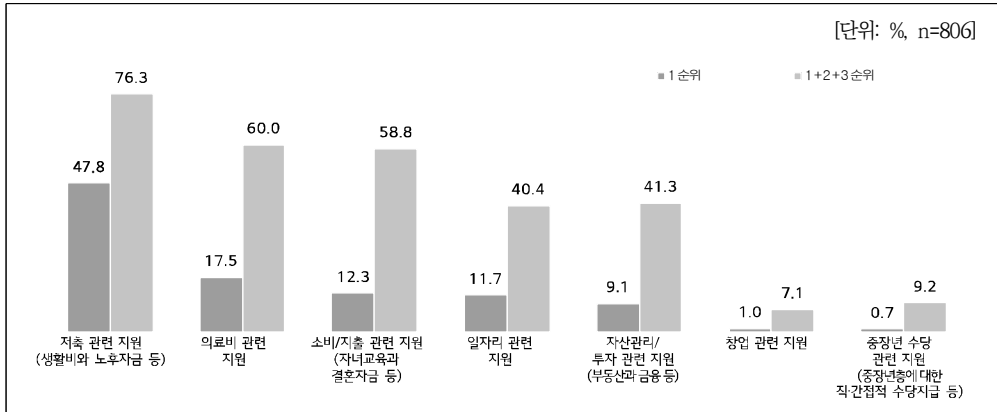
[단위: %, n=797]

		사례 수	예·적금 (주택 청약부금 등 포함)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개인연금 (국민연금 제외)	종신 보험	저축성 보험 (재테크 보험, 교육보험 등)	적립식 펀드	갯돈 불입금
전 체		(797)	92.8	84.3	44.1	32.6	23.9	18.3	14.4
성 별	남 성	(377)	93.4	85.8	44.4	34.1	24.4	19.7	9.2
	여 성	(420)	92.2	82.9	43.8	31.3	23.5	17.1	19.2
연 령	만50-54세	(251)	93.3	89.4	46.9	38.6	28.3	20.1	16.1
	만55-59세	(261)	91.3	86.7	50.6	36.5	23.2	17.9	14.8
	만60-64세	(285)	93.7	77.6	35.7	23.8	20.6	17.1	12.6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98.5	77.9	32.4	17.6	19.1	11.8	10.3
	중 부	(94)	92.6	91.6	42.1	63.2	17.9	4.2	4.2
	남 부	(240)	91.6	91.2	41.8	28.0	20.5	25.9	12.6
	동 남	(142)	93.1	74.5	58.6	23.4	40.0	13.1	20.7
	북 부	(133)	89.7	83.1	43.4	42.6	28.7	21.3	20.6
	동 부	(120)	95.0	81.7	40.0	25.8	13.3	20.8	14.2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2)	100.0	71.4	14.3	4.8	7.1	2.4	2.4
	1세대 가구	(230)	92.1	84.3	38.9	24.9	22.3	18.8	16.2
	2세대 가구	(520)	92.4	85.2	48.8	38.0	26.0	19.5	14.8
	3세대 가구	(3)	100.0	100.0	66.7	66.7	33.3	0.0	0.0
	비혈연 가구	(2)	100.0	100.0	0.0	50.0	0.0	0.0	0.0

6) 50+세대에게 필요한 자산 형성 관련 지원

(1) 우선 지원 방안

- 50+세대는 자산 형성 관련 지원 중 생활비와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 관련 지원’(47.8%)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나타남.
 - 이어, ‘의료비 관련 지원’(17.5%), ‘소비/지출 관련 지원’(12.3%), ‘일자리 관련 지원’(11.7%), ‘자산관리/ 투자 관련 지원’(9.1%) 등의 순이었음.
 - 중장년층에 대한 직·간접적 수당지급에 관련해서는 0.7%로 나타남.
 - 1인 가구는 저축 관련 지원(27.3%)보다 의료비 관련 지원(40.9%)에 관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음.



[그림 4-60] 우선 지원 방안

[표 4-51] 우선 지원 방안(1순위)

[단위: %, n=806]

		사례 수	저축 관련지원	의료비 관련지원	소비/지출 관련지원	일자리 관련지원	자산관리/ 투자 관련지원	창업 관련지원	중장년 수당 관련지원
전 체		(806)	47.8	17.5	12.3	11.7	9.1	1.0	0.7
성 별	남 성	(381)	43.8	20.7	12.9	12.1	8.4	1.0	1.0
	여 성	(425)	51.3	14.6	11.8	11.3	9.6	0.9	0.5
연 령	만50-54세	(254)	52.0	9.1	15.7	12.2	9.8	0.8	0.4
	만55-59세	(264)	47.3	17.8	11.4	11.7	8.7	1.9	1.1
	만60-64세	(288)	44.4	24.7	10.1	11.1	8.7	0.3	0.7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52.9	10.3	13.2	22.1	0.0	0.0	1.5
	중 부	(95)	47.4	13.7	15.8	9.5	11.6	1.1	1.1
	남 부	(242)	42.6	18.6	13.6	12.4	10.7	1.2	0.8
	동 남	(145)	57.2	16.6	9.0	11.0	4.8	0.0	1.4
	북 부	(136)	54.4	19.1	9.6	9.6	6.6	0.7	0.0
	동 부	(120)	36.7	21.7	13.3	9.2	16.7	2.5	0.0
가 구 구 태	1인 가구	(44)	27.3	40.9	13.6	11.4	4.5	0.0	2.3
	1세대 가구	(230)	46.5	20.9	10.9	7.8	11.7	0.9	1.3
	2세대 가구	(527)	50.1	14.0	12.7	13.3	8.3	1.1	0.4
	3세대 가구	(3)	66.7	0.0	0.0	33.3	0.0	0.0	0.0
	비혈연 가구	(2)	0.0	50.0	50.0	0.0	0.0	0.0	0.0

〈표 4-52〉 우선 지원 방안(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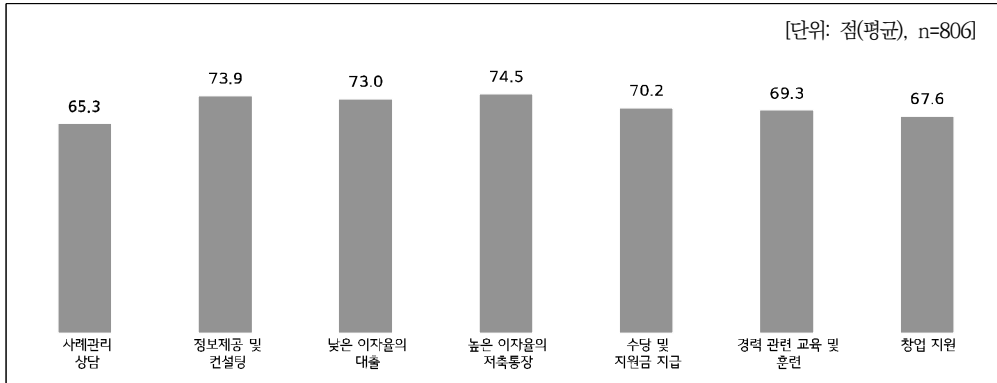
[단위: %, n=806]

		사례 수	저축 관련지원	의료비 관련지원	소비/지출 관련지원	자산관리/ 투자 관련지원	일자리 관련지원	중장년 수당 관련지원	창업 관련지원
전 체		(806)	76.3	60.0	58.8	41.3	40.4	9.2	7.1
성 별	남 성	(381)	71.1	60.6	59.6	45.9	39.4	8.7	6.8
	여 성	(425)	80.9	59.5	58.1	37.2	41.4	9.6	7.3
연 령	만50-54세	(254)	78.0	52.0	60.2	46.5	41.7	11.4	7.1
	만55-59세	(264)	79.2	59.8	53.0	41.7	42.8	8.3	7.2
	만60-64세	(288)	72.2	67.4	62.8	36.5	37.2	8.0	6.9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82.4	44.1	61.8	32.4	52.9	14.7	5.9
	중 부	(95)	72.6	62.1	61.1	47.4	38.9	6.3	5.3
	남 부	(242)	74.0	68.2	56.6	37.2	39.3	7.0	8.7
	동 남	(145)	80.7	57.2	64.8	39.3	35.9	9.0	2.1
	북 부	(136)	77.2	56.6	56.6	51.5	39.7	8.8	5.9
	동 부	(120)	74.2	58.3	55.0	40.8	43.3	13.3	13.3
가 구 형 태	1 인 가 구	(44)	65.9	84.1	61.4	29.5	27.3	15.9	9.1
	1 세대 가 구	(230)	75.7	68.7	52.2	45.2	32.2	8.3	7.8
	2 세대 가 구	(527)	77.4	54.3	61.5	40.8	45.2	9.1	6.6
	3 세대 가 구	(3)	100.0	33.3	66.7	0.0	33.3	0.0	0.0
	비혈연 가 구	(2)	50.0	100.0	50.0	50.0	50.0	0.0	0.0

(2) 선호 지원 형태

○ 50+세대는 ‘높은 이자율의 저축통장’(74.5%) 형태의 자산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 ‘정보제공 및 컨설팅’(73.9%), ‘낮은 이자율의 대출’(73.0%)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4-61] 선호 지원 형태

<표 4-53> 선호 지원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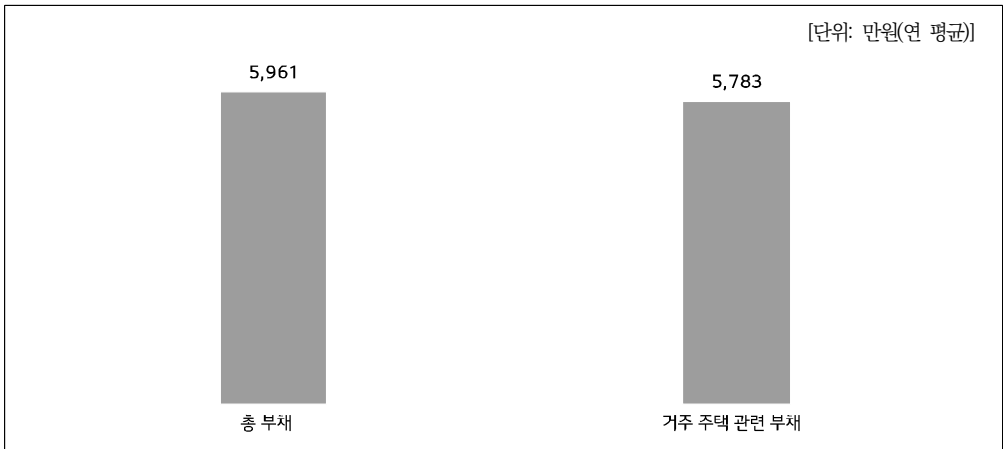
[단위: 점(평균), n=806]

		사례 수	사례관리 상담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낮은 이자율의 대출	높은 이자율의 저축통장	수당 및 지원금 지급	경력 관련교육 및 훈련	창업 지원
전 체		(806)	65.3	73.9	73.0	74.5	70.2	69.3	67.6
성 별	남 성	(381)	63.8	74.3	73.3	73.7	69.8	68.5	68.4
	여 성	(425)	66.7	73.6	72.7	75.2	70.6	70.1	66.9
연 령	만50-54세	(254)	66.3	74.7	76.7	73.6	70.0	69.6	67.2
	만55-59세	(264)	65.6	73.8	72.4	74.8	70.1	69.6	68.8
	만60-64세	(288)	64.1	73.4	70.2	75.0	70.5	68.8	66.8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80.1	80.9	66.5	63.6	69.9	72.8	65.8
	중 부	(95)	68.9	77.4	79.5	81.3	79.7	73.7	72.1
	남 부	(242)	59.9	68.6	72.3	72.4	66.6	64.5	64.8
	동 남	(145)	68.1	76.4	75.2	77.1	73.6	73.1	71.0
	북 부	(136)	63.4	72.1	68.8	73.3	64.5	65.3	62.5
	동 부	(120)	63.8	77.3	75.0	77.7	72.3	73.8	72.5
가 구 태	1인 가구	(44)	65.3	75.6	78.4	77.8	76.1	72.2	67.6
	1세대 가구	(230)	63.0	72.1	71.7	75.0	71.2	68.5	68.8
	2세대 가구	(527)	66.4	74.6	73.0	74.0	69.2	69.4	67.1
	3세대 가구	(3)	66.7	83.3	75.0	83.3	91.7	75.0	66.7
	비혈연 가구	(2)	50.0	62.5	87.5	75.0	62.5	62.5	75.0

4. 부채

1) 가구 부채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서울시 50+세대 가구의 부채는 평균 5,961만원으로 나타남⁸⁾.
- 이 중 '거주주택 관련 부채액'은 5,783만원으로, 부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부채는 50+중부캠퍼스 권역(7,526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상 2세대 가구(7,111만원)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62] 가구 부채

<표 4-54> 가구 부채

[단위: 만원(연 평균)]

	총 부채		거주 주택 관련 부채		
	사례 수	금액	사례 수	금액	
전 체	(806)	5,961	(358)	5,783	
성 별	남 성	(381)	6,325	(181)	6,314
	여 성	(425)	5,585	(177)	5,299
연 령	만50-54세	(254)	5,633	(130)	5,581
	만55-59세	(264)	6,582	(120)	6,088
	만60-64세	(288)	5,572	(108)	5,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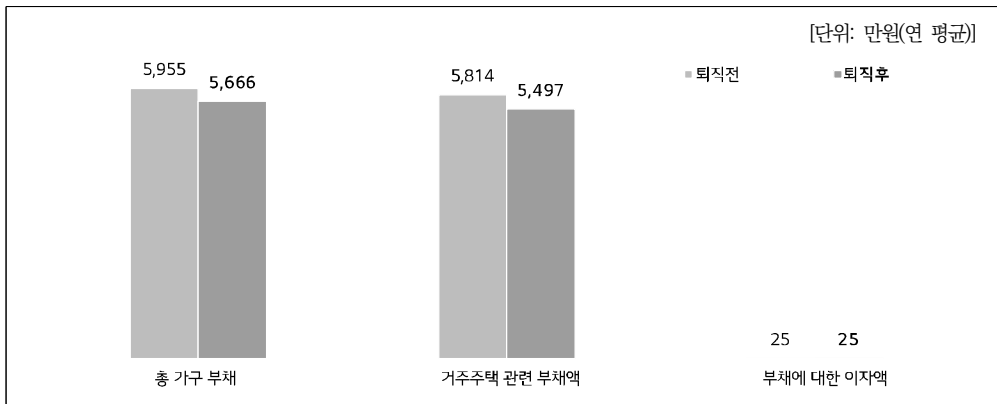
8) 서울에 거주하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부채 총액은 평균 8천 4백만 원으로 나타남.

		총 부채		거주 주택 관련 부채	
		사례 수	금액	사례 수	금액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4,926	(24)	5,225
	중 부	(95)	7,526	(48)	7,500
	남 부	(242)	5,342	(105)	4,719
	동 남	(145)	7,485	(60)	7,105
	북 부	(136)	4,955	(63)	5,118
	동 부	(120)	5,146	(58)	5,095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4)	5,889	(7)	8,429
	1세대 가구	(230)	5,966	(97)	5,944
	2세대 가구	(527)	7,111	(250)	5,616
	3세대 가구	(3)	5,824	(3)	7,000
	비혈연 가구	(2)	5,946	(1)	3,000

2)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부채 변화

○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부채가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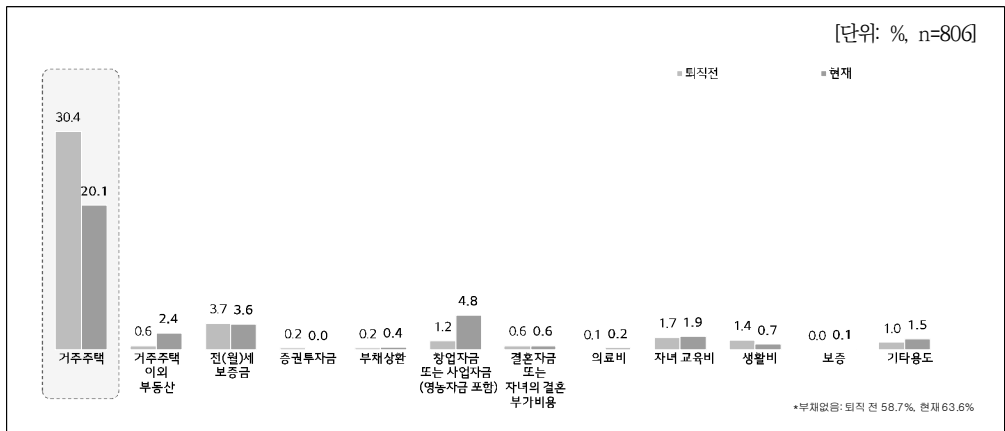
- 이 중, '거주주택 관련 부채액'은 평균 317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에 대한 이자액은 각 25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그림 4-63]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부채 변화

3) 부채가 생긴 주된 이유

- 50+세대가 부채를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택관련 비용 마련을 위해 부채가 생긴 것으로 나타남(거주주택: 퇴직 전 30.4%, 퇴직 후 20.1%).
 - 이어, 퇴직 전에는 ‘전(월)세 보증금’(3.7%), ‘자녀 교육비’(1.7%), ‘생활비’(1.4%), ‘창업자금 또는 사업자금’(1.2%) 등의 순이었으며,
 - 퇴직 후에는 ‘창업자금 또는 사업자금’(4.8%), ‘전(월)세 보증금’(3.6%),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2.4%), ‘자녀 교육비’(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4] 부채가 생긴 주된 이유

<표 4-55> 부채가 생긴 주된 이유(퇴직 전)

[단위: %, n=806]

		사례 수	부채 없음	거주주택	전(월)세 보증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창업자금 또는 사업자금
전 체		(806)	58.7	30.4	3.7	1.7	1.4	1.2
성 별	남 성	(381)	53.5	32.5	5.2	2.9	1.6	1.6
	여 성	(425)	63.3	28.5	2.4	0.7	1.2	0.9
연 령	만50-54세	(254)	55.9	31.5	4.7	1.6	2.4	2.4
	만55-59세	(264)	59.1	29.5	4.5	1.5	1.9	1.5
	만60-64세	(288)	60.8	30.2	2.1	2.1	0.0	0.0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58.8	26.5	4.4	2.9	0.0	5.9
	중 부	(95)	53.7	32.6	6.3	2.1	0.0	1.1
	남 부	(242)	59.5	31.0	2.1	2.5	2.9	0.4

		사례 수	부채 없음	거주주택	전(월)세 보증금	자녀 교육비	생활비	창업자금 또는 사업자금
50+ 캠퍼스 권역별	동 남	(145)	60.7	25.5	5.5	0.7	1.4	1.4
	북 부	(136)	61.8	31.6	2.9	1.5	0.7	0.7
	동 부	(120)	55.0	34.2	3.3	0.8	0.8	0.8
가 구 태	1인 가구	(44)	88.6	2.3	6.8	0.0	0.0	0.0
	1세대 가구	(230)	57.8	32.2	2.2	0.9	2.2	0.0
	2세대 가구	(527)	56.9	31.9	3.8	2.3	1.1	1.9
	3세대 가구	(3)	0.0	66.7	33.3	0.0	0.0	0.0
	비혈연 가구	(2)	50.0	0.0	50.0	0.0	0.0	0.0

〈표 4-56〉 부채가 생긴 주된 이유(현재)

[단위: %, n=806]

		사례수	부채 없음	거주주택	창업자금 또는 사업자금	전(월)세 보증금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자녀 교육비
전 체		(806)	63.6	20.1	4.8	3.6	2.4	1.9
성 별	남 성	(381)	60.6	18.9	7.3	3.7	2.4	2.9
	여 성	(425)	66.4	21.2	2.6	3.5	2.4	0.9
연 령	만50-54세	(254)	57.5	26.4	4.7	4.3	1.2	3.1
	만55-59세	(264)	59.5	22.7	7.6	3.8	1.9	2.7
	만60-64세	(288)	72.9	12.2	2.4	2.8	3.8	0.0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72.1	17.6	2.9	4.4	0.0	1.5
	중 부	(95)	54.7	32.6	1.1	4.2	0.0	2.1
	남 부	(242)	68.2	16.1	7.4	1.7	2.1	1.7
	동 남	(145)	60.7	16.6	3.4	6.2	5.5	2.8
	북 부	(136)	67.6	19.9	0.7	5.1	1.5	2.2
	동 부	(120)	55.8	24.2	10.0	1.7	3.3	0.8
가 구 태	1인 가구	(44)	79.5	6.8	6.8	6.8	0.0	0.0
	1세대 가구	(230)	67.0	16.5	3.9	1.3	5.2	0.0
	2세대 가구	(527)	61.3	22.6	5.1	4.2	1.3	2.7
	3세대 가구	(3)	0.0	66.7	0.0	0.0	0.0	33.3
	비혈연 가구	(2)	50.0	0.0	0.0	50.0	0.0	0.0

제3절 삶의 질과 노후 준비

1. 삶의 질

1) 생활 만족도

-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로 각각 80.4%, 81.9%가 전반적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생활 만족도는 퇴직 전과 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
- 퇴직 전에 연령별 생활 만족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퇴직 후에는 연령이 많을 수록 생활 만족도는 감소하였음(86.2%→82.2%→77.8%).

〈표 4-57〉 전반적 생활 만족도(퇴직 전)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0	0.7	18.9	74.4	6.0	0.7	18.9	80.4
성 별	남 성	(381)	0.0	1.6	21.0	71.1	6.3	1.6	21.0	77.4
	여 성	(425)	0.0	0.0	16.9	77.4	5.6	0.0	16.9	83.1
연 령	만50-54세	(254)	0.0	2.0	17.7	74.0	6.3	2.0	17.7	80.3
	만55-59세	(264)	0.0	0.4	19.7	72.7	7.2	0.4	19.7	79.9
	만60-64세	(288)	0.0	0.0	19.1	76.4	4.5	0.0	19.1	80.9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11.8	88.2	0.0	0.0	11.8	88.2
	중 부	(95)	0.0	0.0	17.9	75.8	6.3	0.0	17.9	82.1
	남 부	(242)	0.0	0.8	19.8	73.6	5.8	0.8	19.8	79.3
	동 남	(145)	0.0	0.0	12.4	80.0	7.6	0.0	12.4	87.6
	북 부	(136)	0.0	2.2	25.0	64.7	8.1	2.2	25.0	72.8
	동 부	(120)	0.0	0.8	22.5	71.7	5.0	0.8	22.5	76.7
가 구 구 태	1인 가구	(44)	0.0	4.5	11.4	81.8	2.3	4.5	11.4	84.1
	1세대 가구	(230)	0.0	0.4	17.4	76.5	5.7	0.4	17.4	82.2
	2세대 가구	(527)	0.0	0.6	20.1	72.9	6.5	0.6	20.1	79.3
	3세대 가구	(3)	0.0	0.0	0.0	100.0	0.0	0.0	0.0	100.0
	비혈연 가구	(2)	0.0	0.0	50.0	50.0	0.0	0.0	50.0	50.0

〈표 4-58〉 전반적 생활 만족도(현재)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1	0.1	17.9	75.7	6.2	0.2	17.9	81.9
성 별	남 성	(381)	0.3	0.3	18.9	74.8	5.8	0.5	18.9	80.6
	여 성	(425)	0.0	0.0	16.9	76.5	6.6	0.0	16.9	83.1
연 령	만50-54세	(254)	0.0	0.4	13.4	81.5	4.7	0.4	13.4	86.2
	만55-59세	(264)	0.4	0.0	17.4	73.9	8.3	0.4	17.4	82.2
	만60-64세	(288)	0.0	0.0	22.2	72.2	5.6	0.0	22.2	77.8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13.2	85.3	1.5	0.0	13.2	86.8
	중 부	(95)	0.0	0.0	20.0	75.8	4.2	0.0	20.0	80.0
	남 부	(242)	0.4	0.0	24.8	68.2	6.6	0.4	24.8	74.8
	동 남	(145)	0.0	0.0	12.4	80.0	7.6	0.0	12.4	87.6
	북 부	(136)	0.0	0.0	16.2	74.3	9.6	0.0	16.2	83.8
	동 부	(120)	0.0	0.8	13.3	81.7	4.2	0.8	13.3	85.8
가 구 태	1인 가구	(44)	2.3	2.3	22.7	70.5	2.3	4.5	22.7	72.7
	1세대 가구	(230)	0.0	0.0	24.3	69.1	6.5	0.0	24.3	75.7
	2세대 가구	(527)	0.0	0.0	14.6	79.1	6.3	0.0	14.6	85.4
	3세대 가구	(3)	0.0	0.0	0.0	66.7	33.3	0.0	0.0	100.0
	비혈연 가구	(2)	0.0	0.0	50.0	50.0	0.0	0.0	50.0	50.0

(1) 자신의 경제상태

○ 50+세대는 퇴직 전·후로 각 63.3%, 66.7%가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경제 상태 만족도는 퇴직 전과 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음.

〈표 4-59〉 자신의 경제상태(퇴직 전)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0	3.8	32.9	51.6	11.7	3.8	32.9	63.3
성 별	남 성	(381)	0.0	5.0	31.0	52.5	11.5	5.0	31.0	64.0
	여 성	(425)	0.0	2.8	34.6	50.8	11.8	2.8	34.6	62.6
연 령	만50-54세	(254)	0.0	6.7	31.5	46.9	15.0	6.7	31.5	61.8
	만55-59세	(264)	0.0	3.0	35.6	50.8	10.6	3.0	35.6	61.4
	만60-64세	(288)	0.0	2.1	31.6	56.6	9.7	2.1	31.6	66.3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1.5	17.6	58.8	22.1	1.5	17.6	80.9
	중 부	(95)	0.0	7.4	36.8	48.4	7.4	7.4	36.8	55.8
	남 부	(242)	0.0	3.3	38.8	48.8	9.1	3.3	38.8	57.9
	동 남	(145)	0.0	2.1	31.7	53.8	12.4	2.1	31.7	66.2
	북 부	(136)	0.0	3.7	30.1	53.7	12.5	3.7	30.1	66.2
	동 부	(120)	0.0	5.8	30.8	50.8	12.5	5.8	30.8	63.3
가 구 태	1인 가구	(44)	0.0	4.5	31.8	52.3	11.4	4.5	31.8	63.6
	1세대 가구	(230)	0.0	4.8	38.3	53.9	3.0	4.8	38.3	57.0
	2세대 가구	(527)	0.0	3.2	30.7	50.5	15.6	3.2	30.7	66.0
	3세대 가구	(3)	0.0	0.0	33.3	66.7	0.0	0.0	33.3	66.7
	비혈연 가구	(2)	0.0	50.0	0.0	50.0	0.0	50.0	0.0	50.0

〈표 4-60〉 자신의 경제상태(현재)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1	2.4	30.8	58.6	8.2	2.5	30.8	66.7
성 별	남 성	(381)	0.3	2.1	27.8	63.5	6.3	2.4	27.8	69.8
	여 성	(425)	0.0	2.6	33.4	54.1	9.9	2.6	33.4	64.0
연 령	만50-54세	(254)	0.0	1.2	29.1	63.8	5.9	1.2	29.1	69.7
	만55-59세	(264)	0.4	2.7	31.1	54.5	11.4	3.0	31.1	65.9
	만60-64세	(288)	0.0	3.1	31.9	57.6	7.3	3.1	31.9	64.9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7.4	80.9	11.8	0.0	7.4	92.6
	중 부	(95)	0.0	3.2	42.1	52.6	2.1	3.2	42.1	54.7
	남 부	(242)	0.4	3.3	32.6	52.5	11.2	3.7	32.6	63.6
	동 남	(145)	0.0	0.0	31.7	55.2	13.1	0.0	31.7	68.3
	북 부	(136)	0.0	3.7	29.4	61.0	5.9	3.7	29.4	66.9
	동 부	(120)	0.0	2.5	31.7	64.2	1.7	2.5	31.7	65.8
가 구 태	1인 가구	(44)	2.3	4.5	38.6	43.2	11.4	6.8	38.6	54.5
	1세대 가구	(230)	0.0	3.9	36.5	52.6	7.0	3.9	36.5	59.6
	2세대 가구	(527)	0.0	1.3	27.5	62.6	8.5	1.3	27.5	71.2
	3세대 가구	(3)	0.0	0.0	66.7	33.3	0.0	0.0	66.7	33.3
	비혈연 가구	(2)	0.0	50.0	0.0	50.0	0.0	50.0	0.0	50.0

(2) 자신의 건강상태

○ 50+세대는 퇴직 전·후로 각 76.4%, 69.1%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 후에 느끼는 건강상태가 퇴직 전보다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음.

- 성별에 따른 자신의 건강상태 만족도는 퇴직 전과 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

〈표 4-61〉 자신의 건강상태(퇴직 전)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0	3.7	19.9	57.6	18.9	3.7	19.9	76.4
성 별	남 성	(381)	0.0	6.0	22.6	55.4	16.0	6.0	22.6	71.4
	여 성	(425)	0.0	1.6	17.4	59.5	21.4	1.6	17.4	80.9
연 령	만50-54세	(254)	0.0	4.3	20.5	52.4	22.8	4.3	20.5	75.2
	만55-59세	(264)	0.0	3.8	20.5	59.5	16.3	3.8	20.5	75.8
	만60-64세	(288)	0.0	3.1	18.8	60.4	17.7	3.1	18.8	78.1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10.3	52.9	36.8	0.0	10.3	89.7
	중 부	(95)	0.0	0.0	26.3	63.2	10.5	0.0	26.3	73.7
	남 부	(242)	0.0	5.0	19.4	63.6	12.0	5.0	19.4	75.6
	동 남	(145)	0.0	0.0	22.1	50.3	27.6	0.0	22.1	77.9
	북 부	(136)	0.0	8.1	19.1	53.7	19.1	8.1	19.1	72.8
	동 부	(120)	0.0	5.8	19.2	56.7	18.3	5.8	19.2	75.0
가 구 태	1인 가구	(44)	0.0	6.8	20.5	50.0	22.7	6.8	20.5	72.7
	1세대 가구	(230)	0.0	2.2	19.1	60.9	17.8	2.2	19.1	78.7
	2세대 가구	(527)	0.0	4.2	20.3	56.5	19.0	4.2	20.3	75.5
	3세대 가구	(3)	0.0	0.0	0.0	66.7	33.3	0.0	0.0	100.0
	비혈연 가구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표 4-62〉 자신의 건강상태(현재)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0	2.9	28.0	54.5	14.6	2.9	28.0	69.1
성 별	남 성	(381)	0.0	3.7	29.1	53.0	14.2	3.7	29.1	67.2
	여 성	(425)	0.0	2.1	27.1	55.8	15.1	2.1	27.1	70.8
연 령	만50-54세	(254)	0.0	2.4	28.0	53.1	16.5	2.4	28.0	69.7
	만55-59세	(264)	0.0	2.3	24.2	58.7	14.8	2.3	24.2	73.5
	만60-64세	(288)	0.0	3.8	31.6	51.7	12.8	3.8	31.6	64.6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14.7	54.4	30.9	0.0	14.7	85.3
	중 부	(95)	0.0	1.1	43.2	52.6	3.2	1.1	43.2	55.8
	남 부	(242)	0.0	5.4	30.2	52.1	12.4	5.4	30.2	64.5
	동 남	(145)	0.0	0.0	21.4	56.6	22.1	0.0	21.4	78.6
	북 부	(136)	0.0	2.9	23.5	64.7	8.8	2.9	23.5	73.5
	동 부	(120)	0.0	4.2	32.5	46.7	16.7	4.2	32.5	63.3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4)	0.0	4.5	38.6	40.9	15.9	4.5	38.6	56.8
	1세대 가구	(230)	0.0	4.3	29.1	51.3	15.2	4.3	29.1	66.5
	2세대 가구	(527)	0.0	1.9	26.8	57.1	14.2	1.9	26.8	71.3
	3세대 가구	(3)	0.0	33.3	0.0	66.7	0.0	33.3	0.0	66.7
	비혈연 가구	(2)	0.0	0.0	50.0	0.0	50.0	0.0	50.0	50.0

(3) 주거환경

○ 50+세대는 퇴직 전·후로 각 69.4%, 75.4%가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 전 성별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고, 퇴직 후에는 여성은 77.6%, 남성은 73.0%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

〈표 4-63〉 주거환경(퇴직 전)

[단위: %, n=806]

		사례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0	3.5	27.2	56.8	12.5	3.5	27.2	69.4
성 별	남 성	(381)	0.0	4.5	26.2	54.6	14.7	4.5	26.2	69.3
	여 성	(425)	0.0	2.6	28.0	58.8	10.6	2.6	28.0	69.4
연 령	만50-54세	(254)	0.0	4.3	26.0	58.3	11.4	4.3	26.0	69.7
	만55-59세	(264)	0.0	4.2	27.3	56.4	12.1	4.2	27.3	68.6
	만60-64세	(288)	0.0	2.1	28.1	55.9	13.9	2.1	28.1	69.8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20.6	63.2	16.2	0.0	20.6	79.4
	중 부	(95)	0.0	6.3	37.9	42.1	13.7	6.3	37.9	55.8
	남 부	(242)	0.0	4.1	28.9	55.4	11.6	4.1	28.9	66.9
	동 남	(145)	0.0	0.0	23.4	62.1	14.5	0.0	23.4	76.6
	북 부	(136)	0.0	8.1	25.7	51.5	14.7	8.1	25.7	66.2
가 구 태	동 부	(120)	0.0	0.8	25.0	67.5	6.7	0.8	25.0	74.2
	1인 가구	(44)	0.0	2.3	20.5	61.4	15.9	2.3	20.5	77.3
	1세대 가구	(230)	0.0	0.9	34.3	50.9	13.9	0.9	34.3	64.8
	2세대 가구	(527)	0.0	4.7	24.5	59.2	11.6	4.7	24.5	70.8
	3세대 가구	(3)	0.0	0.0	33.3	66.7	0.0	0.0	33.3	66.7
	비혈연 가구	(2)	0.0	0.0	50.0	0.0	50.0	0.0	50.0	50.0

〈표 4-64〉 주거환경(현재)

[단위: %, n=806]

		사례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0	1.4	23.2	60.0	15.4	1.4	23.2	75.4
성 별	남 성	(381)	0.0	1.3	25.7	60.1	12.9	1.3	25.7	73.0
	여 성	(425)	0.0	1.4	20.9	60.0	17.6	1.4	20.9	77.6
연 령	만50-54세	(254)	0.0	1.2	20.5	60.6	17.7	1.2	20.5	78.3
	만55-59세	(264)	0.0	1.1	23.9	60.2	14.8	1.1	23.9	75.0
	만60-64세	(288)	0.0	1.7	25.0	59.4	13.9	1.7	25.0	73.3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13.2	70.6	16.2	0.0	13.2	86.8
	중 부	(95)	0.0	2.1	27.4	57.9	12.6	2.1	27.4	70.5
	남 부	(242)	0.0	2.9	24.0	59.1	14.0	2.9	24.0	73.1
	동 남	(145)	0.0	0.0	16.6	67.6	15.9	0.0	16.6	83.4
	북 부	(136)	0.0	0.7	30.1	48.5	20.6	0.7	30.1	69.1
가 구 태	동 부	(120)	0.0	0.8	24.2	61.7	13.3	0.8	24.2	75.0
	1인 가구	(44)	0.0	6.8	20.5	54.5	18.2	6.8	20.5	72.7
	1세대 가구	(230)	0.0	1.7	26.5	60.0	11.7	1.7	26.5	71.7
	2세대 가구	(527)	0.0	0.8	22.0	60.3	16.9	0.8	22.0	77.2
	3세대 가구	(3)	0.0	0.0	0.0	100.0	0.0	0.0	0.0	100.0
	비혈연 가구	(2)	0.0	0.0	50.0	50.0	0.0	0.0	50.0	50.0

(4) 현재 하고 있는 일·활동

- 50+세대는 퇴직 전·후로 각 67.1%, 66.1%가 현재 하고 있는 일·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5〉 현재 하고 있는 일·활동(퇴직 전)

[단위: %, n=806]

	사례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0	4.7	28.2	54.2	12.9	4.7	28.2	67.1
성 별	남 성 (381)	0.0	6.0	26.8	53.3	13.9	6.0	26.8	67.2
	여 성 (425)	0.0	3.5	29.4	55.1	12.0	3.5	29.4	67.1
연 령	만50-54세 (254)	0.0	5.9	27.6	52.8	13.8	5.9	27.6	66.5
	만55-59세 (264)	0.0	4.9	25.8	56.8	12.5	4.9	25.8	69.3
	만60-64세 (288)	0.0	3.5	30.9	53.1	12.5	3.5	30.9	65.6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2.9	29.4	60.3	7.4	2.9	29.4	67.6
	중 부 (95)	0.0	3.2	30.5	48.4	17.9	3.2	30.5	66.3
	남 부 (242)	0.0	4.5	31.4	51.7	12.4	4.5	31.4	64.0
	동 남 (145)	0.0	0.0	18.6	65.5	15.9	0.0	18.6	81.4
	북 부 (136)	0.0	8.1	27.9	52.2	11.8	8.1	27.9	64.0
	동 부 (120)	0.0	9.2	30.8	49.2	10.8	9.2	30.8	60.0
가 구 구 태	1인 가구 (44)	0.0	6.8	31.8	54.5	6.8	6.8	31.8	61.4
	1세대 가구 (230)	0.0	4.3	28.3	56.5	10.9	4.3	28.3	67.4
	2세대 가구 (527)	0.0	4.7	27.9	52.9	14.4	4.7	27.9	67.4
	3세대 가구 (3)	0.0	0.0	0.0	100.0	0.0	0.0	0.0	100.0
	비혈연 가구 (2)	0.0	0.0	50.0	50.0	0.0	0.0	50.0	50.0

〈표 4-66〉 현재 하고 있는 일·활동(현재)

[단위: %, n=806]

	사례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무응답
전 체	(806)	0.1	3.6	29.7	52.1	14.0	0.5	3.7	29.7	66.1	0.5
성 별	남 성 (381)	0.3	5.0	28.3	54.1	12.3	0.0	5.2	28.3	66.4	0.0
	여 성 (425)	0.0	2.4	30.8	50.4	15.5	0.9	2.4	30.8	65.9	0.9
연 령	만50-54세 (254)	0.0	3.1	28.0	53.5	15.4	0.0	3.1	28.0	68.9	0.0
	만55-59세 (264)	0.4	4.2	29.5	54.2	11.7	0.0	4.5	29.5	65.9	0.0
	만60-64세 (288)	0.0	3.5	31.3	49.0	14.9	1.4	3.5	31.3	63.9	1.4

	사례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무응답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10.3	33.8	42.6	7.4	5.9	10.3	33.8	50.0	5.9
	중 부 (95)	0.0	3.2	32.6	52.6	11.6	0.0	3.2	32.6	64.2	0.0
	남 부 (242)	0.4	4.1	33.1	49.6	12.8	0.0	4.5	33.1	62.4	0.0
	동 남 (145)	0.0	0.7	20.0	57.2	22.1	0.0	0.7	20.0	79.3	0.0
	북 부 (136)	0.0	2.9	26.5	55.9	14.7	0.0	2.9	26.5	70.6	0.0
	동 부 (120)	0.0	3.3	33.3	51.7	11.7	0.0	3.3	33.3	63.3	0.0
가 구 태	1인 가구 (44)	2.3	9.1	25.0	47.7	15.9	0.0	11.4	25.0	63.6	0.0
	1세대 가구 (230)	0.0	3.5	35.2	49.1	12.2	0.0	3.5	35.2	61.3	0.0
	2세대 가구 (527)	0.0	3.2	27.9	53.7	14.4	0.8	3.2	27.9	68.1	0.8
	3세대 가구 (3)	0.0	0.0	0.0	33.3	66.7	0.0	0.0	0.0	100.0	0.0
	비혈연 가구 (2)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5) 여가생활

○ 50+세대는 퇴직 전·후로 각 62.8%, 63.3%가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7〉 여가생활(퇴직 전)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0	12.5	24.7	46.0	16.7	12.5	24.7	62.8
성 별	남 성 (381)	0.0	13.4	23.1	46.5	17.1	13.4	23.1	63.5
	여 성 (425)	0.0	11.8	26.1	45.6	16.5	11.8	26.1	62.1
연 령	만50-54세 (254)	0.0	11.4	22.0	48.0	18.5	11.4	22.0	66.5
	만55-59세 (264)	0.0	15.9	26.1	42.4	15.5	15.9	26.1	58.0
	만60-64세 (288)	0.0	10.4	25.7	47.6	16.3	10.4	25.7	63.9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36.8	14.7	38.2	10.3	36.8	14.7	48.5
	중 부 (95)	0.0	5.3	28.4	57.9	8.4	5.3	28.4	66.3
	남 부 (242)	0.0	8.7	25.6	50.0	15.7	8.7	25.6	65.7
	동 남 (145)	0.0	2.8	29.7	46.9	20.7	2.8	29.7	67.6
	북 부 (136)	0.0	19.1	22.1	34.6	24.3	19.1	22.1	58.8
	동 부 (120)	0.0	16.7	22.5	45.0	15.8	16.7	22.5	60.8
가 구 태	1인 가구 (44)	0.0	13.6	18.2	43.2	25.0	13.6	18.2	68.2
	1세대 가구 (230)	0.0	10.0	25.2	47.8	17.0	10.0	25.2	64.8
	2세대 가구 (527)	0.0	13.7	24.9	45.5	15.9	13.7	24.9	61.5
	3세대 가구 (3)	0.0	0.0	66.7	0.0	33.3	0.0	66.7	33.3
	비혈연 가구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표 4-68〉 여가생활(현재)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2	6.6	29.9	52.0	11.3	6.8	29.9	63.3	
성 별	남 성	(381)	0.5	6.8	32.8	48.0	11.8	7.3	32.8	59.8
	여 성	(425)	0.0	6.4	27.3	55.5	10.8	6.4	27.3	66.4
연 령	만50-54세	(254)	0.4	5.5	27.6	52.8	13.8	5.9	27.6	66.5
	만55-59세	(264)	0.4	6.8	29.5	53.0	10.2	7.2	29.5	63.3
	만60-64세	(288)	0.0	7.3	32.3	50.3	10.1	7.3	32.3	60.4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33.8	23.5	38.2	4.4	33.8	23.5	42.6
	중 부	(95)	0.0	1.1	27.4	66.3	5.3	1.1	27.4	71.6
	남 부	(242)	0.8	4.5	38.4	43.0	13.2	5.4	38.4	56.2
	동 남	(145)	0.0	0.7	24.8	60.0	14.5	0.7	24.8	74.5
	북 부	(136)	0.0	7.4	23.5	55.9	13.2	7.4	23.5	69.1
	동 부	(120)	0.0	5.8	31.7	52.5	10.0	5.8	31.7	62.5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4)	4.5	11.4	29.5	52.3	2.3	15.9	29.5	54.5
	1세대 가구	(230)	0.0	7.0	31.3	51.7	10.0	7.0	31.3	61.7
	2세대 가구	(527)	0.0	6.1	29.6	51.8	12.5	6.1	29.6	64.3
	3세대 가구	(3)	0.0	0.0	0.0	100.0	0.0	0.0	0.0	100.0
	비혈연 가구	(2)	0.0	0.0	0.0	50.0	50.0	0.0	0.0	100.0

(6) 배우자와의 관계

○ 50+세대는 퇴직 전·후로 각 68.9%, 67.9%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 전과 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9〉 배우자와의 관계(퇴직 전)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무응답	
전 체	(806)	0.0	2.6	22.2	57.1	11.8	6.3	2.6	22.2	68.9	6.3	
성 별	남 성	(381)	0.0	2.4	21.0	60.4	13.4	2.9	2.4	21.0	73.8	2.9
	여 성	(425)	0.0	2.8	23.3	54.1	10.4	9.4	2.8	23.3	64.5	9.4
연 령	만50-54세	(254)	0.0	3.5	18.5	59.4	11.0	7.5	3.5	18.5	70.5	7.5
	만55-59세	(264)	0.0	1.5	25.8	54.9	12.5	5.3	1.5	25.8	67.4	5.3
	만60-64세	(288)	0.0	2.8	22.2	56.9	11.8	6.3	2.8	22.2	68.8	6.3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무응답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13.2	69.1	7.4	10.3	0.0	13.2	76.5	10.3
	중 부	(95)	0.0	1.1	10.5	71.6	6.3	10.5	1.1	10.5	77.9	10.5
	남 부	(242)	0.0	2.9	25.2	49.6	17.8	4.5	2.9	25.2	67.4	4.5
	동 남	(145)	0.0	0.7	22.1	60.0	9.0	8.3	0.7	22.1	69.0	8.3
	북 부	(136)	0.0	5.1	28.7	52.9	11.0	2.2	5.1	28.7	64.0	2.2
	동 부	(120)	0.0	4.2	23.3	55.0	10.8	6.7	4.2	23.3	65.8	6.7
가 구 태	1인 가구	(44)	0.0	4.5	13.6	18.2	11.4	52.3	4.5	13.6	29.5	52.3
	1세대 가구	(230)	0.0	2.2	23.5	56.1	16.5	1.7	2.2	23.5	72.6	1.7
	2세대 가구	(527)	0.0	2.7	22.6	60.5	9.7	4.6	2.7	22.6	70.2	4.6
	3세대 가구	(3)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비혈연 가구	(2)	0.0	0.0	0.0	50.0	50.0	0.0	0.0	0.0	100.0	0.0

〈표 4-70〉 배우자와의 관계(현재)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무응답
전 체		(806)	0.1	1.6	25.1	58.3	9.6	5.3	1.7	25.1	67.9	5.3
성 별	남 성	(381)	0.3	1.0	23.9	63.5	8.4	2.9	1.3	23.9	71.9	2.9
	여 성	(425)	0.0	2.1	26.1	53.6	10.6	7.5	2.1	26.1	64.2	7.5
연 령	만50-54세	(254)	0.0	0.0	26.4	61.8	7.9	3.9	0.0	26.4	69.7	3.9
	만55-59세	(264)	0.4	1.1	27.3	54.9	12.5	3.8	1.5	27.3	67.4	3.8
	만60-64세	(288)	0.0	3.5	21.9	58.3	8.3	8.0	3.5	21.9	66.7	8.0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5.9	75.0	7.4	11.8	0.0	5.9	82.4	11.8
	중 부	(95)	0.0	1.1	24.2	63.2	6.3	5.3	1.1	24.2	69.5	5.3
	남 부	(242)	0.4	4.1	33.1	50.4	8.3	3.7	4.5	33.1	58.7	3.7
	동 남	(145)	0.0	0.0	13.8	66.9	12.4	6.9	0.0	13.8	79.3	6.9
	북 부	(136)	0.0	0.7	30.1	55.1	12.5	1.5	0.7	30.1	67.6	1.5
	동 부	(120)	0.0	0.8	28.3	54.2	9.2	7.5	0.8	28.3	63.3	7.5
가 구 태	1인 가구	(44)	2.3	0.0	9.1	9.1	4.5	75.0	2.3	9.1	13.6	75.0
	1세대 가구	(230)	0.0	3.9	26.1	57.8	12.2	0.0	3.9	26.1	70.0	0.0
	2세대 가구	(527)	0.0	0.8	26.0	62.4	8.9	1.9	0.8	26.0	71.3	1.9
	3세대 가구	(3)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비혈연 가구	(2)	0.0	0.0	50.0	50.0	0.0	0.0	0.0	50.0	50.0	0.0

(7) 자녀와의 관계

- 50+세대는 퇴직 전·후로 각 73.0%, 73.1%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1〉 자녀와의 관계(퇴직 전)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무응답
전 체	(806)	0.0	2.5	19.6	60.3	12.7	5.0	2.5	19.6	73.0	5.0
성 별	남 성 (381)	0.0	3.9	21.3	59.1	13.4	2.4	3.9	21.3	72.4	2.4
	여 성 (425)	0.0	1.2	18.1	61.4	12.0	7.3	1.2	18.1	73.4	7.3
연 령	만50-54세 (254)	0.0	2.8	16.9	59.4	13.4	7.5	2.8	16.9	72.8	7.5
	만55-59세 (264)	0.0	1.5	20.5	63.6	9.8	4.5	1.5	20.5	73.5	4.5
	만60-64세 (288)	0.0	3.1	21.2	58.0	14.6	3.1	3.1	21.2	72.6	3.1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1.5	17.6	64.7	11.8	4.4	1.5	17.6	76.5	4.4
	중 부 (95)	0.0	0.0	9.5	68.4	14.7	7.4	0.0	9.5	83.2	7.4
	남 부 (242)	0.0	2.1	22.3	59.5	13.2	2.9	2.1	22.3	72.7	2.9
	동 남 (145)	0.0	0.0	15.9	70.3	8.3	5.5	0.0	15.9	78.6	5.5
	북 부 (136)	0.0	6.6	27.2	51.5	12.5	2.2	6.6	27.2	64.0	2.2
동 부 (120)	0.0	4.2	19.2	50.8	15.8	10.0	4.2	19.2	66.7	10.0	
가 구 구 태	1인 가구 (44)	0.0	2.3	13.6	45.5	11.4	27.3	2.3	13.6	56.8	27.3
	1세대 가구 (230)	0.0	1.7	19.6	62.6	14.3	1.7	1.7	19.6	77.0	1.7
	2세대 가구 (527)	0.0	2.8	20.1	60.3	12.1	4.6	2.8	20.1	72.5	4.6
	3세대 가구 (3)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비혈연 가구 (2)	0.0	0.0	50.0	50.0	0.0	0.0	0.0	50.0	50.0	0.0

〈표 4-72〉 자녀와의 관계(현재)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무응답
전 체	(806)	0.1	1.0	24.1	58.9	14.1	1.7	1.1	24.1	73.1	1.7
성 별	남 성 (381)	0.3	1.3	25.2	58.0	13.4	1.8	1.6	25.2	71.4	1.8
	여 성 (425)	0.0	0.7	23.1	59.8	14.8	1.6	0.7	23.1	74.6	1.6
연 령	만50-54세 (254)	0.0	1.6	22.8	55.1	17.3	3.1	1.6	22.8	72.4	3.1
	만55-59세 (264)	0.4	0.0	22.7	61.0	15.5	0.4	0.4	22.7	76.5	0.4
	만60-64세 (288)	0.0	1.4	26.4	60.4	10.1	1.7	1.4	26.4	70.5	1.7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무응답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1.5	13.2	72.1	8.8	4.4	1.5	13.2	80.9	4.4
	중 부 (95)	0.0	0.0	14.7	74.7	9.5	1.1	0.0	14.7	84.2	1.1
	남 부 (242)	0.4	2.9	29.3	51.2	15.7	0.4	3.3	29.3	66.9	0.4
	동 남 (145)	0.0	0.0	21.4	58.6	17.2	2.8	0.0	21.4	75.9	2.8
	북 부 (136)	0.0	0.0	32.4	52.2	14.0	1.5	0.0	32.4	66.2	1.5
	동 부 (120)	0.0	0.0	20.8	62.5	14.2	2.5	0.0	20.8	76.7	2.5
가 구 태	1인 가구 (44)	2.3	2.3	18.2	50.0	2.3	25.0	4.5	18.2	52.3	25.0
	1세대 가구 (230)	0.0	1.7	27.0	56.5	14.8	0.0	1.7	27.0	71.3	0.0
	2세대 가구 (527)	0.0	0.6	23.0	60.9	15.0	0.6	0.6	23.0	75.9	0.6
	3세대 가구 (3)	0.0	0.0	33.3	66.7	0.0	0.0	0.0	33.3	66.7	0.0
	비혈연 가구 (2)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8) 사회적 친분 관계

- 50+세대는 퇴직 전·후로 각 69.2%, 68.6%가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 전과 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해 만족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3> 사회적 친분 관계(퇴직 전)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무응답
전 체	(806)	0.0	1.7	28.9	56.5	12.8	0.1	1.7	28.9	69.2	0.1
성 별	남 성 (381)	0.0	2.9	29.4	54.6	12.9	0.3	2.9	29.4	67.5	0.3
	여 성 (425)	0.0	0.7	28.5	58.1	12.7	0.0	0.7	28.5	70.8	0.0
연 령	만50-54세 (254)	0.0	3.1	28.3	57.5	11.0	0.0	3.1	28.3	68.5	0.0
	만55-59세 (264)	0.0	1.5	27.7	53.8	16.7	0.4	1.5	27.7	70.5	0.4
	만60-64세 (288)	0.0	0.7	30.6	58.0	10.8	0.0	0.7	30.6	68.8	0.0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29.4	66.2	4.4	0.0	0.0	29.4	70.6	0.0
	중 부 (95)	0.0	1.1	38.9	57.9	2.1	0.0	1.1	38.9	60.0	0.0
	남 부 (242)	0.0	0.8	29.3	52.1	17.8	0.0	0.8	29.3	69.8	0.0
	동 남 (145)	0.0	0.0	29.7	55.2	14.5	0.7	0.0	29.7	69.7	0.7
	북 부 (136)	0.0	5.1	25.7	52.9	16.2	0.0	5.1	25.7	69.1	0.0
	동 부 (120)	0.0	3.3	22.5	64.2	10.0	0.0	3.3	22.5	74.2	0.0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무응답	
가구 형태	1인 가구	(44)	0.0	0.0	11.4	77.3	11.4	0.0	0.0	11.4	88.6	0.0
	1세대 가구	(230)	0.0	0.4	35.7	52.6	11.3	0.0	0.4	35.7	63.9	0.0
	2세대 가구	(527)	0.0	2.5	27.5	56.4	13.5	0.2	2.5	27.5	69.8	0.2
	3세대 가구	(3)	0.0	0.0	33.3	33.3	33.3	0.0	0.0	33.3	66.7	0.0
	비혈연 가구	(2)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표 4-74〉 사회적 친분 관계(현재)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1	2.4	28.9	56.2	12.4	2.5	28.9	68.6	
성 별	남 성	(381)	0.3	3.1	30.2	55.4	11.0	3.4	30.2	66.4
	여 성	(425)	0.0	1.6	27.8	56.9	13.6	1.6	27.8	70.6
연 령	만50-54세	(254)	0.0	1.6	22.0	59.1	17.3	1.6	22.0	76.4
	만55-59세	(264)	0.4	0.4	31.1	58.3	9.8	0.8	31.1	68.2
	만60-64세	(288)	0.0	4.9	33.0	51.7	10.4	4.9	33.0	62.2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38.2	50.0	11.8	0.0	38.2	61.8
	중 부	(95)	0.0	2.1	29.5	56.8	11.6	2.1	29.5	68.4
	남 부	(242)	0.4	2.9	28.9	52.5	15.3	3.3	28.9	67.8
	동 남	(145)	0.0	0.0	23.4	66.9	9.7	0.0	23.4	76.6
	북 부	(136)	0.0	3.7	29.4	50.7	16.2	3.7	29.4	66.9
가 구 형 태	동 부	(120)	0.0	4.2	29.2	60.0	6.7	4.2	29.2	66.7
	1인 가구	(44)	2.3	2.3	36.4	59.1	0.0	4.5	36.4	59.1
	1세대 가구	(230)	0.0	3.9	28.7	54.8	12.6	3.9	28.7	67.4
	2세대 가구	(527)	0.0	1.7	28.5	56.4	13.5	1.7	28.5	69.8
	3세대 가구	(3)	0.0	0.0	0.0	100.0	0.0	0.0	0.0	100.0
비혈연 가구	(2)	0.0	0.0	50.0	50.0	0.0	0.0	50.0	50.0	

(9) 친인척 관계

○ 50+세대는 퇴직 전·후로 각 76.9%, 72.2%가 친인척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 전과 후 모두 성별에 따른 친인척 관계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었음.
- 연령별로 보면, 퇴직 전에는 만 60-64세의 친인척 관계 만족도가 78.8%로 가장

높았으나, 퇴직 후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친인척 관계 만족도가 낮았음(74.0%→73.1%→69.8%).

〈표 4-75〉 친인척 관계(퇴직 전)

[단위: %, n=806]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0	0.9	22.2	64.1	12.8	0.9	22.2	76.9
성 별	남 성	(381)	0.0	1.8	21.5	64.0	12.6	1.8	21.5	76.6
	여 성	(425)	0.0	0.0	22.8	64.2	12.9	0.0	22.8	77.2
연 령	만50-54세	(254)	0.0	1.6	22.0	65.0	11.4	1.6	22.0	76.4
	만55-59세	(264)	0.0	0.8	23.9	61.4	14.0	0.8	23.9	75.4
	만60-64세	(288)	0.0	0.3	20.8	66.0	12.8	0.3	20.8	78.8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29.4	69.1	1.5	0.0	29.4	70.6
	중 부	(95)	0.0	0.0	28.4	63.2	8.4	0.0	28.4	71.6
	남 부	(242)	0.0	1.7	21.1	62.0	15.3	1.7	21.1	77.3
	동 남	(145)	0.0	0.7	16.6	66.9	15.9	0.7	16.6	82.8
	북 부	(136)	0.0	0.0	27.9	58.8	13.2	0.0	27.9	72.1
	동 부	(120)	0.0	1.7	15.8	69.2	13.3	1.7	15.8	82.5
가 구 태	1인 가구	(44)	0.0	4.5	20.5	54.5	20.5	4.5	20.5	75.0
	1세대 가구	(230)	0.0	0.4	18.3	70.0	11.3	0.4	18.3	81.3
	2세대 가구	(527)	0.0	0.8	24.1	62.2	12.9	0.8	24.1	75.1
	3세대 가구	(3)	0.0	0.0	33.3	66.7	0.0	0.0	33.3	66.7
	비혈연 가구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표 4-76〉 친인척 관계(현재)

[단위: %, n=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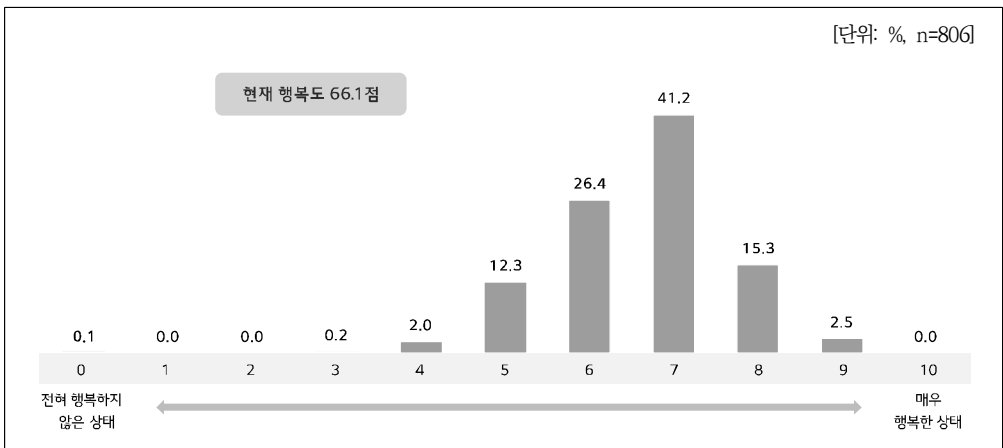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전 체		(806)	0.1	0.4	27.3	64.9	7.3	0.5	27.3	72.2
성 별	남 성	(381)	0.3	0.8	27.0	66.4	5.5	1.0	27.0	71.9
	여 성	(425)	0.0	0.0	27.5	63.5	8.9	0.0	27.5	72.5
연 령	만50-54세	(254)	0.0	0.4	25.6	66.9	7.1	0.4	25.6	74.0
	만55-59세	(264)	0.4	0.8	25.8	65.2	8.0	1.1	25.8	73.1
	만60-64세	(288)	0.0	0.0	30.2	62.8	6.9	0.0	30.2	69.8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0.0	30.9	69.1	0.0	0.0	30.9	69.1
	중 부	(95)	0.0	0.0	29.5	65.3	5.3	0.0	29.5	70.5
	남 부	(242)	0.4	0.8	31.8	55.8	11.2	1.2	31.8	66.9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불만족	보통							만족		
50+ 캠퍼스 권역별	동	남	(145)	0.0	0.0	15.2	73.8	11.0	0.0	15.2	84.8
	북	부	(136)	0.0	0.0	29.4	64.7	5.9	0.0	29.4	70.6
	동	부	(120)	0.0	0.8	26.7	70.0	2.5	0.8	26.7	72.5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4)	2.3	2.3	36.4	50.0	9.1	4.5	36.4	59.1
	1세대	가구	(230)	0.0	0.0	27.0	65.7	7.4	0.0	27.0	73.0
	2세대	가구	(527)	0.0	0.4	26.8	65.7	7.2	0.4	26.8	72.9
	3세대	가구	(3)	0.0	0.0	33.3	66.7	0.0	0.0	33.3	66.7
	비혈연	가구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2) 현재 행복도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현재 행복도는 평균 66.1점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의 행복도가 63.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3세대 가구에서 1인 가구로 갈수록 50+세대가 느끼는 행복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65] 현재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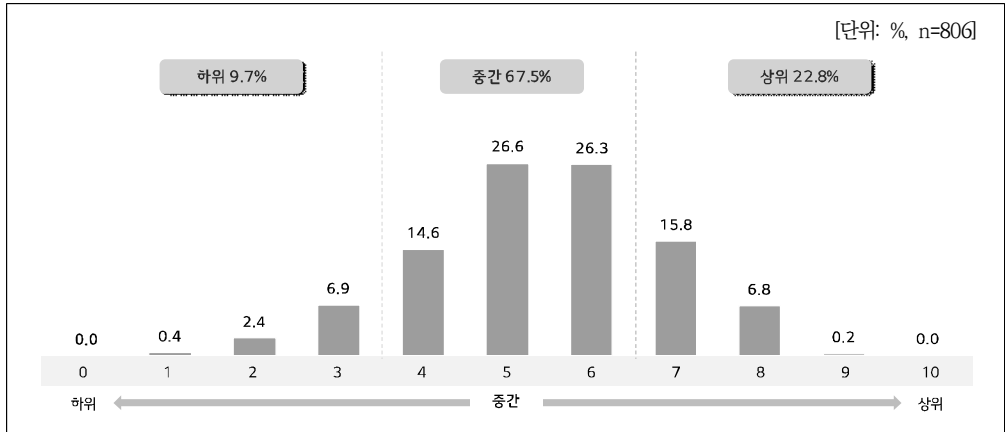
〈표 4-77〉 현재 행복도

[단위: %, n=806]

		사례 수	행복하지 않음	보통	행복함	현재 행복도
전 체		(806)	2.4	12.3	85.4	66.1
성 별	남 성	(381)	3.4	12.3	84.3	65.8
	여 성	(425)	1.4	12.2	86.4	66.4
연 령	만50-54세	(254)	2.8	11.4	85.8	67.0
	만55-59세	(264)	1.9	10.2	87.9	65.8
	만60-64세	(288)	2.4	14.9	82.6	65.7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0.0	11.8	88.2	68.2
	중 부	(95)	1.1	10.5	88.4	66.2
	남 부	(242)	2.5	14.0	83.5	65.0
	동 남	(145)	5.5	4.8	89.7	68.3
	북 부	(136)	1.5	11.8	86.8	66.3
	동 부	(120)	1.7	20.0	78.3	64.3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4)	6.8	6.8	86.4	63.4
	1세대 가구	(230)	3.5	20.4	76.1	64.0
	2세대 가구	(527)	1.3	9.3	89.4	67.3
	3세대 가구	(3)	0.0	0.0	100.0	70.0
	비혈연 가구	(2)	50.0	0.0	50.0	60.0

3) 주관적 사회적 위치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서울시 50+세대 중 67.5%는 본인이 사회적으로 ‘중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하위’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31.8%로 크게 높았음.



[그림 4-66] 주관적 사회적 위치

〈표 4-78〉 주관적 사회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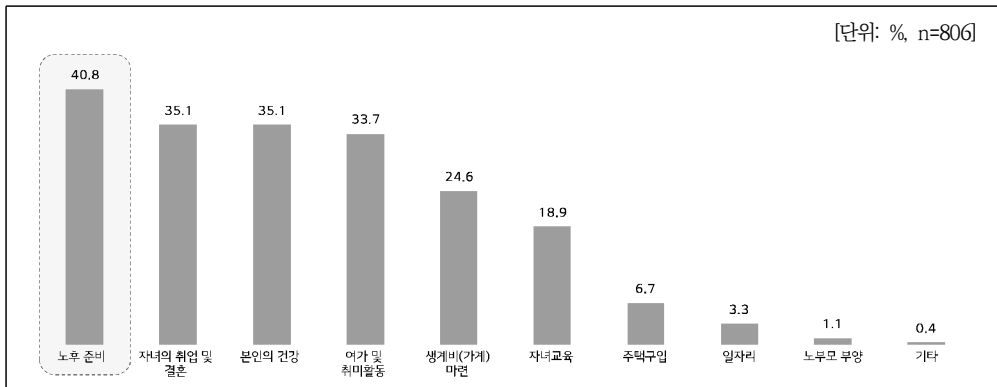
[단위: %, n=806]

		사례 수	하위	중간	상위
전 체		(806)	9.7	67.5	22.8
성 별	남 성	(381)	8.4	70.6	21.0
	여 성	(425)	10.8	64.7	24.5
연 령	만50-54세	(254)	5.9	70.1	24.0
	만55-59세	(264)	11.7	61.0	27.3
	만60-64세	(288)	11.1	71.2	17.7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2.9	42.6	54.4
	중 부	(95)	9.5	67.4	23.2
	남 부	(242)	9.5	68.6	21.9
	동 남	(145)	20.0	60.0	20.0
	북 부	(136)	3.7	75.0	21.3
	동 부	(120)	8.3	80.0	11.7
가 구 구 태	1인 가구	(44)	31.8	63.6	4.5
	1세대 가구	(230)	13.9	65.2	20.9
	2세대 가구	(527)	6.1	68.7	25.2
	3세대 가구	(3)	0.0	66.7	33.3
	비혈연 가구	(2)	0.0	100.0	0.0

4) 최근 관심사

○ 50+세대의 가장 큰 최근의 관심사는 ‘노후 준비’(40.8%)인 것으로 나타남.

- 이어, ‘자녀의 취업 및 결혼’, ‘본인의 건강’(각 35.1%), ‘여가 및 취미활동’(33.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여성은 ‘자녀의 취업 및 결혼’, ‘노후준비’ 순으로 많았고, 남성은 ‘노후준비’, ‘본인의 건강’ 순으로 많았음.
- 연령별로 보면, 만50-54세는 ‘자녀의 취업 및 결혼’이 가장 많았고, 만 55-59세는 ‘노후준비’, 만 60-64세는 ‘본인의 건강’으로 나타나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50+캠퍼스 권역별로 보면, 동부권의 경우 다른 권역과 달리 ‘여가 및 취미활동’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4-67] 최근 관심사 - 1+2순위

〈표 4-79〉 최근 관심사

[단위: %, n=806]

1+2순위		사례 수	노후준비	자녀의 취업 및 결혼	본인의 건강	여가 및 취미활동	생계비 (가계) 마련	자녀교육
전 체		(806)	40.8	35.1	35.1	33.7	24.6	18.9
성 별	남 성	(381)	40.9	27.3	39.9	32.3	24.4	19.9
	여 성	(425)	40.7	42.1	30.8	35.1	24.7	17.9
연 령	만50-54세	(254)	37.4	40.6	23.2	25.6	19.7	37.0
	만55-59세	(264)	43.2	39.4	31.1	38.3	22.0	15.5
	만60-64세	(288)	41.7	26.4	49.3	36.8	31.3	5.9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45.6	51.5	36.8	26.5	14.7	20.6
	중 부	(95)	51.6	31.6	34.7	26.3	25.3	15.8
	남 부	(242)	41.7	31.4	34.7	27.3	31.0	22.3
	동 남	(145)	41.4	30.3	31.0	38.6	21.4	24.1
	북 부	(136)	36.8	39.0	36.8	38.2	23.5	11.8
가 구 태	동 부	(120)	31.7	37.5	38.3	45.8	21.7	15.0
	1인 가구	(44)	43.2	15.9	40.9	31.8	61.4	4.5
	1세대 가구	(230)	45.2	23.0	47.4	45.2	25.7	6.5
	2세대 가구	(527)	39.1	42.1	29.2	29.0	20.7	25.2
	3세대 가구	(3)	0.0	33.3	33.3	0.0	66.7	66.7
	비혈연 가구	(2)	0.0	0.0	50.0	50.0	50.0	0.0

5) 자아존중감

○ 50+세대의 자아존중감은 65.3점으로 나타남.

〈표 4-80〉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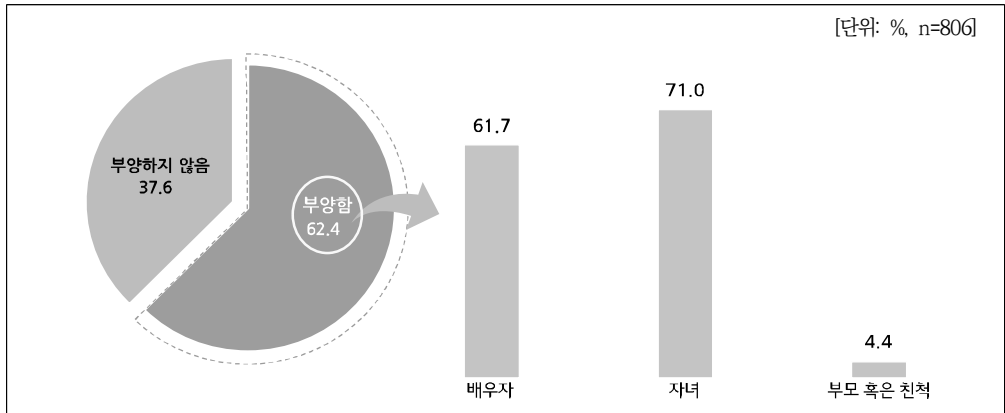
[단위: 점, n=806]

		전 체	남	여	만50-54세	만55-59세	만60-64세	서 부	중 부	남 부	동 남	북 부	동 부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비혈연 가구
성 별	성	(806)	65.3	75.9	71.0	64.6	66.7	53.8	68.9	67.3	46.0	69.7	69.3					
	성	(381)	64.9	75.5	71.1	63.5	67.7	52.8	67.8	66.9	46.2	69.6	67.9					
연 령	성	(425)	65.7	76.3	70.9	65.6	65.9	54.8	69.9	67.7	45.8	69.7	70.5					
	성	(254)	66.8	77.4	73.5	65.1	68.4	53.1	71.3	68.3	47.0	72.7	71.4					
50+ 캠퍼스 권역별	성	(264)	65.1	75.9	69.6	65.5	68.6	54.8	68.6	69.0	43.4	68.0	67.5					
	성	(288)	64.2	74.6	70.1	63.4	63.6	53.6	67.2	64.8	47.5	68.5	69.1					
가 구 형태	성	(68)	63.7	85.3	69.5	63.6	71.3	49.6	68.8	61.0	36.8	64.3	66.5					
	성	(95)	63.8	77.4	70.3	64.5	69.5	47.1	69.1	62.6	49.7	63.9	63.4					
구 분	성	(242)	61.0	70.4	66.7	58.6	61.7	48.3	65.4	65.1	41.9	63.9	67.5					
	성	(145)	70.1	77.9	78.4	68.6	65.7	65.9	71.2	70.5	48.8	78.6	75.0					
구 분	성	(136)	67.0	75.6	69.1	65.4	68.0	53.1	70.4	70.8	50.0	75.6	71.9					
	성	(120)	68.8	78.5	74.2	71.7	72.1	59.0	71.7	71.3	48.5	71.3	69.4					
구 분	성	(44)	63.0	75.6	72.2	55.7	63.1	54.5	65.7	65.9	47.7	66.5	62.5					
	성	(230)	65.1	74.0	67.6	66.2	64.8	55.5	68.5	65.7	47.2	69.9	71.7					
구 분	성	(527)	65.7	76.8	72.4	64.6	67.9	53.1	69.4	68.2	45.3	69.9	68.9					
	성	(3)	67.5	75.0	75.0	91.7	66.7	50.0	66.7	75.0	50.0	66.7	58.3					
구 분	성	(2)	55.0	62.5	62.5	50.0	75.0	50.0	62.5	37.5	37.5	50.0	62.5					
	성	(2)	55.0	62.5	62.5	50.0	75.0	50.0	62.5	37.5	37.5	50.0	62.5					

6) 가족 부양

○ 50+세대의 62.4%는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양가족은 '자녀'(71.0%), '배우자'(61.7%) 등의 순이었음.



[그림 4-68] 가족 부양 여부 및 부양가족

<표 4-81> 가족 부양 여부 및 부양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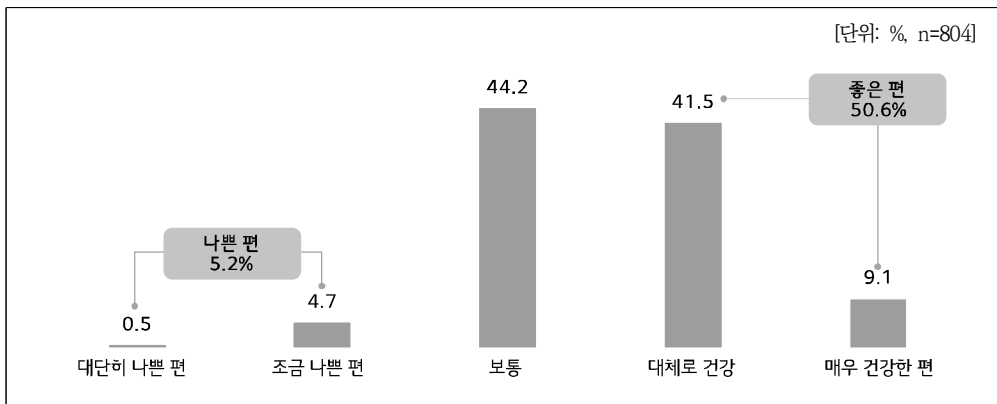
[단위: %, n=806]

	가족 부양 여부			부양중인 가족				
	사례 수	부양	부양하지 않음	사례 수	배우자	자녀	부모 혹은 친척	
전 체	(806)	62.4	37.6	(504)	61.7	71.0	4.4	
성별	남성	(381)	75.0	25.0	(285)	82.8	64.6	3.2
	여성	(425)	51.1	48.9	(219)	34.2	79.5	5.9
연령	만50-54세	(254)	67.7	32.3	(174)	47.7	90.2	5.2
	만55-59세	(264)	69.3	30.7	(183)	56.3	80.9	4.4
	만60-64세	(288)	51.2	48.8	(147)	85.0	36.1	3.4
50+ 캠퍼스 권역별	서부	(68)	63.2	36.8	(43)	58.1	83.7	0.0
	중부	(95)	57.9	42.1	(55)	61.8	67.3	7.3
	남부	(242)	59.8	40.2	(144)	61.1	61.1	7.6
	동남	(145)	59.3	40.7	(87)	60.9	69.0	4.6
	북부	(136)	75.7	24.3	(104)	58.7	83.7	2.9
	동부	(120)	59.2	40.8	(71)	70.4	70.4	0.0
가구 형태	1인 가구	(44)	27.0	73.0	(1)	0.0	100.0	0.0
	1세대 가구	(230)	65.9	34.1	(120)	75.8	26.7	1.7
	2세대 가구	(527)	2.3	97.7	(380)	57.6	85.0	5.0
	3세대 가구	(3)	52.2	47.8	(3)	33.3	66.7	33.3
	비혈연 가구	(2)	71.9	28.1	38.0	-	37.5	37.5

7) 주관적 건강 상태

○ 50+세대의 50.6%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건강한 편(대체로 건강 41.5% + 매우 건강한 편 9.1%)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60세를 기점으로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4-69] 주관적 건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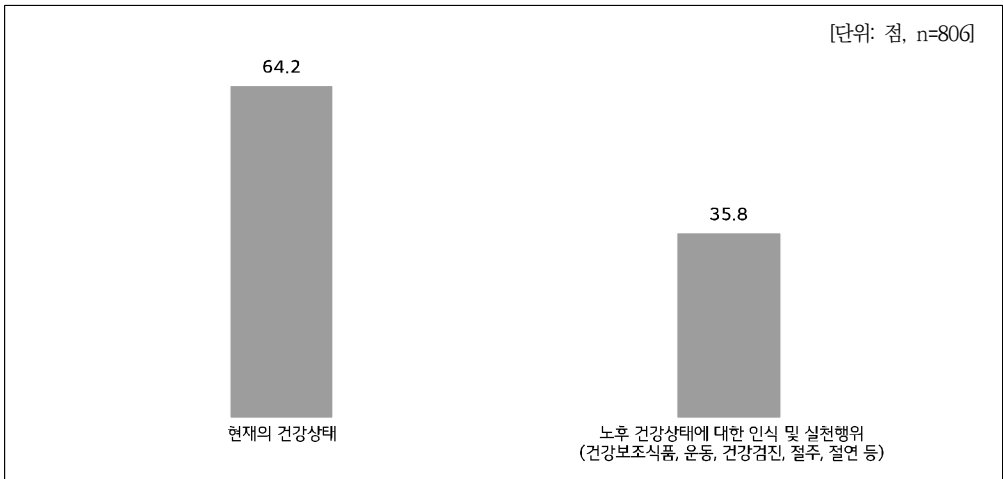
<표 4-82>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 n=804]

	사례 수	대단히 나쁜 편	조금 나쁜 편	보통	대체로 건강	매우 건강한 편	종합평가			
							나쁜 편	보통	건강한 편	
전 체	(804)	0.5	4.7	44.2	41.5	9.1	5.2	44.2	50.6	
성 별	남 성	(381)	0.5	6.0	40.7	44.4	8.4	6.6	40.7	52.8
	여 성	(423)	0.5	3.5	47.3	39.0	9.7	4.0	47.3	48.7
연 령	만50-54세	(253)	0.4	4.0	37.9	45.5	12.3	4.3	37.9	57.7
	만55-59세	(263)	0.4	2.3	46.0	44.9	6.5	2.7	46.0	51.3
	만60-64세	(288)	0.7	7.6	47.9	35.1	8.7	8.3	47.9	43.8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1.5	5.9	27.9	54.4	10.3	7.4	27.9	64.7
	중 부	(95)	0.0	3.2	40.0	44.2	12.6	3.2	40.0	56.8
	남 부	(242)	0.4	7.0	54.5	33.1	5.0	7.4	54.5	38.0
	동 남	(144)	0.0	0.7	45.8	43.1	10.4	0.7	45.8	53.5
	북 부	(136)	0.7	5.1	41.2	41.2	11.8	5.9	41.2	52.9
	동 부	(119)	0.8	5.0	37.0	47.9	9.2	5.9	37.0	57.1
가 구 태	1인 가구	(44)	0.0	11.4	38.6	36.4	13.6	11.4	38.6	50.0
	1세대 가구	(229)	0.9	6.6	55.0	28.4	9.2	7.4	55.0	37.6
	2세대 가구	(526)	0.4	3.4	39.5	47.9	8.7	3.8	39.5	56.7
	3세대 가구	(3)	0.0	0.0	66.7	33.3	0.0	0.0	66.7	33.3
	비혈연 가구	(2)	0.0	0.0	100.0	0.0	0.0	0.0	100.0	0.0

8) 노후 건강에 중요한 요인

○ 50+세대는 노후 건강에 있어서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위’(35.8점) 보다는 ‘현재의 건강상태’(64.2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70] 노후 건강에 중요한 요인

<표 4-83> 노후 건강에 중요한 요인

[단위: 점, n=806]

		사례 수	현재의 건강상태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위
전 체		(806)	64.2	35.8
성 별	남 성	(381)	64.8	35.2
	여 성	(425)	63.7	36.3
연 령	만50-54세	(254)	64.0	36.0
	만55-59세	(264)	63.7	36.3
	만60-64세	(288)	64.9	35.1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59.5	40.5
	중 부	(95)	58.3	41.8
	남 부	(242)	65.7	34.3
	동 남	(145)	64.7	35.3
	북 부	(136)	67.8	32.2
	동 부	(120)	63.9	36.1
가 구 태	1인 가구	(44)	57.7	42.3
	1세대 가구	(230)	64.8	35.2
	2세대 가구	(527)	64.6	35.4
	3세대 가구	(3)	50.0	50.0
	비혈연 가구	(2)	60.0	44.5

2. 노후 준비

1) 노후

(1) 노후 시작 연령

- 50+세대는 평균적으로 68.5세부터 노후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50+캠퍼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부'가 69.9세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동부'는 67.4세로 가장 낮았음.

〈표 4-84〉 노후 시작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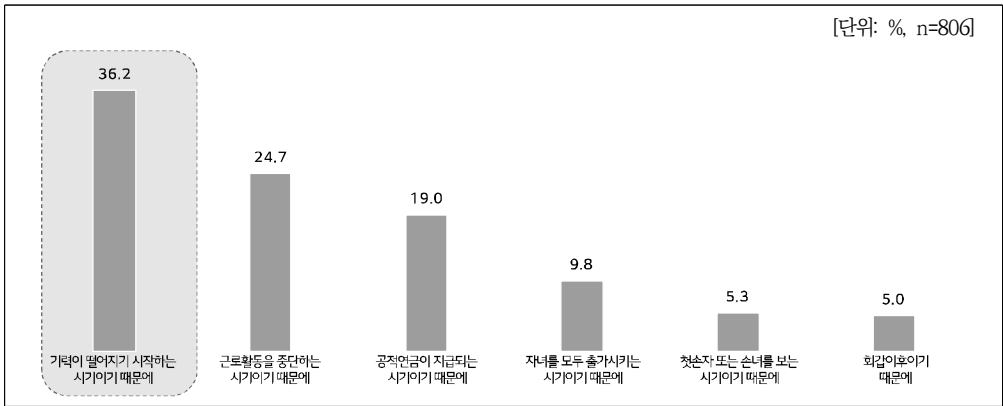
[단위: 세, n=806]

		사례 수	노후 시작 연령(세)
전 체		(806)	68.5
성 별	남 성	(381)	69.0
	여 성	(425)	68.0
연 령	만50-54세	(254)	67.7
	만55-59세	(264)	69.0
	만60-64세	(288)	68.8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69.9
	중 부	(95)	67.3
	남 부	(242)	69.1
	동 남	(145)	68.3
	북 부	(136)	68.9
	동 부	(120)	67.4
가 구 태	1인 가구	(44)	66.8
	1세대 가구	(230)	68.7
	2세대 가구	(527)	68.5
	3세대 가구	(3)	71.0
	비혈연 가구	(2)	70.0

(2) 노후 시작 연령 이유

○ 노후 시작 연령의 이유로는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라는 건강상의 이유가 36.2%로 가장 많았음.

- 이어,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24.7%),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71] 노후 시작 연령 이유

<표 4-85> 노후 시작 연령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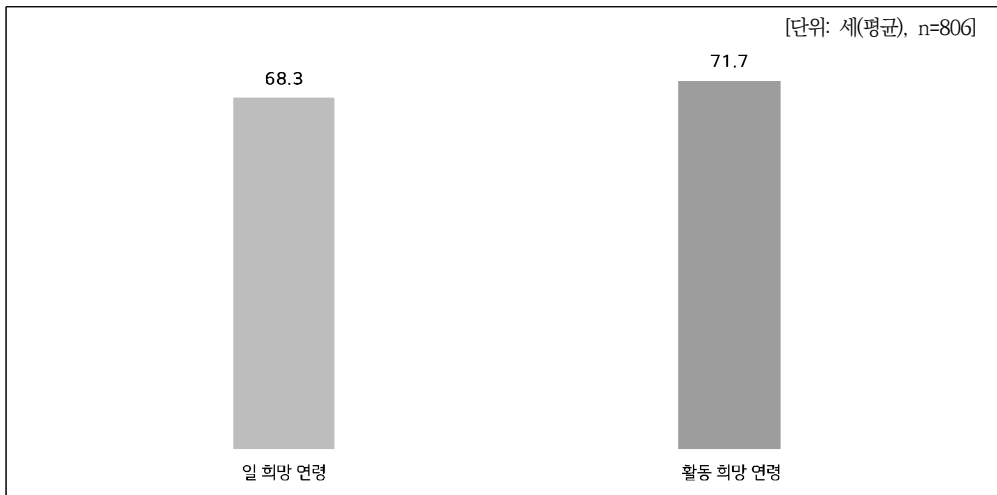
[단위: %, n=806]

		사례 수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첫손자 또는 손녀를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갑이후이기 때문에
전 체		(806)	36.2	24.7	19.0	9.8	5.3	5.0
성 별	남 성	(381)	36.5	24.9	18.1	10.2	5.2	5.0
	여 성	(425)	36.0	24.5	19.8	9.4	5.4	4.9
연 령	만50-54세	(254)	33.1	27.2	24.0	6.3	6.3	3.1
	만55-59세	(264)	36.4	23.9	18.9	11.7	4.5	4.5
	만60-64세	(288)	38.9	23.3	14.6	11.1	5.2	6.9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38.2	42.6	14.7	2.9	0.0	1.5
	중 부	(95)	32.6	15.8	23.2	21.1	5.3	2.1
	남 부	(242)	31.4	32.2	14.5	6.6	5.8	9.5
	동 남	(145)	37.9	20.7	16.6	12.4	8.3	4.1
	북 부	(136)	39.7	19.1	21.3	11.0	5.9	2.9
	동 부	(120)	41.7	17.5	27.5	6.7	3.3	3.3
가 구 태	1인 가구	(44)	36.4	20.5	25.0	9.1	2.3	6.8
	1세대 가구	(230)	42.2	24.3	15.7	5.7	3.9	8.3
	2세대 가구	(527)	33.6	25.2	19.9	11.6	6.3	3.4
	3세대 가구	(3)	66.7	33.3	0.0	0.0	0.0	0.0
	비혈연 가구	(2)	0.0	0.0	50.0	50.0	0.0	0.0

2) 일과 활동 희망 연령

○ 50+세대는 평균 68.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평균 71.1세까지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은 여성보다 일(남성: 69.8세, 여성: 67.0세)과 활동(남성: 72.8세, 여성: 70.7세) 희망 연령이 높았음.
- 연령별 일·활동 희망 연령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4-72] 일과 활동 희망 연령

<표 4-86> 일과 활동 희망 연령

[단위: 세(평균), n=806]

		사례 수	일 희망 연령(세)	활동 희망 연령(세)
전 체		(806)	68.3	71.7
성 별	남 성	(381)	69.8	72.8
	여 성	(425)	67.0	70.7
연 령	만50-54세	(254)	66.9	71.2
	만55-59세	(264)	68.4	71.6
	만60-64세	(288)	69.4	72.1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69.6	70.8
	중 부	(95)	68.8	72.7
	남 부	(242)	68.4	73.1
	동 남	(145)	67.9	70.3
	북 부	(136)	68.4	70.8
	동 부	(120)	67.3	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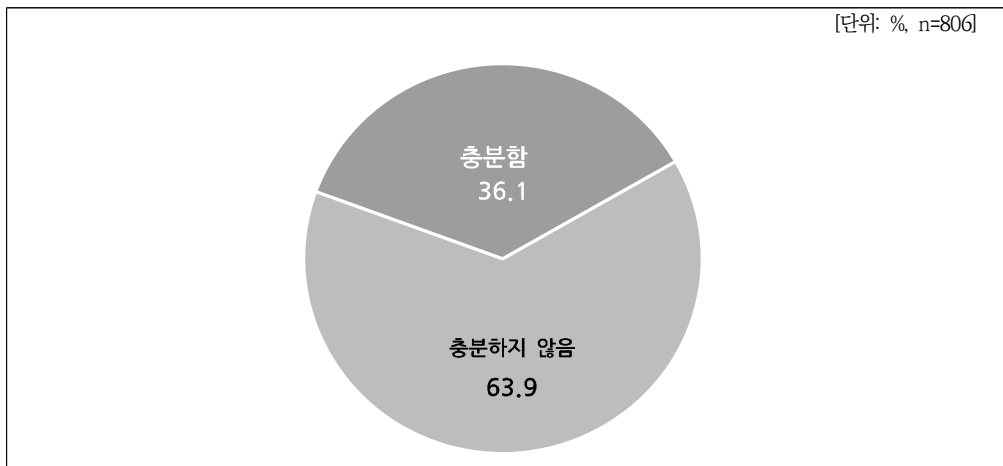
		사례 수	일 희망 연령(세)	활동 희망 연령(세)
가 구 태	1인 가구	(44)	67.5	71.5
	1세대 가구	(230)	68.2	71.7
	2세대 가구	(527)	68.4	71.7
	3세대 가구	(3)	66.7	67.7
	비혈연 가구	(2)	72.5	80.0

3)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현황

(1)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 50+세대의 63.9%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을 50+캠퍼스 권역별로 살펴보면, '남부'가 71.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동남'(69.0%), '중부'(65.3%), '서부'(6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73]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표 4-87>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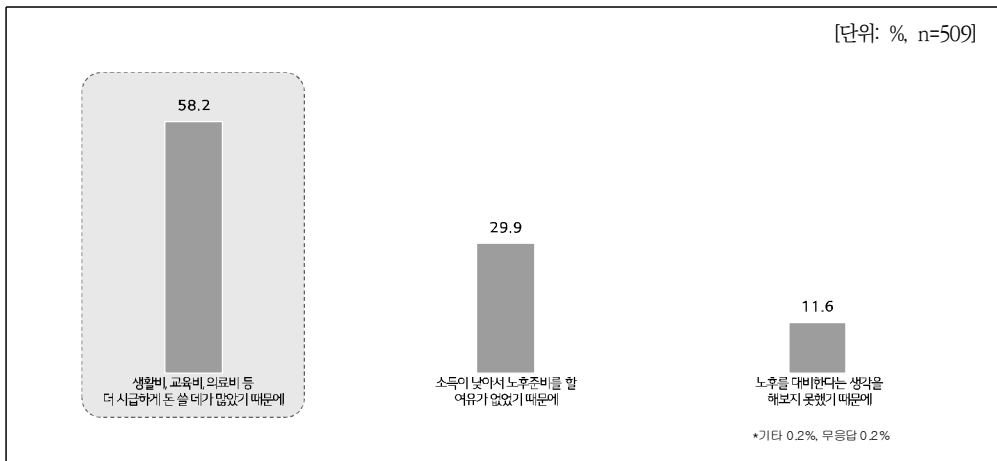
[단위: %, n=806]

		사례 수	충분함	충분하지 않음
전 체		(806)	36.1	63.9
성 별	남 성	(381)	40.2	59.8
	여 성	(425)	32.5	67.5

		사례 수	충분함	충분하지 않음
연 령	만50-54세	(254)	34.6	65.4
	만55-59세	(264)	31.1	68.9
	만60-64세	(288)	42.0	58.0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35.3	64.7
	중 부	(95)	34.7	65.3
	남 부	(242)	28.5	71.5
	동 남	(145)	31.0	69.0
	북 부	(136)	47.8	52.2
	동 부	(120)	45.8	54.2
가 구 형 태	1인 가구	(44)	18.2	81.8
	1세대 가구	(230)	38.3	61.7
	2세대 가구	(527)	36.6	63.4
	3세대 가구	(3)	66.7	33.3
	비혈연 가구	(2)	0.0	100.0

(2)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치 못한 이유

- 50+세대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이유로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았기 때문에’(58.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이어, ‘소득이 낮아서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29.9%),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11.6%) 순으로 나타남.



[그림 4-74]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치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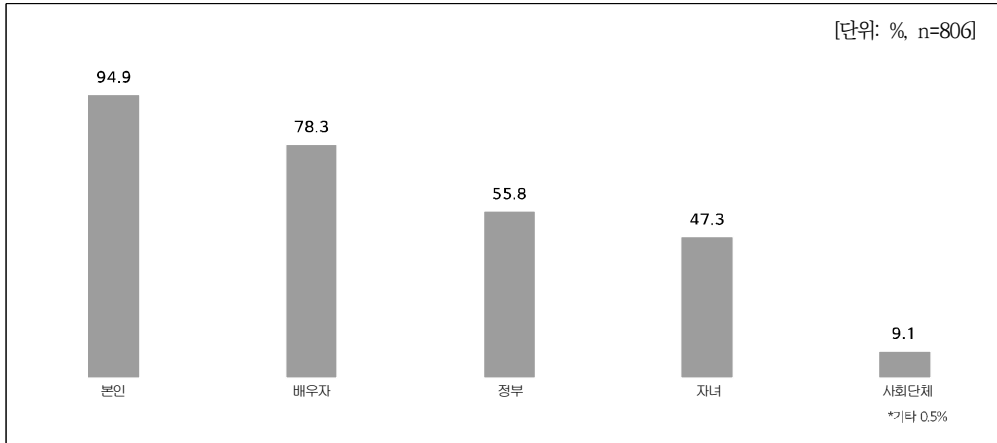
〈표 4-88〉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치 못한 이유

[단위: %, n=509]

		사례 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서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타	무응답
전 체		(509)	58.2	29.9	11.6	0.2	0.2
성 별	남 성	(224)	59.4	28.1	12.5	0.0	0.0
	여 성	(285)	57.2	31.2	10.9	0.4	0.4
연 령	만50-54세	(165)	63.6	23.0	12.7	0.6	0.0
	만55-59세	(177)	60.5	28.8	10.7	0.0	0.0
	만60-64세	(167)	50.3	37.7	11.4	0.0	0.6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43)	55.8	25.6	18.6	0.0	0.0
	중 부	(61)	70.5	21.3	8.2	0.0	0.0
	남 부	(170)	54.7	35.3	10.0	0.0	0.0
	동 남	(100)	65.0	27.0	6.0	1.0	1.0
	북 부	(72)	50.0	36.1	13.9	0.0	0.0
	동 부	(63)	55.6	23.8	20.6	0.0	0.0
가 구 태	1인 가구	(36)	33.3	41.7	22.2	2.8	0.0
	1세대 가구	(142)	48.6	38.7	12.0	0.0	0.7
	2세대 가구	(328)	64.6	25.0	10.4	0.0	0.0
	3세대 가구	(1)	100.0	0.0	0.0	0.0	0.0
	비혈연 가구	(2)	100.0	0.0	0.0	0.0	0.0

4) 노후대책 마련 주요 역할자

- 50+세대는 노후 대책을 위해 주로 ‘본인’(94.9%)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 ‘배우자’(78.3%), ‘정부’(55.8%), ‘자녀’(47.3%), ‘사회단체’(9.1%)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4-75] 노후대책 마련 주요 역할자 - 1+2+3순위

<표 4-89> 노후대책 마련 주요 역할자 -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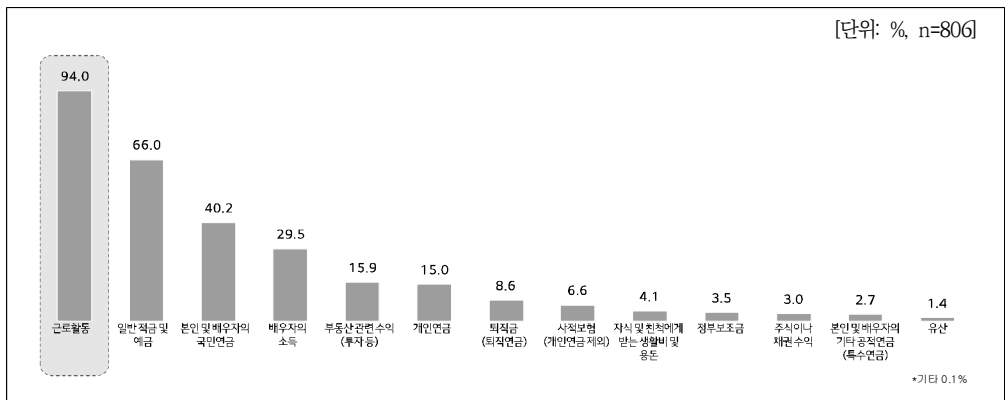
[단위: %, n=806]

1+2+3순위		사례 수	본인	배우자	정부	자녀	사회단체	기타
전 체		(806)	94.9	78.3	55.8	47.3	9.1	0.5
성 별	남 성	(381)	97.6	68.0	55.4	48.6	11.5	1.0
	여 성	(425)	92.5	87.5	56.2	46.1	6.8	0.0
연 령	만50-54세	(254)	96.9	84.3	54.3	42.5	9.1	0.4
	만55-59세	(264)	95.1	78.8	49.2	52.3	5.7	0.4
	만60-64세	(288)	93.1	72.6	63.2	46.9	12.2	0.7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98.5	85.3	22.1	48.5	8.8	0.0
	중 부	(95)	95.8	66.3	63.2	49.5	5.3	1.1
	남 부	(242)	90.9	81.4	66.9	37.2	14.9	0.8
	동 남	(145)	96.6	75.2	47.6	52.4	2.1	0.7
	북 부	(136)	100.7	84.6	47.1	55.9	4.4	0.0
	동 부	(120)	91.7	74.2	66.7	49.2	14.2	0.0
가 구 태	1인 가구	(44)	97.7	20.5	86.4	45.5	25.0	0.0
	1세대 가구	(230)	91.7	80.0	64.3	40.4	14.3	1.3
	2세대 가구	(527)	96.0	82.4	49.9	50.3	5.5	0.2
	3세대 가구	(3)	100.0	100.0	0.0	33.3	0.0	0.0
	비혈연 가구	(2)	100.0	50.0	50.0	100.0	0.0	0.0

5) 노후자금 마련 경로

○ 50+세대는 현재 노후자금을 주로 ‘근로활동’(94.0%)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 ‘일반 적금 및 예금’(66.0%),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40.2%), ‘배우자의 소득’(29.5%)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4-76] 노후자금 마련 경로 - 1+2+3순위

<표 4-90> 노후자금 마련 경로 -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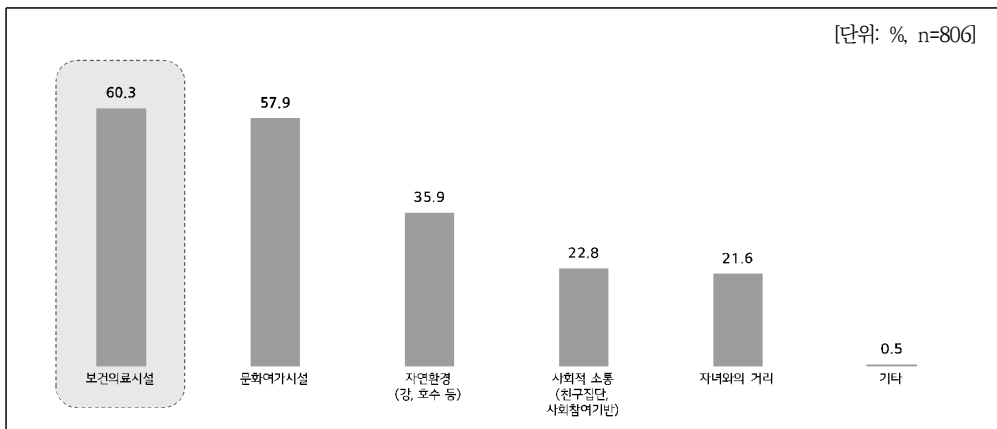
[단위: %, n=806]

1+2+3순위		사례 수	근로활동	일반 적금 및 예금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배우자의 소득	부동산 관련 수익 (투자 등)	개인연금
전 체		(806)	94.0	66.0	40.2	29.5	15.9	15.0
성 별	남 성	(381)	107.6	71.1	30.7	16.0	15.7	16.3
	여 성	(425)	81.9	61.4	48.7	41.6	16.0	13.9
연 령	만50-54세	(254)	89.8	66.1	38.6	33.9	13.8	15.7
	만55-59세	(264)	95.8	65.9	35.6	30.3	16.3	15.2
	만60-64세	(288)	96.2	66.0	45.8	25.0	17.4	14.2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76.5	88.2	67.6	20.6	7.4	11.8
	중 부	(95)	106.3	56.8	44.2	22.1	16.8	21.1
	남 부	(242)	113.2	52.5	35.1	27.7	16.5	10.7
	동 남	(145)	71.7	75.2	38.6	25.5	18.6	22.1
	북 부	(136)	102.2	72.8	27.2	32.4	14.7	11.0
가 구 태	동 부	(120)	73.3	69.2	48.3	45.8	16.7	16.7
	1인 가구	(44)	156.8	29.5	47.7	0.0	13.6	9.1
	1세대 가구	(230)	86.5	65.2	38.7	34.8	19.6	14.8
	2세대 가구	(527)	92.6	68.7	40.4	30.0	14.0	15.6
	3세대 가구	(3)	0.0	166.7	0.0	0.0	66.7	33.3
비혈연 가구		(2)	100.0	100.0	50.0	0.0	50.0	0.0

6) 노후 주거지의 조건

○ 노후 주거지의 조건 중 ‘보건의료시설’(60.3%)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 ‘문화여가시설’(57.9%), ‘자연환경(강, 호수 등)’(35.9%), ‘사회적 소통(친구 집단, 사회참여기반)’(22.8%), ‘자녀와의 거리’(21.6%)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보건의료시설’, ‘문화여가시설’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성은 ‘문화여가시설’, ‘보건의료시설’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그림 4-77] 노후 주거지의 조건

<표 4-91> 노후 주거지의 조건 - 1+2순위

[단위: %, n=806]

1+2순위		사례 수	보건의료 시설	문화여가 시설	자연환경 (강, 호수 등)	사회적 소통 (친구집단, 사회참여 기반)	자녀와의 거리	기타
전 체		(806)	60.3	57.9	35.9	22.8	21.6	0.5
성 별	남 성	(381)	64.3	58.0	33.6	24.7	17.8	0.5
	여 성	(425)	56.7	57.9	37.9	21.2	24.9	0.5
연 령	만50-54세	(254)	64.6	63.8	35.8	20.5	14.2	0.0
	만55-59세	(264)	53.4	56.8	41.3	25.4	22.0	0.8
	만60-64세	(288)	62.8	53.8	30.9	22.6	27.8	0.7
50+ 캠퍼스 권역별	서 부	(68)	70.6	44.1	32.4	22.1	30.9	0.0
	중 부	(95)	67.4	55.8	32.6	21.1	21.1	1.1
	남 부	(242)	55.0	59.9	39.7	23.6	20.7	1.2

1+2순위		사례 수	보건의료 시설	문화여가 시설	자연환경 (강, 호수 등)	사회적 소통 (친구집단, 사회참여 기반)	자녀와의 거리	기타
50+ 캠퍼스 권역별	동 남	(145)	65.5	58.6	38.6	16.6	20.7	0.0
	북 부	(136)	61.8	63.2	30.1	24.3	16.9	0.0
	동 부	(120)	51.7	56.7	35.8	29.2	25.0	0.0
가 구 태	1인 가구	(44)	56.8	40.9	38.6	27.3	36.4	0.0
	1세대 가구	(230)	58.3	60.0	33.9	24.8	20.9	1.3
	2세대 가구	(527)	61.9	58.3	36.1	21.6	20.9	0.2
	3세대 가구	(3)	33.3	66.7	66.7	33.3	0.0	0.0
	비혈연 가구	(2)	0.0	100.0	100.0	0.0	0.0	0.0

제4절 세대별 비교분석

- 50+세대는 이전, 이후세대와는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2차 베이비붐세대(1974~1968년생), 50+세대(1969~1955년생), 노인세대(1954~1950년생)의 특성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 설계함. 4절에서는 주요 설문항목을 중심으로 세대별 비교분석결과를 제시함.

1. 일과 활동 상태

1) 생애 주된 일자리

- 세대별 생애 주된 일자리 이력을 분석한 결과, 종사하였던 산업 분야는 2차 베이비붐세대는 제조업(23.5%), 50+세대(20.2%)와 노인세대(21.6%)는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상 '사무직'의 비율은 노인세대(20.6%), 50+세대(27.4%), 2차 베이비붐세대(39.2%) 순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의 경우는 반대로 2차 베이비붐세대(13.7%), 50+세대(17.1%), 노인세대(21.6%) 순으로 높아짐.

- 근무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서 '중소기업 근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노인세대와 50+세대의 경우 '사업체 운영'이 각 24.5%, 19.6%로 조사된 반면, 2차 베이비붐세대는 '대기업 근무'(21.6%)가 높게 나타남.
- 2차 베이비붐세대→50+세대→노인세대로 갈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자, 전일제 근무, 정규직 고용형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2〉 세대별 생애 주된 일자리 이력(요약)

	2차 베이비붐세대 (102명)		50+세대 (806명)		노인세대 (102명)	
산업	제조업	23.5%	도매 및 소매업	20.2%	도매 및 소매업	21.6%
	도매 및 소매업	14.7%	제조업	18.5%	제조업	17.6%
	교육 서비스업	11.8%	금융 및 보험업	8.2%	숙박 및 음식점업	11.8%
	금융 및 보험업	10.8%	숙박 및 음식점업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7.8%
직위	사원급	38.2%	사원급	33.0%	사원급	37.3%
	과장급	34.3%	부장급	17.5%	부장급	20.6%
직업	사무	39.2%	사무	27.4%	서비스	21.6%
	전문가 및 관련 서비스	14.7%	판매	17.4%	사무	20.6%
		13.7%	서비스	17.1%	판매	17.6%
근무형태	중소기업 근무	56.9%	중소기업 근무	47.9%	중소기업 근무	47.1%
	대기업 근무	21.6%	사업체 운영	19.6%	사업체 운영	24.5%
근무시간형태	전일제	91.2%	전일제	81.3%	전일제	77.5%
일자리 형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6.1%	상용직 임금근로자	81.0%	상용직 임금근로자	76.5%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2.0%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1.0%	종업원 있는 고용주	12.7%
고용형태	정규직	90.2%	정규직	73.6%	정규직	67.6%
			자영업자	16.3%	자영업자	21.6%

2)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현재 일자리

- 현재 일자리 이력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노인세대로 갈수록 월 평균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세대에서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50+세대와 노인 세대는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각각 11.9%, 24.4%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2차 베이비붐세대'에서는 정규직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50+세대'와 '노인세대'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각각 32.5%,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93〉 세대별 현재 일자리 이력(요약)

	2차 베이비붐세대 (100명)	50+세대 (714명)	노인세대 (78명)
월 평균 소득 (중 위 값)	277만원 (250만원)	269만원 (245만원)	225만원 (200만원)
산 업	도매 및 소매업 20.0%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각 9.0%	도매 및 소매업 28.7% 숙박 및 음식점업 17.9%	도매 및 소매업 25.6% 숙박 및 음식점업 24.4%
직 위	사원급 47.0% 임금근로자가 아님 28.0%	사원급 42.9% 임금근로자가 아님 33.8%	사원급 48.7% 임금근로자가 아님 35.9%
직 업	서비스 종사자 28.0% 사무종사자 20.0% 판매종사자 19.0%	서비스종사자 28.0% 판매종사자 27.6% 단순노무종사자 11.9%	서비스종사자 41.0% 단순노무종사자 24.4% 판매종사자 16.7%
근 무 형 태	중소기업 근무 35.0% 사업체 운영 32.0%	사업체 운영 36.4% 중소기업 근무 36.0%	사업체 운영 39.7% 중소기업 근무 33.3%
근무시간형태	전일제 62.0%	전일제 55.0%	전일제 59.0%
일 자리 형 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7.0%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6.0%	상용직 임금근로자 52.7%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19.7%	상용직 임금근로자 48.7%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24.4%
고 용 형 태	정규직 41.0% 자영업자 30.0%	자영업자 32.5% 정규직 28.7%	자영업자 32.1% 정규직 26.9%

3)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활동 상태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하는 활동에서의 근무 형태는 모든 세대에서 ‘일반 협회 및 단체’ 비율이 높았음.
 - 세대별로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봉사활동’ 형태가 가장 높았으며, 50+세대의 경우 ‘재능기부활동’(26.4%), ‘공공일자리사업활동’(2.2%)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세대의 경우, ‘봉사활동’에 이어 ‘주민자치위원활동’(37.5%)의 형태로도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94〉 세대별 활동 이력(요약)

	2차 베이비붐세대 (5명)	50+세대 (91명)	노인세대 (8명)
산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각 4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각 37.5%
근 무 형 태	일반협회 및 단체 100.0%	일반협회 및 단체 73.6% 공공기관 근무 15.4%	일반협회 및 단체 50.0% 프리랜서 25.0%
활 동 상 태	봉사활동 60.0% 커뮤니티/동호회활동 20.0%	봉사활동 56.0% 재능기부활동 26.4% 공공일자리사업활동 2.2%	봉사활동 50.0% 주민자치위원활동 37.5%
활 동 만 족 도	91.7점	78.9점	71.9점
고 용 형 태	해당없음(프리랜서 등) 100.0%	해당없음(프리랜서 등) 90.1% 자영업자 4.4%	해당없음(프리랜서 등) 87.5% 정규직 12.5%

2. 소득, 소비, 자산, 부채 수준

- 세대별 현재 소득, 소비, 자산, 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세대가 높아질수록 소득과 소비가 낮았으며, 자산과 부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세대가 높아질수록 보유 자산 수준은 많아지지만 그 만큼 부채도 함께 많아지기 때문에, 이는 노인세대에게 가계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50+세대, 2차 베이비붐세대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까지 동반된다면, 향후 노년기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임.

〈표 4-95〉 현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 수준

(단위: 가구, 만원)

		2차 베이비붐세대 (n=102)	50+세대 (n=806)	노인세대 (n=102)
연평균소득	근로·사업소득	5,972	5,687	3,827
	총 소득	6,511	5,963	4,567
월평균소비	주거비	35	32	27
	식료품·외식비 및 담배구입비·주류비	92	88	79
	의류·잡화(화장품) 구입비 및 이·미용비	22	27	21
	교통/통신비	41	38	26
	문화/여행 관련 지출비	18	17	16
	보건의료비 (건강/민간보험료 포함)	45	43	35
	가전가구 제품구입비	15	14	10
	교육비	79	35	6
	경조사비	17	21	19
	총 소비	364	314	239
자 산	부동산자산	32,772	41,892	40,510
	금융자산	4,962	5,972	6,963
	기타자산	2,368	1,969	2,843
	총 자산	40,102	49,549	50,288
부 채	거주주택 관련	5,037	5,783	9,209
	총 부채	5,217	5,961	7,868

3. 삶의 질과 노후준비

1) 삶의 질

○ 세대별 전반적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2차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전과 비교해 퇴직 후의 만족도가 3.7%p 증가한 반면, 50+세대와 노인세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건강상태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퇴직 후에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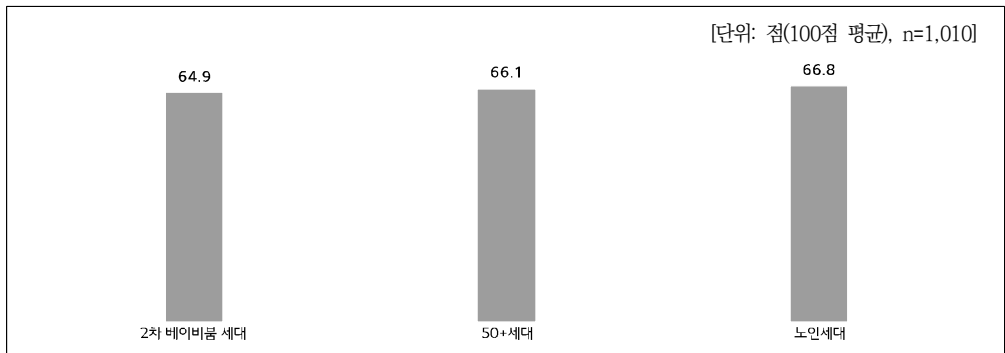
〈표 4-96〉 세대별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삶의 질

[단위: %]

	2차 베이비붐세대		50+세대		노인세대	
	퇴직 전	퇴직 후	퇴직 전	퇴직 후	퇴직 전	퇴직 후
자신의 경제상태	64.0	63.7	67.8	68.1	66.9	65.7
자신의 건강상태	71.6	69.9	72.9	70.2	72.3	67.4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66.7	70.3	69.6	72.4	70.3	72.8
현재 하고 있는 일·활동	67.9	68.4	68.8	69.2	70.3	69.1
여가생활	64.2	64.0	66.7	66.9	64.7	64.2
배우자와의 관계	67.3	71.0	70.8	70.0	70.5	69.7
자녀와의 관계	70.3	69.6	71.9	71.9	69.3	70.3
사회적 친분 관계	69.6	70.6	70.1	69.6	68.9	69.4
친인척 관계	68.9	71.1	72.2	69.7	69.9	70.6
전반적 생활 만족도	67.9	71.6	71.4	71.9	70.6	71.6

2) 현재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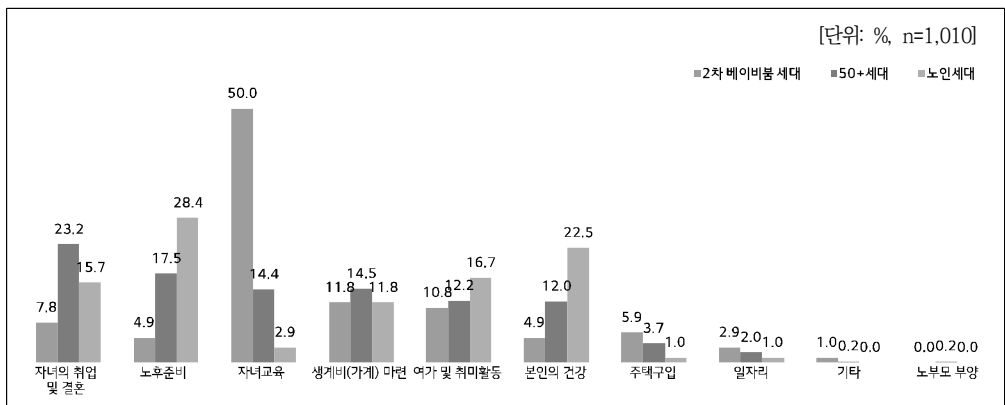
- 세대별 현재 행복도를 살펴보면, 현재 행복도 환산 점수는 노인세대(66.8점), 50+세대(66.1점), 2차 베이비부름세대(64.9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78] 현재 행복도

3) 최근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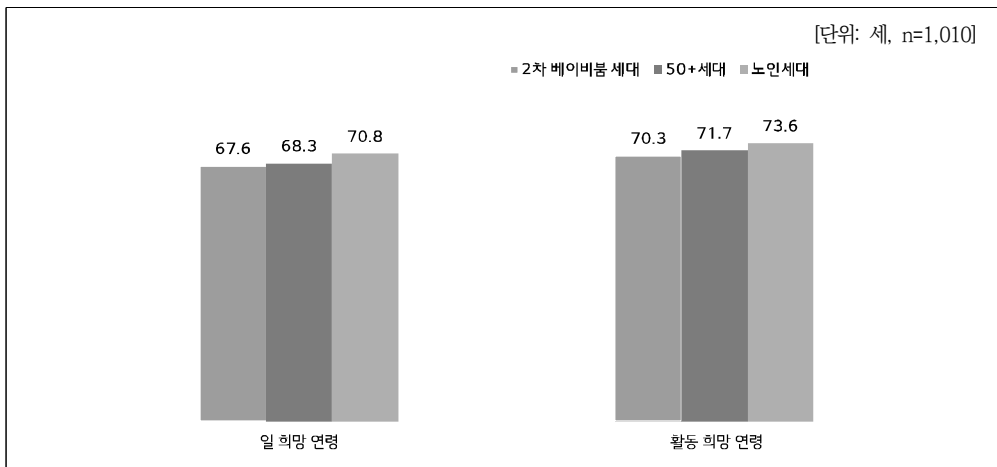
- 세대별 최근 관심사를 살펴보면, 2차 베이비부름 세대와 50+세대는 각각 ‘자녀교육’(50.0%), ‘자녀의 취업 및 결혼’(23.2%) 등 자녀와 관련된 항목을 가장 큰 관심사로 꼽았으며, 노인세대의 경우 ‘노후준비’(28.4%), ‘본인의 건강’(22.5%)에 높은 응답을 보임.
- 세부 응답별로 살펴보면, ‘노후준비’, ‘본인의 건강’, ‘여가 및 취미활동’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4-79] 최근 관심사 - 1순위

4) 일 및 활동 희망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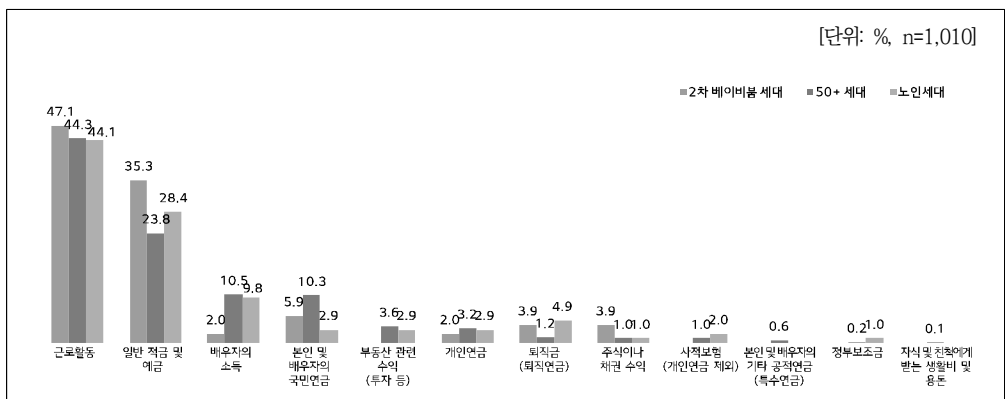
- 세대별 일 및 활동 희망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 및 활동 희망 연령이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일 희망연령은 2차 베이비붐 세대(67.6세), '50+세대'(68.3세), '노인세대'(70.8세) 순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희망 연령 또한 같은 순으로 각 70.3세, 71.3세, 73.6세로 조사됨.



[그림 4-80] 일 및 활동 희망 연령

5) 노후자금 마련 경로

- 세대별 노후자금 마련 경로는 ‘근로활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이어, 주로 ‘일반 적금 및 예금’, ‘배우자의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0+세대의 경우 ‘일반 적금 및 예금’ 외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10.3%)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81] 노후자금 마련 경로 - 1순위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제 5 장



결 론

제5장

결론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1. 서울시 50+세대의 일과 활동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던 종사상 지위는 퇴직 후에 임시직·일용직·자영업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
-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다음 일자리로 갈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낮아지고(상용직), 자영업, 특히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의 비율은 점점 증가 되는 경향
- 오히려 자영업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지낸 50+세대는 퇴직 후 일자리를 이동할 수록 또 다른 자영업으로 변경하는 비율은 감소하였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근로자로 이동한 50+세대 비중이 크게 증가
- 50+세대 시기 때(50~64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387명 중 두 번째 일자리로 이동은 27명, 세 번째 일자리로 이동은 단 1명으로 나타나, 50+시기 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면, 다음 일자리 이동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첫 번째, 두 번째로의 일자리를 이동하면서 근무기간이 급격히 짧아짐.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무기간도 짧고, 퇴직연령도 빠르며, 다음 일자리까지로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매우 오래 걸림.

- 50+세대 남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19.1년 근무 후, 50.1세에 퇴직하고, 여성은 평균 12.5년 근무 후, 44.6세에 퇴직함.
 - 50+세대 남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다음 일자리까지 평균 1.3년이 걸리고, 여성은 평균 6.3년이 걸림.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들은 일자리 이동을 거치면서 소득, 종사상 지위, 직무, 직종, 사업장 규모 등 근로여건의 변화를 경험함.
- 특히, 생애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첫 번째 일자리로 이동할 때, 근로여건이 크게 악화됨.
 - 주목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이동한 일자리에서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난 후, 두 번째 일자리에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이어졌다는 점임.
 - 예를 들면, 월평균 소득은 퇴직 전 342만원에서 첫 번째 일자리 263만원으로 23%감소했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자리에서의 평균소득은 각각 263만원, 260만원으로 변화의 폭이 적음.
 - 또한,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과장·부장급에서 사원급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로여건이 달라짐.
-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뿐만 아니라 다음일자리로의 이동을 거치며 근로여건 차이가 큼.
- 두 번째 일자리를 가진 50+세대의 경우, 남성은 퇴직 후 첫 번째, 두 번째 일자리에서 각각 평균 4.3년 근무하는 반면, 여성은 3.5년, 2.8년으로 근무기간이 남성에 비해 적음.
 - 월평균 소득의 경우, 남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398만원)→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310만원)→퇴직 후 두 번째 일자리(267만원)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생애 주된 일자리(277만원)→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202만원)임.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50+세대가 원하는 지원은 창업과 자영업 분야의 지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경력을 살릴 일자리의 증가로 나타남.
- 다만, 여성의 경우, '신규 경력 개발 일자리 지원'이 16.0%로 남성 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경력단절(평균 4.8년~6.3년)로 인해 기존 경력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서울시 50+세대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다음 일자리

를 구하길 원했고, 구직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스스로 정보 습득, 인적 네트워크였음.

- 퇴직 후 50+세대들의 활동은 생애 주된 일자리 경력과의 연관성(51.6%)이 중요했고, 생애 주된 일자리와 퇴직 후 일자리가 경력과 연관된 경우, 경력이 연관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득 만족도가 높음.
- 50+세대가 퇴직 후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이고, 봉사활동의 형태임.
- 퇴직 후 활동의 소득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91.6%가 만족하였고, 활동하는 이유로 활동자체로부터 오는 즐거움,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꼽음.

2. 서울시 50+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에 비해 퇴직 후 가계 연 평균 총 소득은 17.9%감소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에 비해 퇴직 후 가계 월 평균 총 소비는 14.6%감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 가구의 자산 총액은 평균 4억 9,549만원이며, 부동산 자산이 84.5%를 차지
- 1인가구는 50+세대에게 필요한 자산형성관련 지원 중 저축관련 지원보다 의료비 관련 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음.

3. 서울시 50+세대의 삶의 질과 노후준비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의 현재 행복도는 평균 66.1점인 것으로 나타남.
 -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의 행복도가 63.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3세대 가구

에서 1인 가구로 갈수록 50+세대가 느끼는 행복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50+세대는 평균 68.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평균 71.1세까지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세대별 비교

- 2차 베이비부름세대와 50+세대, 노인세대를 비교했을 때, 50+세대와 노인세대는 유사한 일자리 이력이 나타남.
 - 생애 주된 일자리의 산업분야는 50+세대, 노인세대는 도매 및 소매업, 2차 베이비부름 세대는 제조업 분야에 가장 많이 종사함.
 - 생애 주된 일자리 근무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서 '중소기업 근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노인세대와 50+세대의 경우 '사업체 운영'이 각 24.5%, 19.6%로 조사된 반면, 2차 베이비부름세대는 '대기업 근무'(21.6%)가 높게 나타남.
 -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현재 일자리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50+세대와 노인세대는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도 각각 11.9%, 24.4%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2차 베이비부름세대'에서는 정규직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50+세대'와 '노인세대'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각각 32.5%,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세대별 현재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는 노인세대로 갈수록 소득과 소비는 줄었으며, 자산과 부채는 높아지는 경향임.

제2절 조사 활용방안

- 본 조사연구는 서울시 50+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자리 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조사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로 삼음.
- 기존의 횡단면 실태조사에서 측정하기 어려웠던 50+세대들의 일자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일자리별 특성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서울시 50+세대 일반가구 전체로 해석시 유의해야 하며, 대신 주제별 심층 분석에는 효율적이라 볼 수 있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일과 활동의 유형, 성별에 따른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자리 특성 비교, 50+세대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분석 등
- 본 조사는 2017년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 조사』에 이은 2번째 조사로서 조사결과와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서울시 50+세대의 실태 및 욕구 조사 그리고 주제별 심층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체계의 이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년마다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에 특수집단 또는 주제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본 조사는 50+세대의 전·후세대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2차 베이비붐세대(1974~1968년생), 50+세대(1969~1955년생), 노인세대(1954~1950년생)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다만 주요 조사대상은 50+세대이기 때문에 표본크기의 80% 이상을 50+세대에 할당함. 따라서 세대별 비교할시 연령대별 과소과대 표집은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한 통계과정에서 보정이 될 것임.
- 또한, 조사통계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조사를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 기법을 통해 상호 보완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다른 조사와 연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참고문헌

- 강민연, 김춘경.(2010). 노인의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K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국노년학지**, 30(40), 1409-1427.
- 강소랑, 문상호. (2011). 중·고령자 삶의 질을 위한 증험적(Evidence-Based) 정책설계: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2), 353-382.
- 강소랑, 최은영. (2016).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분석: 가계자산·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2), 1-30.
- 강순희.(2016). 중고령자 재취업의 결정요인, 일자리 만족도 및 고용안정성. **한국취업진로학회**, 6(3), 117-140.
- 김미혜, 이현주, 서미경.(2008).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한국 남성노인의 구직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노년학회**, 28(1), 123-142.
- 김승연, 변미리, 장익현, 노승철, 고윤정, 권혜영, 오서안.(2018). 2018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 라진구.(2009). **고령자 재취업 및 직종선택의 결정요인과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논문.
- 박경하.(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이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다양성과 불평등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291-327.
-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석상훈.(2010).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경로 유형과 은퇴 후 소득 비교. **한국경제발전학회**, 16(2), 59-82.
- 신동균.(2009).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9(2), 1-41.
- 신현구.(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애 주요 일자리 특성-고령화연구패널 직업력조사 자료 분석결과**. 한국노동연구원.
- 신혜정.(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금급여 도입 필요성: WTA를 통한 적정 현금급여액

- 추정. **한국노년학연구**, 29(1), 1226-1641.
- 심현정, 정나라.(2019). **2019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보고서**.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양지훈, 권미애.(2018).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 이석원.(2006). 재원조달 메카니즘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의 민감성 분석: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 사례. **한국행정학보**, 40(4), 155-177.
- 이주영.(2018). **중고령자 생애 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주된 일자리 퇴직과 재취업사건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박사논문.
- 장지연.(2003).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한국사회학회**, 37(2), 95-121.
- 정영호, 노대명, 고숙자, 김신양, 장원봉, 민동세.(2006). 사회적 일자리 비용편익분석: 간병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3), 107-128.
- 주수현, 김수영, 진재문.(2016).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가치 평가. **지방정부연구**, 20(2), 73-92.
- 지은정, 최보라, 최지현. (2016). 노인우울과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상호작용-역할보완관점과 역할강화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4), 57-85.
- 지은정.(2017). 개인-직무적합의 관점에서 본 노인의 일과 삶의 만족도: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2), 189-224.
- 차경욱, 김연주.(2009). 은퇴유형에 따른 은퇴가계 특성 비교: 전통적 은퇴와 점진적 은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3(4), 95-114.
- 최옥금.(2011).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은퇴 과정에 관한 연구: 생애 주된 일자리와 가교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31(1), 15-31.
- 한경혜, 손정연.(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과정, 경제적, 관계적 자원과 심리적 복지감: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91-330.
- 현우형.(2016). **가교 일자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자발성 여부와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 홍백의, 김혜연.(2010).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1): 291-319.
- 황희숙, 김윤재.(2011). 고령자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한국국정관리학회**, 22(2), 167-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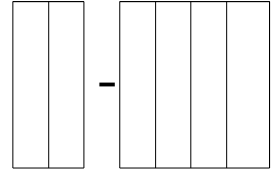
- Adams, G. A., & Beehr, T. A. (2003). Retirement: Reasons, processes, and result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Alan L. Gustman, & Thomas L. Steinmeier. (1986). Pensions, unions and implicit contracts.
- Cahill, K. E., Giandrea, M. D., Quinn, J. F. (2006). Retirement patterns from career employment. *The gerontologist*, 46: 514-523.
- Cahill, K. E., Giandrea, K. E., Quinn, K. E. (2013). *Bridge employment*. The Oxford handbook of retirement.
- Gustman, Anan L., and Thomas L. Steinmeier. (2000). Pensions and Retiree Health Benefits In Household Wealth : Changes from 1969 to 1992. *Journal of Human Resources*, 35: 30-50.
- Giandrea, M. D., Cahill, K. E., Quinn, J. F. (2009). Bridge Jobs A Comparison Across Cohorts. *Research on Aging*, 31: 549-576.
- Dingemans, E., & Henkens, K. (2014). Involuntary retirement, bridge employment, and satisfaction with lif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5(4), 575-591.
- Kim, S., & Feldman, D. C. (2000). Working in retirement: The antecedents of bridge employment and its consequences for quality of life in retir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6), 1195-1210.
- Shultz, Kenneth S. (2003). Bridge employment: Work after retirement. Retirement: Reasons, processes, and results, 214-241.
- Ulrich, L. B., & Brott, P. E. (2005). Older workers and bridge employment: Redefining retirement.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2(4), 159-170.
- Wang, M. (2007). Profiling retirees in the retirement transition and adjustment process: Examining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of retiree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2), 455.
- Zhan, Y., Wang, M., & Shi, J. (2015). Retirees' motivational orientations and bridge employment: Testing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0(5), 1319.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부 록

—

조사용설문지



[부록] 조사용설문지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안녕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세대의 삶의 전환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만 45세~69세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50+세대의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보호되며, 서울시 50+세대 정책수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성의 있게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수행기관	(주)서던포스트 연구3팀 민소연 연구원
주관기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강소랑 박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김민주 연구원
<p>-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p> <p>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p> <p>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p>	

PART-1. 서울시 50+세대의 직업이력

A 일과 활동 이력

※ 다음은 귀하가 지금까지 가졌던 일과 활동 이력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아래 보기를 잘 읽고 순서대로 응답해주시십시오.

A1. 일과 활동 구분 *보가 카드 참조	A2. No	A3. 일과 활동 상태 *보가카드 참조	A4. 시작 시기	A5. 끝난 시기	A6. 기관 또는 사업체명	A7. 사업체의 주된 활동	A8. 산업 *보가카드 참조	A9. 사업장 위치 *보가카드 참조	A10. 부서명	A11. 맡은 일	A12. 직위 *보가카드 참조	A13. 직업 *보가카드 참조	A14. 근무 형태 *보가카드 참조	A15. 고용 형태 *보가카드 참조	A16. 근무 시간 형태 *보가카드 참조	A17. 월 평균 소득 (만원)	A18. 일 또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만족도 *보가카드 참조	A19. 생애 주된 일자리 *보가카드 참조	A20. 경력 연관성 ^a *코도인력 A20. 바로 직전 일 또는 활동	A21. 현재 일 또는 활동여부 *보가카드 참조
1	1	생애주된 일자리	년 월 (당시_세)	년 월 (당시_세)																
	2		년 월 (당시_세)	년 월 (당시_세)																
	3		년 월 (당시_세)	년 월 (당시_세)																
	4		년 월 (당시_세)	년 월 (당시_세)																
	5		년 월 (당시_세)	년 월 (당시_세)																
	6		년 월 (당시_세)	년 월 (당시_세)																

주. “생애 주된 일자리 또는 바로 직전 일과 활동과 해당 일 또는 활동의 연관성 정도

B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과 활동 실태

B1. 귀하는 생애동안 총 얼마나 근무하셨습니다까?

년 개월

B2. 귀하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에는 총 얼마나 근무하셨습니다까?

년 개월

B3. 귀하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는 총 얼마나 근무하셨습니다까?

년 개월

B4. 귀하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퇴직 사유를 3 순위까지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정년퇴직 ② 명예 퇴직
- ③ 권고사직 및 해고 ④ 다니던 회사/운영하던 사업의 부도 또는 폐업
- ⑤ 보수, 적성 등에 맞는 더 좋은 회사로 옮기기 위해
- ⑥ 일로 인한 스트레스/직장상사 또는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 ⑦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⑧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 ⑨ 본인의 여가생활을 위해 ⑩ 결혼/출산/육아 등 가사문제로
- ⑪ 배우자를 비롯한 동거 가족원들의 수입만으로도 생활이 충분해져서
- ⑫ 비동거 가족원 및 친지가 충분한 생활비를 보내줘서
- 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서
- ⑭ 학업 ⑮ 계약기간이 끝나서 ⑯ 사업체의 성격이 바뀌어서
- ⑰ 창업도전 ⑱ 창업제한수용
- ⑲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인해

B5. 귀하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일과 활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다까?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준비한 것을 3순위까지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스스로 재취업/창업 관련 정보 습득 ②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인맥관리
- ③ 자격증 취득 ④ 공공기관에서 취업알선
- ⑤ 취업/창업 박람회 참석 ⑥ 공공기관 등에서 상담 받기
- ⑦ 직장에서 제공하는 전직교육, 교육훈련 참석 ⑧ 진학(대학원, 방송통신대학교, 기술직업학교 등)
- 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전직교육, 교육훈련 참석 ⑩ 퇴직 전 경력을 관리함
- ⑪ 눈높이를 낮춤 ⑫ 사적으로 알고 지낸 지인의 도움
- ⑬ 지속적으로 구직을 시도함 ⑭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음
- ⑮ 기타()

B9.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근로소득이 줄어든 50+세대에게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지원에 대해 두 개까지 응답해주시시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응답)

--	--

- ①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 ② 창업과 자영업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
- ③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경력을 살릴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 ④ 중장년에 적합한 파트타임 '계약직'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 ⑤ 새로운 일, 경험, 신규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지원사업, 활용사업이 늘어나야 한다.
- ⑥ 기타()

B10. 귀하는 현재 다른 일(재취업, 창업 등)과 활동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현재 일을 유지하고 싶다
- ②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③ 하던 일과 관련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 ④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자격이 부족한 것 같아서 도전할 용기를 내기 어렵다
- 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
- ⑥ 잘 모르겠다(미정)
- ⑦ 기타

B11. 귀하가 활동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 ②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 ③ 주변(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의 권유에 의해
- ④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 ⑤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 ⑥ 경력관리를 위해
- ⑦ 기타

B12. 귀하가 활동을 하게 된 주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경로를 2순위까지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 ② 가족(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를 통해
- ③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노인정,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 ④ 서울시50+캠퍼스, 서울시50+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 ⑤ 단체의 직접 홍보(방문, 이메일, 우편 등)를 통해
- ⑥ 종교 관련 지인을 통해
- ⑦ 기타

D 소비

D1.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대비 현재 가구 소비 수준은 대략 몇 %정도가 되었는지 적어주십시오.

계산식	$\frac{\text{현재 월평균 가구 소비}}{\text{퇴직 전 월평균 가구 소비}} * 100$
	약 _____ %

D2.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대비 현재 가구의 소비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각 항목별로 기재해주시십시오.

※ 퇴직 전 소비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현재 금액의 %로 산정하여 입력

구분	해당사항	월평균(만원)	
		퇴직 전	현재
D2-1. 주거비	• 월세, 주택 보수, 수리 및 관리비, 냉난방비, 수도·전기료 등	만원	만원
D2-2. 식료품·외식비 및 담배구입비·주류비	• 내·외부에서 소비하는 식품 (음식점, 건강보조식품, 주류, 담배 등 포함)	만원	만원
D2-3. 의류·집화(화장품) 구입비 및 아·미용비	• 의복·신발 구입비, 미용비, 화장품 구입비, 목욕료 등	만원	만원
D2-4. 교통/통신비	• 공공교통비, 렌트비, 차량유지를 위해 지출한 연료비·수리비, 부품구입비, 엔진오일 교환비, 자동차 보험료, 자가용 구입비(월할부금 포함) 등	만원	만원
D2-5. 문화/여행 관련 지출비	• 스포츠장비 구입비, 영화관 입장료, 스포츠시설 이용료, 케이블방송 시청료, 관광 여행 및 숙박료 등	만원	만원
D2-6. 보건의료비 (건강/민간보험료 포함)	• 본인이 부담한 수술·입원비, 외래진료비, 약값, 보건의료용품 기구의 구입비 및 임대료, 건강보험료, 상해 및 종신보험료 등	만원	만원
D2-7. 가전기구 제품구입비	• 냉장고/가구 구입비(월 할부금 포함), 주방용품/가정용기기 구입비 등	만원	만원
D2-8. 교육비	• 함께 거주하는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학교납입금), 사교육비(개인교습비, 학원수강료), 문방구비(교재비) 등	만원	만원
D2-9. 경조사비	• 결혼비용, 장례비용 등	만원	만원
D2-10. 가계 총 지출(합계)		만원	만원

D7. 현재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주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방법부터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주시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내가/배우자가 일을 해서 번다.
- ② 나/배우자의 연금과 퇴직금
- ③ 내가/배우자가 저축했던 돈
- ④ 내/배우자 명의의 재산 소득(배당금, 이자, 집세 등)
- ⑤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
- ⑥ 따로 사는 가족의 이전 소득
- ⑦ 친척이나 친지로부터의 이전소득
- ⑧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주는 생활보조금
- ⑨ 기타 : _____

D8. 귀댁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D8-1로 이동
- ② 아니오▶ D9로 이동

D8-1.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귀댁에서는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거나 무엇을 줄였는지를 가장 주된 방법부터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 주시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은행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용
- ② 현금서비스 이용(신용카드 사용 포함)
- ③ 자녀나 친척(친지)의 도움
- ④ 친구나 이웃의 도움
- ⑤ 사채
- ⑥ 부동산 매각
- ⑦ 전세나 월세의 규모를 줄임
- ⑧ 저축, 예금, 적금, 보험 등의 해약
- ⑨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 매각(파생금융상품 CD, MMF 등) 포함
- ⑩ 자동차/내구재/금은의 귀중품 매각
- ⑪ 생활비 자체를 줄임
- ⑫ 경조사/지인모임을 줄임
- ⑬ 소득활동을 추가함(아르바이트, 부업 등)
- ⑭ 기타 : _____

D9. 귀 부부가 서울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부부기준으로 작성)

※ 최소생활비: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현재	월평균: _____만원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월평균: _____만원

D10. 귀 부부가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부부기준으로 작성)

※ 적정생활비: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함

현재	월평균: _____만원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월평균: _____만원

E 자산

E1.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대비 현재 가구 자산 수준은 대략 몇 %정도가 되었는지 적어 주십시오.

계산식

현재 자산 규모 ÷ 퇴직 전 자산 규모 * 100

약 _____%

E2.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 대비 현재 가구의 부동산 자산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퇴직 전	현재
부동산 자산	E2-1. 부동산 자산의 총액(시가)(주택, 건물, 임야, 토지 등)	만원	만원
	E2-2. 부동산 자산 총액 중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 %	X	%

E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상 점유형태 및 시가는 어떠합니까?

퇴직 전	현재
① 자가(시가: 만원)	① 자가(시가: 만원)
② 전세(보증금: 만원)	② 전세(보증금: 만원)
③ 월세(보증금: 만원/월세: 만원)	③ 월세(보증금: 만원/월세: 만원)
④ 기타	④ 기타

E4.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매입비용, 임차비용, 보증금 등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씩 응답해 주십시오.

E4-1. 퇴직 전	E4-2. 현재
1순위 마련 방법 : _____	1순위 마련 방법 : _____
2순위 마련 방법 : _____	2순위 마련 방법 : _____

- | | |
|---------------------------------------|------------------------|
| ① 본인 돈(상속인 경우 포함) | ②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
| ③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④ 금융기관(회사 융자, 모기지론 포함) |
| ⑤ 사채 | ⑥ 자가에서 전세 또는 월세로 이동 |
| ⑦ 기존 부동산 매각 | |
| ⑧ 퇴직 전 마련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

E5. 퇴직 전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의 금융 및 기타 자산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명의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퇴직 전	현재
금융 자산	E5-1. 금융자산의 총액 (예금 -저축예금, 청약예금, 정기예금 등과 적금 -정기예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모두 포함)	만원	만원
	E5-2. 금융자산의 총액 중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 %		%
기타 자산	E5-3. 기타자산의 총액 (가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설비, 자동차, 운동클럽, 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만원	만원
	E5-4. 기타자산의 총액 중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 %		%

E6.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퇴직 전과 현재에 대해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각각 3개까지 응답해주시시오.

퇴직 전		현재	
1	◦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 _____	1	◦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 _____
2	◦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 _____	2	◦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 _____
3	◦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 _____	3	◦ 자산 형성의 주된 목적: _____

- ① 거주주택 ②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③ 전(월)세 보증금
- ④ 증권투자금 ⑤ 부채상환 ⑥ 창업자금 또는 사업자금(영농자금 포함)
- ⑦ 자녀 결혼자금 또는 자녀의 결혼 부가비용(주택, 가구 등)
- ⑧ 의료비
- ⑨ 자녀 교육비 ⑩ 생활비
- ⑪ 기타용도: _____

E7.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과 현재를 기준으로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저축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퇴직 전		현재	
E7-1. 예·적금(주택청약부금 등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E7-2. 개인연금(※국민연금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E7-3. 저축성보험(재테크 보험, 교육보험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E7-4. 갯돈 불입금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E7-5.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E7-6. 종신보험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E7-7. 적립식 펀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E7-8.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F3. 귀댁에 부채가 있거나, 있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퇴직 전과 현재에 대해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각각 응답해주시요.

퇴직 전	현재
부채가 있었던 주된 이유: _____	부채가 있는 주된 이유: _____

- ① 거주주택자금 ②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③ 전(월)세 보증금
- ④ 증권투자금 ⑤ 부채상환
- ⑥ 창업자금 또는 사업자금(영농자금 포함)
- ⑦ 결혼자금 또는 자녀의 결혼 부가비용 ⑧ 의료비
- ⑨ 자녀 교육비 ⑩ 생활비 ⑪ 보증
- ⑫ 기타용도
- ⑬ 부채 없음▶ 'G. 삶의 질'로 이동

F4. 귀댁이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매달 얼마입니까?

퇴직 전	현재
부채에 대한 매달 이자액: _____만원	부채에 대한 매달 이자액: _____만원

PART-III. 서울시 50+세대의 삶의 질과 노후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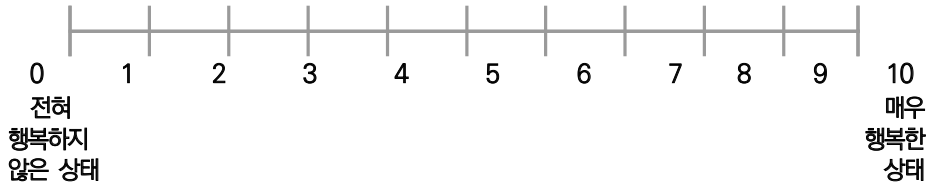
G 삶의 질

G1. 귀하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다음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 만족도 척도를 기준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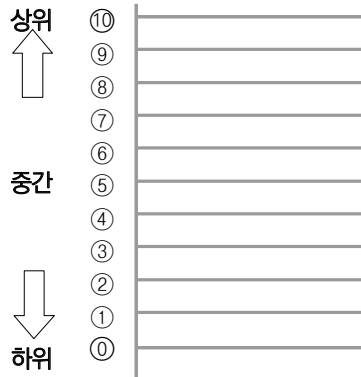
보기 [만족도 척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생활 만족도	만족도	
	퇴직 전	현재
G1-1. 자신의 경제상태	_____	_____
G1-2. 자신의 건강상태	_____	_____
G1-3.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_____	_____
G1-4. 현재 하고 있는 일·활동	_____	_____
G1-5. 여가생활(여가생활, 여가활동, 문화생활 등)	_____	_____
G1-6. 배우자와의 관계	_____	_____
G1-7. 자녀와의 관계	_____	_____
G1-8. 사회적 친분 관계	_____	_____
G1-9. 친인척 관계	_____	_____
G1-10. 위의 사항을 고려한 전반적 생활 만족도	_____	_____

G2.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최근 한 달 동안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떠올리며 해당하는 란에 체크해 주십시오.(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는 0점, 매우 행복한 상태는 10점입니다.)



G3.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사다리 그림이 한국 사회를 나타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다리 위로 올라갈수록 잘 사는 사람들이 위치한다고 했을 때, 귀하는 이 사다리 중에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G4. 최근 귀하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관심이 높은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자녀교육
- ② 자녀의 취업 및 결혼
- ③ 생계비(가계) 마련
- ④ 주택구입
- ⑤ 본인의 건강
- ⑥ 여가 및 취미활동
- ⑦ 노부부 부양
- ⑧ 노후준비
- ⑨ 일자리
- ⑩ 기타

G5. 다음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곳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G5-1.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G5-2.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G5-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G5-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G5-5. 나는 내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G5-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G5-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G5-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G5-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G5-10. 나는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H2. 귀하는 몇 세까지 일하고 싶으십니까? 또는 싶으셨습니까?

만 _____세 까지

H2-1. 귀하는 몇 세까지 활동하고 싶으십니까?

만 _____세 까지

H3. 귀하는 현재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충분하다▶ H4로 이동

② 충분하지 못하다▶ H3-1로 이동

H3-1.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낮아서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 ②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았기 때문에
- ③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 ④ 기타

H4. 귀하는 노후대책 마련에 있어 누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본인
- ② 배우자
- ③ 자녀
- ④ 사회단체
- ⑤ 정부
- ⑥ 기타

H5. 귀하는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요 마련 경로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일반 적금 및 예금
- ② 주식이나 채권 수익
- ③ 부동산 관련 수익(투자 개인연금등)
- ④ 근로활동
- ⑤ 개인연금
- ⑥ 사적보험(개인연금 제외)
- ⑦ 퇴직금(퇴직연금)
- ⑧ 자식 및 친척에게 받는 생활비 및 용돈
- ⑨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 ⑩ 본인 및 배우자의 기타 공적연금(특수연금)
- ⑪ 유산
- ⑫ 배우자의 소득
- ⑬ 정부보조금
- ⑭ 사회단체 보조금
- ⑮ 기타

H6. 귀하가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 주거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① 보건의료시설 | ② 문화여가시설 |
| ③ 자연환경(강, 호수 등) | ④ 자녀와의 거리 |
| ⑤ 사회적 소통(친구집단, 사회참여기반) | ⑥ 기타 |

DQ 인구학적 정보

DQ1. 최종 학력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DQ2.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사실혼 포함) ③ 별거 및 이혼 ④ 사별
DQ3. 종교	① 있음 ② 없음
DQ4. 가구원구성	DQ4-1. 총 가구원 수 _____ 명 ----- DQ4-2. 총 자녀 수 _____ 명 ----- DQ4-3. 50+세대 가구원 수 _____ 명 *가구원 중 1950년~1974년생 수
DQ5. 가구형태	① 혼자거주(1인 가구) ② 부부끼리 살거나,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1세대 가구) ③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2세대 가구) ④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3세대 가구) ⑤ 친구, 동료 등과 함께 거주(비혈연 가구) ⑥ 기타()

11-2. 현재 일하고 있는(혹은 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배우자의 퇴직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 ② 경력 유지, 자아실현 등을 위해서
- ③ 기타

12. 현재 일자리 정보

- 다음은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12-1. 일 상태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종업원 있는 고용주 ⑤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창업자(기술창업, 혁신창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포함)
12-2. 일자리 시작시기(연령)	_____년 _____월 (당시 _____세)
12-3. 기관 또는 사업체명	_____
12-4. 사업체의 주된 활동	_____
12-5. 산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㉑ 국제 및 외국기관
12-6. 사업장 위치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12-7. 부서명	_____
12-8. 맡은 일	_____
12-9. 직위	① 사원 ② 대리급 ③ 과장급 ④ 부장급 ⑤ 임원급 ⑥ 임금근로자가 아님
12-10. 직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12-11. 근무형태	① 대기업 근무 ② 중견기업 근무 ③ 중소기업 근무 ④ 공공기관 근무 ⑤ 사업체 운영 ⑥ 프리랜서(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않음) ⑦ 일반협회 및 단체 ⑧ 기타()
12-12.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자 ④ 해당없음
12-13. 근무시간 형태	① 시간제 ② 전일제 ③ 해당없음
12-14.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_____만원
12-15. 이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13. 현재 활동 정보

- 다음은 현재 '활동'을 한 가지 이상 하고 있는 응답자가 답하는 질문입니다 (11-1문항 ①, ② 응답자). 여러 개의 활동을 하신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활동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답해 주십시오.

13-1. 활동상태	① 커뮤니티/동호회 ② 봉사활동 ③ 재능기부활동 ④ 공공일자리사업활동(보람일자리사업, 사회공헌일자리사업, 뉴딜일자리사업 등) ⑤ 주민차지위원회활동 ⑥ 기타()
13-2. 활동시작시기(연령)	_____년 _____월 (당시 _____세)
13-3. 기관 또는 사업체명	_____
13-4. 사업체의 주된 활동	_____
13-5. 산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㉑ 국제 및 외국기관
13-6. 사업장 위치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13-7. 부서명	_____
13-8. 맡은 일	_____
13-9. 직위	① 사원급 ② 대리급 ③ 과장급 ④ 부장급 ⑤ 임원급 ⑥ 임금근로자가 아님
13-10. 직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13-12. 근무형태	① 대기업 근무 ② 중견기업 근무 ③ 중소기업 근무 ④ 공공기관 근무 ⑤ 사업체 운영 ⑥ 프리랜서(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않음) ⑦ 일반협회 및 단체 ⑧ 기타()
13-13.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자 ④ 해당없음
13-14. 근무시간 형태	① 시간제 ② 전일제 ③ 해당없음
13-15.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_____ 만원
13-16.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13. 귀하가 활동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활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 ②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 ③ 주변(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의 권유에 의해
- ④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 ⑤ 타인 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 ⑥ 경력관리를 위해서
- ⑦ 기타

14. 귀하가 활동을 하게 된 주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경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 ② 가족(배우자, 자녀 등), 이웃, 친구를 통해
- ③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노인정, 아파트 단지 또는 마을회관, 직장을 통해
- ④ 서울시50+캠퍼스, 서울시50+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 ⑤ 단체의 직접 홍보(방문, 이메일, 우편 등)를 통해
- ⑥ 종교 관련 지인을 통해
- ⑦ 기타

17. 귀하의 활동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울시50플러스 2019-017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김영대
편집인	양안나
연구자	강소랑 조규형 이서연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대)
ISBN	979-11-89011-43-7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www.50plus.or.kr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일자리·교육·상담 등의 중장년 정책을 통합하여 50+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50+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비매품/무료



9 791189 011437
ISBN 979-11-89011-43-7

